

2017~2018

미래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교

2018 서울미래학교 연구학교 보고서



창덕여자중학교
Changdeok Girls' Middle School

본교교육방향

비전

미래를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교

교육방향


의미있는
성장

지적·신체적·심미적·사회적 역량의 조화
꿈을 향한 도전과 실천으로 매일이 행복한 삶


실천적
나눔

공유와 나눔이 일상화되는 교실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함께하는 학교'
공감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세계시민 교육


자발적
배움

질문 경청 대화 토론이 살아있는 교실
생각하는 능력과 자유로운 표현을 존중하는 학교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융합적 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감수성 제고 및 지속적 실천
물리적·사회적·정서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핵심가치 / 구성원상(象)

핵심가치



구성원상



학생상

-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학생
- 새롭거나 어려운 일을 끈기 있게 시도하는 학생
- 다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고 힘을 합하는 학생
- 몸과 마음의 건강한 발달을 추구하는 학생
- 유쾌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

학부모상

- 학생과 학교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학부모
-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학부모
-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가정 문화를 형성하는 학부모

교사상

- 학교 구성원이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사
-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는 교사
- 공동체의 비전을 존중하며 옳음을 실천하는 교사

	I. 들어가는 이야기
	II. 교육과정
5	미래학교의 교육과정
17	미래학교의 수업과 평가
31	미래학교 융합수업
	III. 학교 문화
41	서로를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학생 문화
51	미래교육을 탐구하는 교사 문화
66	의미있는 한 걸음을 함께 시작한 학부모 문화
	IV. 학습 환경
71	학교문화와 융합된 테크놀로지
79	학습공간과 생태환경
	V. 미래교육의 확산
85	연수기관으로서의 확산 노력
91	온오프라인을 통한 확산 노력
	VI. 나오기
95	미래학교 4년, 성과와 과제
106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VII. 부록
109	2018년 외부 방문단 지원 현황
112	보고서 작성, 숨은 이야기

I. 들어가는 이야기

■ 자발적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 구축

서울미래학교는 2014년에 지정된 후 미래학교 공간의 개념을 배우는 공간, 표현하는 공간, 즐기는 공간, 나누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공간별 특성을 갖춘 교실환경을 구축하였다. 미래학교의 공간은 단순히 하나의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공간, 가상학습 공간으로 소통과 공유, 호기심 자극 등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여러 용도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교과교실에서는 학생활동 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눔방과 정보방에서는 방과 후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 발표를 위하여 함께 토론한다. 스튜디오, 온돌방, 누리방, 소극장, 마루방, 중앙현관 등은 토론장으로, 명상 공간으로, 동아리 활동장소로, 야영 시 숙박 장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새롭게 지은 학교가 아니라 기존의 노후화된 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축하였다. 2016년 보고서에는 미래학교 공사의 여정과 성과가 사진과 함께 상세히 실려 있다. 2018년에도 전국 각지의 교육관계자들이 본교를 방문하여 학습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있다.

■ 연구하고 협력하는 교사문화가 만드는 수업과 평가

2018년은 서울미래학교의 교육과정이 안정화로 접어든 해이다. 미래교육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업을 분석하고 새로운 수업설계 원칙을 세우는 등 교사들은 수업모델별로 구체적인 활동들을 구상하였다. 블록타임 수업, 과정중심평가 확대, 융합수업, 문예체 활동, 학생 주도형 동아리 활동들이 교육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본교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과정중심평가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보고서에는 수업과 평가가 분리되지 않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평가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 지에 대한 교과별 수업 사례가 실려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정위원회와 교과협의회의 활동도 실려 있다. 현재의 선택과 실천적 행동이 미래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어떻게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지, 상급 학교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 것이 타당할 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수업과 평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교사들의 모습도 함께 실려 있다.

■ 미래를 만들어 가는 서울미래학교의 공유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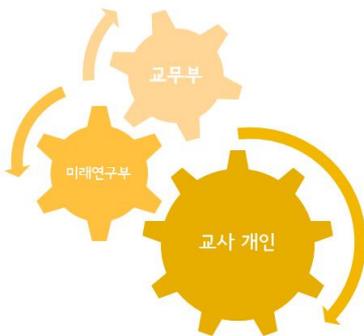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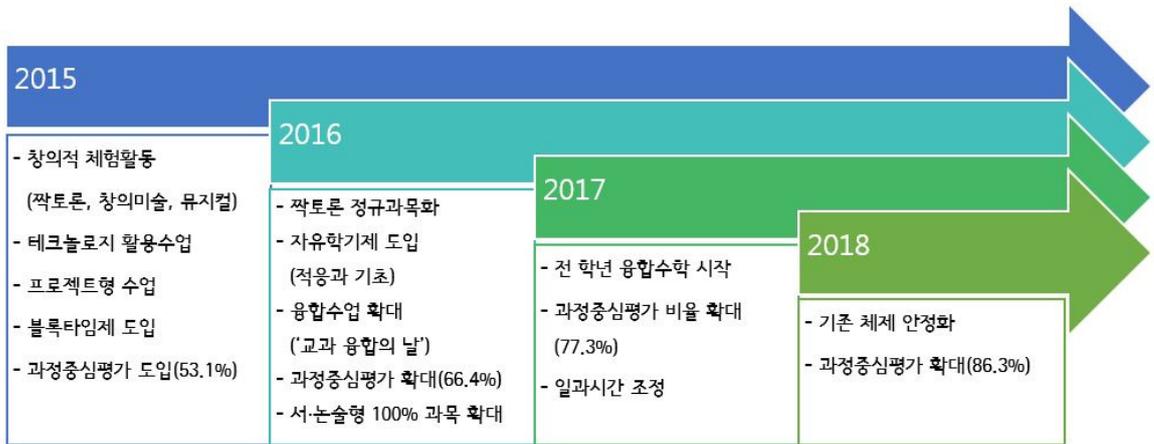
서울미래학교의 미션은 2030 공교육 학교 모델을 연구·실천하여 다른 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교육 제도 및 정책 개선의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2017년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창덕여중과 유사한 소규모 학교가 될 것이다. 2018년 보고서에는 일반학교에서도 실현 가능한 수업과 평가 방법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4년간 실시한 직무연수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 실려 있다. 한 발 앞 선 걸음으로 본교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문화 개선, 학습환경의 변화는 미래학교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 생각하며 다른 학교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교육을 준비할 때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II. 교육과정

미래학교의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의 변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본교가 서울미래학교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학습환경, 학교문화적 측면에서 기틀을 다져온 기간이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에서 출발한 변화들은 우리학교가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하는 원동력이었다. 때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나 기존의 업무 환경으로 인한 제약들이 있었지만, 능동적으로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개척해가는 교사들로 인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해마다 나타난 특징적인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다.



본교 교육과정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모든 준비가 끝난다.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3주체인 교무부, 미래연구부, 교사 개인은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 내용을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교무부는 학사일정, 일과시간 및 평가를, 미래연구부는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교사 개인은 교과 진도계획과 평가계획 및 행정업무 계획을 2월 말까지 완료한다. 이것이 본교의 교육과정이 3월 첫 날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이다.

2. 학교교육과정 수립

■ 학사일정 수립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약속이다. 약속이 그대로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즉 중간에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 창덕여중 제24대 교장 이화성 (2014.9 - 2018.8)

교육과정은 학생에게는 3년 교육의 설계도이고, 교사에게는 최소한 1년 교육에 대한 설계도이므로 치밀하고 정교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교사와 학생이 학교를 신뢰하는 데 기초가 된다. 갑작스러운 수업 변동 혹은 단축 수업은 매 차시 수업을 정교하게 조직해온 교사들의 수업 운영을 방해하고, 학생들에게는 불안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본교는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변동을 가급적 최소화 한다. 출장 혹은 연수의 목적이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현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교의 철학이다. 교사들은 이 점을 불편한 점으로 꼽으면서도 동시에 이 덕분에 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학교는 전 학년도 여름부터 신학년을 준비한다. 일찍 계획을 시작할수록, 수정 및 보완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확정하는 것에서 준비 작업이 시작된다.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상호 보완하면서 구성하는데, 2015년부터 우리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이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어지는 준비과정이다.

늦어도 10월부터는 다음 학년도 준비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해요. 수업 일수부터 맞추고, 급식일수, 자치활동, 창체, 블록타임, 요일별 수업시수까지 전부 다 맞춘 버전을 만들어요. 요일별로 수업 상 불이익이 가는 반이 없도록, 굉장히 많은 고민 과정을 거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 교무부장 김경화

2018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주요사항 체크리스트(2018.2.12. 버전)

1. 수업일수 190일(96+94) / 급식일 172일 / 실제수업시수 요일별 17주 / 성적확인기간 수업일 5일 / 수행평가마감 정기고사 1일전
2. 주요 행사 일정 : 지역사회 활용방안(예, 정동야행 연계,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수업시간, 동아리시간, 미션수행 및 학년별 권장리스트)

학기	1학기 (3.1 ~ 8.15)	2학기 (8.16~ 2019.2.8)
행사일	3.2(금) : 08:30-10:00 개학식(2), 14:00-15:30 입학식(2)(미) 5.4(금) : 학급별 체험학습(전일제)(미) 5.18(금) : 합창발표회(2) - 5,6교시 7.5(목) : 독서의날(4)(미) 7.9(월) : 1학년 책추천만중 검사, 2,3학년 소변검사 7.13(금) : 1학년 외부진로체험(6), 2,3학년 진로활동(3)(미) 7.16(월) : 학급정부회장 선거(6교시 자치시간) 7.18(수) : 교과융합의 날(1~5교시), 뮤지컬발표(6,7교시) 7.19(목) : 방학식(1), 청소 및 당일시간(1)(미) * 여름방학(7.20~8.15)	8.16(목) : 개학일,정상수업 9.28(금) : 체육의날(6) 전일제 11.19(금) : 1,2학년 전일제 학급별 체험학습일(미) 12.28(금) : 수선제(동아리)10:00-17:00 2019.1.4(금) : 종업식(2), 졸업식(2) (미) * 겨울방학 (2019.1.5. ~ 2.28)
재량휴업일	5.7(월) :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6.13(수) : 지방선거일	9.26(수) : 추석 대체공휴일 11.15(목) : 대입수학능력시험일 * 11.14(수) : 감독관 회의(정상수업/일과표 유지/5교시 보강 또는 요일변경) [3]중간평가 완료 9.19(수) 성적표 배부 10.5(금) [3]정기고사 11.7(수)-11.9(금), 성적표 배부 11.20(화) [1,2,3] 영어듣기평가 10.11(목) 오전 별도 시간표 운영 [1,2]중간평가 완료 10.16(화), 성적표 배부 10.26(금) [1,2]정기고사 12.13(목)-17(월), 1.3(목) 성적표 배부
중간평가 수행평가 정기고사(기말)	중간평가 완료 4.27(금) 성적표 배부 5.14(월) 영어듣기평가 6.5(화) 오전 별도 시간표 운영 정기고사 7.2(월)-4(수) 성적표 배부 7.19(목)	
교직원 관련	2017학년도(2018년 1-2월) 1.5.-6(1박) 교직원 워크숍 2.2(금) 교사전보/신입생등록/고입배정, 전출자/3년당입 오찬 2.8(목) 10:00 인사자문위원회 14:00 부장회의 2.9(금) 10:00 교직원 회의 14:00 교과협의회 16:00 새학년도 준비워크숍(1박) 2.23(금) 10:00 학생오리엔테이션 14:00 부별협의회 15:00 담임연수(신뢰서클) 2.26(월) 10:00 부장회의(연구계획서 검토 등) 2.27(화) 14:00 학업성적관리위원회(교과별 교수학습평가계획 검토)	2018학년도(2019년 1-2월) 2019.1.4.-5(1박) 교직원 워크숍 2.1(금) 교사전보/신입생등록/고입배정, 전출자/3년당입 오찬 2.7(목) 10:00 인사자문위원회 14:00 부장회의 2.8(금) 10:00 교직원 회의 14:00 교과협의회 16:00 새학년도 준비워크숍(1박) 2.22(금) 10:00 학생오리엔테이션 14:00 부별협의회 15:00 담임연수(신뢰서클) 2.25(월) 10:00 부장회의(연구계획서 검토 등) 2.26(화) 14:00 학업성적관리위원회(교과별 교수학습평가계획 검토)
학부모 관련	3.22(목) 수업공개(6,7교시), 상담 및 학교투어, 17:00-19:00 학부모총회	9.4(화) 수업공개(6,7교시), 상담(담임/보전일/상담일 등) 17:00 학교설명회

3. 급식비 지원 기준 172일(급식일수는 2018.1.1.-12.31 기준, 수업일수는 2018.3.1.-2019.2.28. 기준)

월	2018.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2018년)	19년 1월
수업일수	4	0	21	21	21	19	14	12	17	21	21	20	191	3
급식일수	0	0	20	21	20	19	8	12	17	21	18	16	172	0
미급식일수	4	0	1	0	1	0	6	0	0	0	3	4	19	3
미급식 사유	2018년1월 1,2-5(오전수업 및 졸업식) (1학기) 3,2(입학식), 5,4(학급별 체험학습), 7,2-4(정기고사), 7,5(독서의날,오전제), 7,13(진로활동,오전제), 7,19(방학식) (2학기) 11,7-11,9(정기고사), 12,13-17(정기고사), 12,31(단속수업), 2019.1.2.-4(오전수업)													

2018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주요 체크사항 체크리스트

■ 일과시간계획 수립

본교의 세부적인 시간 운영은 미래학교 1.0 기간 동안 매해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영 방법을 찾기 위해 조금씩 변화해왔다.

블록타임 도입 45분 수업 두 개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블록타임제는 90분 동안 프로젝트 수업, 사례 중심 수업, 토론과 실습,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블록타임으로 창의미술, 스포츠클럽, 뮤지컬수업을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는 블록타임으로 동아리활동, 짝토론, 정보수업을 운영한다. 2015년 도입 이후 블록타임 참여 교과목이 확대되면서 현재 2018학년도에는 1학년 국어, 사회, 과학, 도덕(1학기), 미술(2학기) 2학년 기술, 역사, 과학, 미술(1학기), 도덕(2학기), 3학년 국어, 사회, 과학, 가정 과목이 블록타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자치 월6교시(30분간), 블록 월~목

구분	월	화	수	목	금
조회(10)	08:30~08:40	08:30~08:40	08:30~08:40	08:30~08:40	08:30~08:40
1교시	08:45~09:30	08:45~09:30	08:45~09:30	08:45~09:30	08:45~09:30
2교시	09:40~10:25	09:30~10:15	09:40~10:25	09:30~10:15	09:40~10:25
3교시	10:25~11:10	10:25~11:10	10:25~11:10	10:25~11:10	10:35~11:20
4교시	11:20~12:05	11:20~12:05	11:20~12:05	11:20~12:05	11:30~12:15
점심시간(55)	12:05~13:00	12:05~13:00	12:05~13:00	12:05~13:00	12:15~13:10
5교시	13:00~13:45	13:00~13:45	13:00~13:45	13:00~13:45	13:10~13:55
6교시	13:55~14:25	13:55~14:40	13:55~14:40	13:55~14:40	13:55~14:40
		14:50~15:35	14:40~15:25	14:50~15:35	

2018학년도 일과시간표

는 시간을 확보했고, 학생들은 또래학습 등 개별 활동을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해졌다.

일과시간 조정 2016년도에는 아침조회를 마치는 시간과 1교시 시작시간이 모두 8:40분 이어서 학생들이 교과교실제로 이동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2017년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교시 시작을 08:45분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전 60분에서 5분 단축하여 55분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교과블록 시간도 2016년에는 월요일 오후에 있었으나, 6교시 자치활동을 피하여 월요일 오전으로 이동되었다. 이로 인해 월요일 일과시간이 14:25분에 종료되어 교사들은 열린 회의에 참여하거나 수업연구를 할 수 있는

■ 블록타임계획 수립

미래학교가 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블록타임으로 교과시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있다. 기존의 45분 수업을 2시간씩 붙여서 90분 형태의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2015년도부터 수요일 6,7교시 창의미술, 뮤지컬, 스포츠클럽활동을 블록타임으로 운영해왔다. 또, 짝토론, 정보 교과는 금요일 5,6교시를 블록타임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1학년 국어, 사회, 과학, 도덕, 2학년 기술, 역사, 과학, 미술, 3학년 국어, 사회, 과학, 가정 과목이 블록타임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블록타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블록타임 수업은 시간이 많아서 큰 활동을 할 때에도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서 수업시간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집중이 더 잘 된다’, ‘쉬는 시간이 없는 대신에 학교 일과가 10분 일찍 끝나서 좋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들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을 할 때, 90분이므로 사전에 이 소프트웨어를 조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뒤,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활용 문제로 인해서 수행에 방해 받는 경우가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실제 블록타임을 운영해보니,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여러 어려움을 표현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블록시간 수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높아서 피로하다.’, ‘블록시간이 긴만큼 블록시간 후 쉬는 시간도 충분히 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들은 실제 블록시간 운영상 문제점을 느끼기도 했다. 블록타임과 비블록타임 혼합으로 이루어진 수업의 경우 김동건 교사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며 느낀 어려움으로는 반별로 진도가 차이나는 것이예요. 블록타임과 비블록타임의 시간표가 반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반은 1차시(45분)-2차시(90분)-3차시(45분) 수업을 진행하고, 어떤 반은 1차시(45분)-2차시(45분)-3차시(90분)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표 설계를 할 때, 90분짜리 블록수업을 45분짜리 두 개로 쪼갤 수 있도록 염두해서 수업을 설계해야 하는 점이 어려운 점이예요.

그래서 제안점으로는, 블록 교과로 지정되는 교과는 모든 시간이 블록타임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안을 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시간표 작성이 힘들어서 반영은 안되었습니니다. 이것이 반영되려면 학생들에게 ‘공강’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간표 설계시 여유공간이 생기면서, 제안 드린 것처럼 블록타임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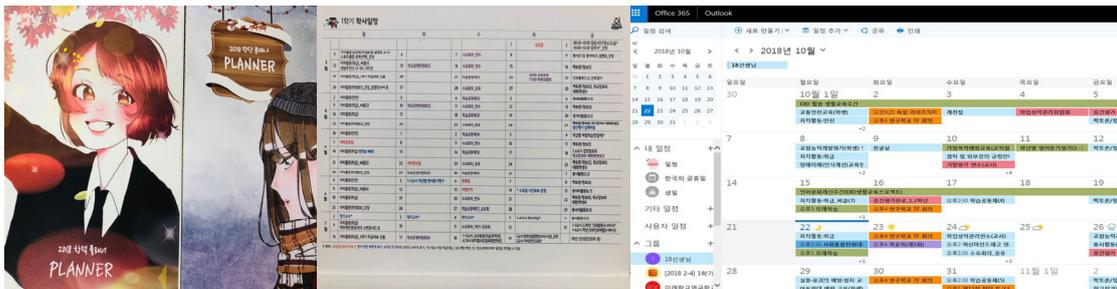
- 과학과 김동건 교사

■ 학교교육과정계획 공유

이렇게 고심 끝에 결정된 교육계획 및 학사일정은 학생들에게는 ‘창덕플래너’의 형태로, 교직원에게는 office365의 ‘공유 일정’의 형태로 주로 전달된다. ‘창덕플래너’는 2014년부터 도입된 작은 메모장 형태의 노트이다. 2015년도부터는 분기별 제작으로 전환되어 학생들이 보다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학사일정 외에는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도록 여유 있는 메모 공간을 제공했다. 플래너의 표지는 학생들의 그림으로 채워지는데, 각 분기별 다른 디자인을 선발하여 학생들 스스로 플래너에 더욱 애정을 갖도록 했다. 또한, 플래너 우수 작성자를 매 학기별로 선정하여 ‘플래너 상’을 수여한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일상에서 플래너를 활용하여 학사일정을 확인하고, 본인의 일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관리한다.

창덕플래너는 수행평가가 많은 창덕에서 이용하기 매우 좋아요. 평소에 다이어리를 쓰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창덕에 오고 나서 수행평가가 많아져 언제 제출해야하는지 혼잡해질 수 있는데, 플래너를 이용하여 해야 할 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아요. 또한,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적는 칸, 메모칸이 있고, 1년 동안의 학교 행사가 써져 있어서 활용하기 매우 편리해요.

- 2학년 학생 김○○



2018 창덕 플래너 표지

플래너에 수록된 학사일정

office 365 공유일정

교사들 역시 '창덕플래너'를 활용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office365의 공유일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모두가 가입되어 있는 office365 프로그램은 모두가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공유일정과 공유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필요한 일정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고, 교직원회의나 교육과정위원회 등 교내 회의의 문서 파일을 개별 교사가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필요한 경우, 일정을 등록하면서 원하는 사용자에게 일정 알림 메일을 전송할 수도 있다.

몇 년 전까지는 학사일정의 갑작스러운 변동이 저에게는 실시간으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내일 급식이 없는데 오늘 퇴근할 때 제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학사일정을 미리 준비하고, office365 일정 공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부터는 제가 직접 공유 일정에 접속해서 일정을 확인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어졌어요. 학교 내의 모든 선생님들이 일정 변동을 바로 해주시기 때문에 반영이 쉽습니다.

- 김주연 영양사

3. 학교교육계획 수립

2018년도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학교자체평가의 완전정착이 이루어진 해이다. 창덕여중은 예년과 달리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 학교교육계획 수립이 모두 완료되었다. 그 과정은 어떠했을까?

[2017년 교육활동 평가] 평가로부터 시작하다. 창덕여중은 2017년 12월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부터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최종평가회라는 이름으로 그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3부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와 교육활동 개선의견, 각 부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견 등을 공유하였다. 2부에서는 가장 약점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그리고 3부에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후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는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었다.

[2018년 교육활동 계획 수립] 교육계획과 학교평가를 일원화하다. 2017년 교육활동 평가결과, 교육청 업무실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2018년 교육활동 계획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담당 부서인 미래연구부에서는 2018년 1월,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2월 초, 각 부서 대표(부장)회의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였다. 2018년 교육계획서의 큰 특징은 학교교육계획과 학교평가시스템을 일원화 하는 것이었다. 교육계획서에 평가지표와 평가문항을 제시하고, 부별, 교과별 활동을 수시로 평가하자는 취지였다. 교육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료는 공유클라우드(O365)에서 참고하도록 하였고, 2월 중순까지 작성된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부별, 과별 교육활동 계획은 2월 중 2회 검토되었는데 활동 계획, 예산, 평가문항의 적절성이 주요 논의사항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 학년도 시작 전에 교육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3월부터 계획된 교육활동이 진행되었다.

붙임 5 2018학년도 교육계획서 작성 안내

○ 부서별 업무 개요(요약)

영역 (교육)	부서	주요 업무	시기	담당자	비고
1. 중점방향	교육정책	교육정책 수립	3월	이문상	1,000,000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업무	3월	이문상	4,000,000원
	교육연구	교육연구 업무	3월	이문상	2,000,000원
	교육협력	교육협력 업무	3월	이문상	4,000,000원
2. 평가	평가	평가 업무	3월	이문상	2,000,000원
	평가	평가 업무	3월	이문상	4,000,000원
	평가	평가 업무	3월	이문상	2,000,000원
	평가	평가 업무	3월	이문상	4,000,000원

- 중점방향
 - 부별 사업의 특징을 서술
 - 영역
 - 교육청 학교평가 세부영역
 - 과성(붙임 8참고)
 - 부서추진과제
 - 부별 사업을 요약 작성
 - 부서추진과제 중 불도제
 - 교육계획서에 포함되는 부별 사업 주요내용만 간단히 작성
 - 담당자: 실명기재
 - 학교운영비: 예산자료확인
 - 기타: 연구학교, 혁신지구, 중구정, 교육청 등을 기재

ART Project 대한 설명	2월 초	미리연구방향
연구과제 접수	1학기 223 / 2학기 810	미리연구방향
연구 계획 공표회	1학기 39 / 2학기 824	미리연구방향 및 업무담당공표
연구 결과 공표회	1학기 718 / 2학기 1219	미리연구방향 및 업무담당공표
연구 결과 정리 및 확산	1학기 7월 중 / 2학기 12월 중	미리연구방향

예산계획	세부영역	상환내역	평가용계좌	상환기간	구분	소요예산액	비고
3. 학교과 연구과제	학교과제 운영 차감1	교육운영비	600,000원<102계	6,000,000	연구학교운영비		
	학교과제 운영 차감2	업무운영비	100,000원<102계	1,000,000	연구학교운영비		
합계						6,000,000	

기타 자료 : 학교 연구실황 조성

- *1: 학교 교육활동 연구 활용을 목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 *2: 학교 교육활동의 연구 활용의 형식상 최초 학교에 개설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인가?

- 평가지표
 - 학교 자율운영체제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지표 설정(별도 자료 참고)
 - 학년말 설문 혹은 부별 자체 평가에 활용한 문항 작성
 - 문항은 간결, 명확하게 작성
- 핵심가치
 - 해당 과제와 관련 있는 학교 핵심가치 체크

2018년 2월 초, 각 부서대표에게 안내한 교육계획서 작성 방법

[2018년 교육활동 공유] 구성원이 함께 만든 교육계획을 함께 공유하다. 2월에 완료된 교육계획서는 전체 구성원들에게 모두 배부되었다. 교육계획서는 부별, 교과별 업무 기본계획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업무 추진 시 별도의 기안을 올릴 필요는 없다.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교육계획서를 근거로 제시하여 품의작성하면 된다. 교직원들에게는 업무경감 효과가 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는 각 수업의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부별 활동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2018년 교육활동 평가] 중간 평가 그리고... 2018년 7월에 교육활동을 중간 평가하였다. 교육계획 수립 시 작성한 평가지표와 평가문항에 따라 각 담당자가 실행내용을 평가하였다. 실행과정에서 평가문항이 수정된 경우, 그 내용과 수정사유를 설명하였다. 중간 평가에서는 부별 평가뿐만 아니라 개인별 자체평가도 하였다.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업과 학교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참여한 교사들은 부별 평가(1부)를 통해 업무의 중간 결과를 공유할 수 있었고, 개인별 평가(2부)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중간 평가 이후 수정된 계획과 평가문항을 바탕으로 2학기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에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2018년 7월: 1학기 공유회

[1부: 업무별 자체평가]

- 교육계획서 평가문항별 평가
- 하나의 사업에 평가문항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로 통합하여 성찰
- 자신과 타인에게 의미있는 내용
- 교육계획서 순서대로 진행

[2부: 개인별 자체평가]

- 한 학기에 대한 자기평가
- 두 가지 관점
 - 성과/부드/보람/의미...
 - 한계/문제/개선/보완...
- 추후 별도의 회의에서 반영여부 결정

1학기 중간 공유회(평가) 내용

영역	주요업무	평가항목	평가문항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연구	교육연구	교육연구	교육연구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협력	교육협력	교육협력	교육협력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정책	교육정책	교육정책	교육정책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연구	교육연구	교육연구	교육연구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협력	교육협력	교육협력	교육협력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정책	교육정책	교육정책	교육정책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연구	교육연구	교육연구	교육연구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협력	교육협력	교육협력	교육협력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교육지원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교육정책	교육정책	교육정책	교육정책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평가	교과	의견	비고	담당자(기타)

평가문항 수정 및 부별 평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학교 활동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그리고 밑그림을 구성원들이 공유한 상태에서 따로 또 같이 목적에 맞는 색칠을 하게 된다. 학교는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수시로 혹은 정기적으로 실행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이처럼 계획-실행-평가-환류의 시스템은 학교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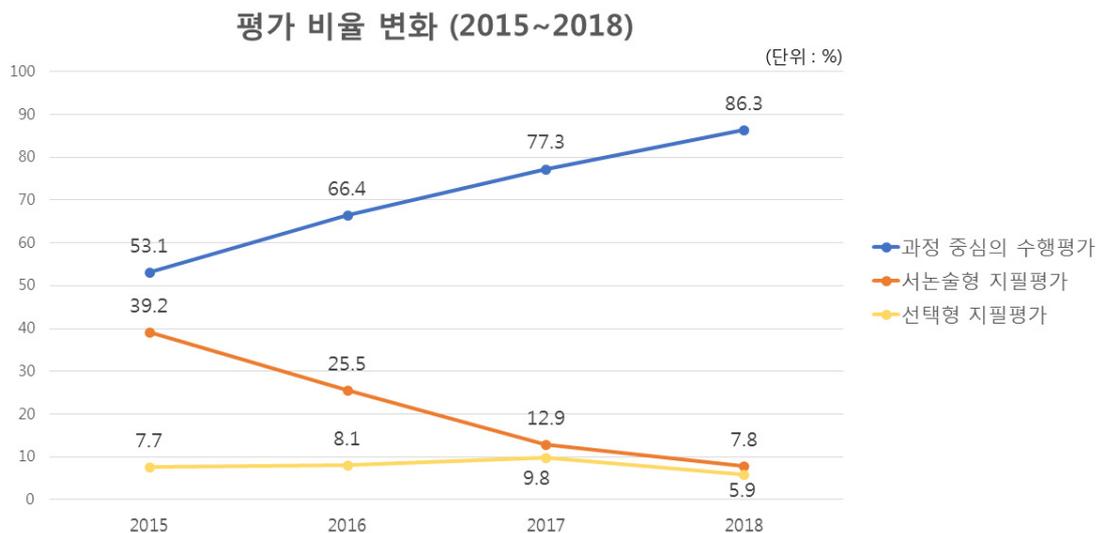
2018학년도 1학기 공유회

본교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구성원 참여에 의한 계획수립, 계획에 근거한 실행, 평가 문항에 따른 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의 반영 등은 학교자율 운영체제의 핵심이지만 각각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학교 계획과 학교 교육활동 계획을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밀도 있게 교육계획과 학교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창덕여중의 교육계획서가 곧 미래학교 연구계획서로 기능하게 된다면 학교의 혁신 방향과 내용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교과교육 준비

■ 교수학습 평가계획

미래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시작한 2015년도부터 중간고사를 과정중심평가(중간평가)로 대체했다. 과정중심평가는 기존의 중간고사 종료 시점까지 수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수업활동과정을 관찰하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하면서 변화된 결과를 평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활동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 과정을 수시로 평가하고 기록한다. 교과별로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술, 논술, 실험실습, 보고서,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의 평가방법 뿐 아니라, 수행평가 비율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2016년도에는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음악, 미술, 체육교과는 지필형 정기고사를 보지 않게 되었다. 2017, 2018학년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과정중심평가 비율과 평가 방법은 점점 더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1학년(1학기)

구분	중간평가		기말평가		구분	중간평가		기말평가	
	과정중심 (수행)평가	과정중심 (수행)평가	정기고사			과정중심 (수행)평가	과정중심 (수행)평가	정기고사	
			선택형 (단답형포함)	서·논술형				선택형 (단답형포함)	서·논술형
국어	50	50	-	-	미술	50	50	-	-
도덕	30	50	20	-	음악	40	60	-	-
사회	40	60	-	-	영어	40	40	15 (듣기평가10 포함)	5
수학	24	48	-	28					
과학	40	25	25	10	보건	pass/fail	pass/fail		
기술가정	50	50	-	-	진로와 직업	pass/fail	pass/fail		
체육	40	60	-	-	찍투론	pass/fail	pass/fail		

2학년(1학기)

구분	중간평가		기말평가		구분	중간평가		기말평가	
	과정중심 (수행)평가	과정중심 (수행)평가	정기고사			과정중심 (수행)평가	과정중심 (수행)평가	정기고사	
			선택형 (단답형포함)	서·논술형				선택형 (단답형포함)	서·논술형
국어	50	50	-	-	체육	40	60	-	-
도덕	30	50	20	-	미술	50	50	-	-
역사	30	50	-	20	음악	40	60	-	-
수학	29	31	16	24					
과학	40	25	25	10	영어	26	34	25 (듣기평가10포함)	15
기술가정	50	50	-	-	정보			-	-

3학년(1학기)

구분	중간평가		기말평가		구분	중간평가		기말평가	
	과정중심 (수행)평가	과정중심 (수행)평가	정기고사			과정중심 (수행)평가	과정중심 (수행)평가	정기고사	
			선택형 (단답형포함)	서·논술형				선택형 (단답형포함)	서·논술형
국어	30	25	35	10	체육	40	60	-	-
사회	40	40	-	20	미술	50	50	-	-
역사	30	50	-	20	음악	40	60	-	-
수학	27	48	5	20	영어	25	35	30 (듣기평가10 포함)	10
과학	40	25	25	10	진로와 직업	pass/fail	pass/fail		
기술가정	50	50	-	-	찍투론	pass/fail	pass/fail		

2018학년도 1학기 학년별 평가계획 요약

과정중심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교의 자체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교사 연수도 학기 초에 진행된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교사들은 교과별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약 한달 전, 진도계획표와 평가계획표를 office365에 있는 공유문서에 입력한다. 이렇게 공유된 교과별 수업계획은 각 교과 간 자유로운 융합수업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한다.

점검 사항	
1	교과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골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2	수업시간 내의 활동과정 또는 수업과 연계한 산출물 등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과제물 평가 지양, 부득이 과제형 평가 시 학생이 직접 수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에 학생들에게 즉시 성적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받도록 한다.
4	정기고사 전일까지 모든 교과 과정중심(수행)평가 마감한다. 단, 모둠별 평가는 정기고사 시작일 기준 1주일 전까지 마감한다.
5	교과목별 평가 반영 비율과 각 영역별 만점이 일치하는가
6	과정중심(수행)평가 단계가 성취기준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가 5단계이상, 5단계, 3단계, P(ass)/F(ail) 등) 학생간 성취수준의 세분화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성취기준일수록 단계를 세분화한다. (예)외국어 말하기는 5단계로, 모국어 말하기는 3단계로 설정 / 말하기는 3단계, 쓰기는 5단계로 / 제출 여부 등에서는 제출은 Pass, 미제출은 Fail로 한다.
7	과정중심(수행)평가에서 기본점수 최소화하였는가. 단계별 급간 점수차를 반영 비율에 따라 조정하였는가 기본점수는 최하점수 기준 20% 이내가 원칙이나 교과(군)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표절이외에 평가기준의 최하점수보다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8	교과별 과정중심(수행)평가 시기를 명시하였는가. 시기 분산을 위해 노력(조치)하였는가 활동이 일어나거나 종료되는 시점이 곧 평가 시기가 되어야 한다. 평가결과 입력 마감에 임박하여 인위적인(부과되는)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외부 체험활동(특히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이 수업 목표에 부합되는가. 평가계획에 반영되었는가 평가에 연계되는 (외부) 체험활동은 시기와 장소를 명시하고 외부 체험활동인 경우 학부모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10	교과 간 통합/연계/융합 활동이 있을 경우, 이를 평가계획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해당되는 교과 평가계획에 모두 명시되어야 한다. (예)국어과 평가계획에 '사회과 연계 활동(평가)'으로 명시

교수학습평가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과정중심평가와 NEIS 개선

과정중심평가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16년부터 본교는 기존 NEIS 시스템이 과정중심평가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다. 과정중심평가(중간평가)로 중간평가 성적을 산출하는 우리학교는 중간평가 성적 산출을 위해 NEIS를 마감해야 한다. 다른

과목	종	상업	데이터	컴포	보기	원하는 작업을 입력하세요.	EXCEL에서 보기
과학	8	5	빛과 파동	[9과06-02] 물체의 색이 빛의 성분색으로 합성됨을 관찰하고, 영상 장치에서 색이 합성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실험실습	중간평가	인턴쉽, 중독 예방교육
과학	9	1	빛과 파동	[9과06-03]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를 통해 나타나는 상을 관찰하여 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평면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실험실습	중간평가	양성평등교육
과학	9	2	빛과 파동	[9과06-03]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를 통해 나타나는 상을 관찰하여 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평면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실험실습	중간평가	인권연수
과학	9	3	빛과 파동	[9과06-03]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를 통해 나타나는 상을 관찰하여 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평면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실험실습	중간평가	성폭력예방교육
과학	9	4	빛과 파동	[9과06-03]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를 통해 나타나는 상을 관찰하여 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평면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실험실습	중간평가	학생도덕예방교육
과학	10	1	빛과 파동	[9과06-04] 파동의 종류를 횡파와 종파로 구분하고,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험실습	중간평가	개인정보보호교육
과학	10	2	여러 가지 힘	[9과02-02]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탄성을 이용하는 예를 조사하고, 그 예를 통하여 탄성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9과02-01]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실험실습, 조사	중간평가	아동학대 예방교육
과학	10	3	여러 가지 힘	[9과02-02]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탄성을 이용하는 예를 조사하고, 그 예를 통하여 탄성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9과02-01]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실험실습, 조사	기말평가	가정폭력예방
과학	10	4	여러 가지 힘	[9과02-03]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마찰력을 알고, 빗면 실험을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9과02-04]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알고, 풍수질거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실험실습	기말평가	고통안전 교육
과학	10	5	여러 가지 힘	[9과02-04]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에 부력이 작용함을 알고, 풍수질거울을 사용하여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실험실습	기말평가	성명존중(자살예방)교육
과학	11	1	여러 가지 힘	[9과04-01] 기계의 회선과 동력 현상을 관찰하여 일자가 운동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일자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실험실습	기말평가	졸업준비작업, 노년층교육
과학	11	2	여러 가지 힘	[9과04-02] 기계의 입력을 일자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9과04-03] 기계의 입력과 부력의 관계를 일자 모형으로 해석하고,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실험실습	기말평가	장애이해교육

1학년 2학기 과학과 진도계획표(공유문서)

학교의 중간고사 성적표가 발송될 때, 과정중심평가인 중간평가 역시 성적을 산출하여 성적표를 발송한다. 기말고사 결시자가 발생한 경우 중간평가 점수를 근거로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후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NEIS 마감을 다시 풀고 기말평가에 해당하는 수행평가를 입력해야만 했었다. 또한, 학기 도중에 전학 오는 학생의 경우 기존 학교에서 수행평가 성적 입력이 기말평가 시기까지 미뤄지는 경우 학생의 점수들이 넘어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과정중심평가 확대에 따른 개선안(서울미래교육 장덕여중)

- 취지
 - 과정중심평가 확대 정책에 따라 수행평가의 과정중심평가적 특성이 살아나고, 수업과 평가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운영과 나이스시스템을 정책 취지에 맞게 개선하여야 함
- 운영 및 나이스시스템 개선사항
 - 수행평가도 (지필고사와 동일하게) 중간고사로 지정·최종 마감 가능해야 함
 - 수행평가 영역별 만점을 학기말 실제 반영 비율과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추진 경과
 - 교육부 권호택 교육연구관, KERIS 최윤규 연구사, 서울시교육청 정보담당관 총세일 주무관, 중등교육과 이원식 장학관과 장덕여중 업무관계자 회의(6.2(금) 14:00)

문제점	요구사항	검토의견
과정중심평가 확대에 따라 수행평가 영역이 세분화되고 그 비중이 매우 다양해짐. 이로 인해 ①100%를 만들기 위한 반영비율로 환산 시 오차 발생 ②학생 점수를 반영 비율대로 환산 시 또 오차 발생 ③학기말에 반영 비율 수정 시 오차 발생(학생 점수도 이에 따라 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	영역 반영을 해당 영역 반영 비율과 동일하게 선택 가능	반영에 의해 반영비율(100%) 변경불가 그러나 성적통지표에 원점수만 기재되도록 확인해보고(올해만으로는 불가)
① 기말고사의 수행평가 성적일괄표가 분리되지 않음 ② 학기말평가 반영 시 중간평가의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을 다시 환산하여 입력(비율 변경 시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 소지) ③ 수행평가의 시기가 학기말에 집중 현상 발생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수행평가를 독립적으로 산입할 수 있어야함	반영 상 원칙적으로 중간평가 성적산출 불가 수행평가 분리 가능, 단 교사들이 반대하고 업무중가 우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더욱 원활한 성적업무 환경을 위해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기존 NEIS 시스템을 개선하여 과정중심평가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교장, 교감, 평가담당교사, 교육부 담당자, 교육청 평가 담당자, NEIS 담당자, KERIS 담당자와 함께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했다. 기존 지침에는 모든 시험을 가급적 100점으로 맞춰서 처리하라는 항목이 있었다.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파악을 하면 고등학교에서 이는 차별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교의 수행평가 영역들은 세분화되어

과정중심평가 확대에 따른 나이스 시스템 개선 건의

[서울미래교육 창덕여중, 2017.4.25]

□ 문제점

- 과정중심평가 확대에 따라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나이스 시스템에서 수행평가는 학기말 성적산출에 적외되어 있음. (지필평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분리 마감 가능)

교육과정정책과 답변(17.4.25)에 대한 학교측 검토의견

- ▶ 2015학년도부터 중간 지필고사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중간고사 성적통지표 산출하고 있음. 수행평가(기말고사) 입력 시 중간고사 성적통지표를 위해 일단 미감행던 수행평가(중간고사)를 취소해야 함.
 - 이 때 오류로 기존 성적이 수정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될 우려가 상존함(개선됨)
-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수행평가를 독립적으로 산입할 수 있어야. 전임생의 이전학교 수행평가 성적이 나이스시스템으로 전입학교에 입력 가능함. 현재 나이스 기록이 아닌 수기 문서만 전달되고 있음.
- ▶ 중간고사에도 수행평가를 분리 산입할 수 있게 되면, 수행평가의 학기말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임
- 과정중심평가 확대에 따라 수행평가 영역이 세분화되고 그 비중이 매우 다양해짐. 세분화된 비중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가 해당 영역의 비중이 왜곡될 수 있음
 - 20점 만점 수행평가 영역에서 15점을 받은 경우, 100점으로 환산하면 75점으로 성적이 통지됨. 중간에 통지 받은 성적과 최종 성적이 달라지게 되어, 학부모가 평가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움
 - 수행평가 영역이 여러 개이고 각각 반영비율이 다르므로 각각 100점으로 환산하지 않고 '영역별 만점과 학생이 취득한 원점수'로 통지하는 것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나이스 시스템 개선 건의

◀ 나이스 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의

있어서 3점, 4점인 항목들도 있다. 그것을 100점으로 환산하려면 점수가 소수점으로 끝난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그대로 영역 만점(원점수)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한 학교만을 위해서 NEIS 시스템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돌아왔다.

나이스 성적 관련 기능개선 사항 안내

<KERIS, '18.3.30.(금)>

□ 추진 배경

- 수준별 이동수업(N+1) 운영에 따른 나이스 권한 부여 기능 개선 필요
- 수행평가 성적 확인용 자료를 개인별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과정중심 평가 지원을 위한 학기중 성적 통지표 개선 필요

□ 기능개선 사항별임 참조

- (수준별 이동수업 성적관리 개선) 지필/수행평가 관리 및 조회에서 편성 반에 따라 수강 학생 자료 조회되도록 기능 개선
- (수행평가 조회 개선) 성적 확인을 위해 배포하는 수행평가 자료를 개인별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일괄표 조회 시 한 페이지 당 학생 1명씩 출력되도록 개선
 - * 적용예: 성적-수행평가조회-교과별일괄표조회(강의실별), 학급별일괄표조회(전체영역)
- (성적통지표 양식 개선) 학기 중 성적산출 과목에 대해 과목 만점 및 받은 점수만 표기 가능
 - 지필/수행의 반영비율 합 100% 이하로 지정하여 성적 산출
 - * 학기말 성적의 경우 기존대로 유지

나이스 성적 관련 기능 개선

그 이후로 한두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한 시도를 했다. 결국 2018년 2학기, 영역별 만점을 원점수로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간평가 이후 학생의 수행평가 성적을 개인별로 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과정중심평가가 확대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변화이다. 2017년에 개선을 시도하고, 2018년에 결론이 난 것이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하고 멈춰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성적관리규정을 조금 더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일반적인 학교들은 교육청의 지침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학교의 맥락에 맞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한다. 그런데 본교의 규정은 교육청 단위에서 내려오는 평가 관련 지침과 다른 점이 많다. 과정중심평가의 비율이 높다보니 교육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규정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새로 규정화해서 반영해야 했다. 수행평가 인정점이 대표적인 예로, 각 수행평가 영역별로 인정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 교과협의회

수업에 관한 교사 연수 및 협의회는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주제중심 통합학습의 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 미래학교 준비를 위한 수업 방법 개선 교과별 협의회, 주제중심 통합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협의회, 블록타임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협의회, 블록타임제 수업 연수 등이 실시되었다. 2016년도 2월에는 신학기를 준비하며 교과별 미션을 각 교과별로 정하여 수행하기도 했다. 2017년도 교과협의회에서는 교과서 선정시 교과서 종류 뿐 아니라, 교과서의 수량 및 활용방법까지 고려하여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체육, 음악, 미술, 보건, 진로와 직업은 한 학급 분량(수업용 20개+여분용 5개)을 구입하여 교과교실에 보관하며 수업하고 필요시 대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교과 협의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교과협의회의 역할인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협의, 교과서 재선정 등의 일반적인 업무에 더하여 '교과 학습공동체'의 기능을 한다. 2018년도에는 일상적인 교과 협의회가 더욱 확대되어, 자발적인 교과 내, 교과 간 수업 교류 및 아이디어 회의가 더욱 자주 일어나고 있다.

■ 교육과정위원회

2018년에는 교육과정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었다. 미래학교는 결국 교육과정으로 완성되므로 구성원들도 교육과정위원회의 중요성을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제2차 교육과정위원회(2018.05.09.)에서는 '과정중심평가가 학생의 성장을 촉진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과정중심평가의 도입 취지를 수업과 평가의 연계 강화로 해석하였다.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점수화하려는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교과와 특성과 성취기준 등을 고려하여 교사

스스로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을 찾으려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협의하였다. 단순한 점수 통보보다 학생의 성장을 촉진하는 피드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기록의 방법들도 공유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위원회(2018.07.16.)에서는 ‘더 나은 교과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다음 학년도 평가계획을 전년도 2학기 때부터 전면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하였고, 각 교과별 평가계획을 함께 검토하며 다른 교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성취기준에 관한 관점은 교사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할 목록으로 해석하여 시수 조정, 시기 조정 등의 소극적 재구성만 가능하다는 입장과 교과 목표의 하위요소로 해석하여 학습요소 변형 등의 적극적 재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제5차 교육과정위원회(2018.08.16.)에서는 ‘1학기 평가 결과를 교과별로 교환하여 성찰한 후 느낀 점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일부 교사들은 등급별 분포 또는 변별의 중요성을 주장하였고, 일부 교사들은 변별과 평가 민원보다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학생들의 학습부담 감축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미래학교의 수업과 평가

2015년 첫 번째 연구학교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미래학교의 수업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수업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바탕에는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전제가 자리 잡고 있다. 즉 학교 변화의 핵심은 수업의 변화이며, 수업의 변화가 학교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 2015 서울미래학교 연구학교 보고서 13쪽

지난 3년 동안 창덕여중은 많은 변화를 이야기했다. 수많은 변화 가운데에서도 수업의 변화가 학교의 변화를 주도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렇다면 2018년 현재 창덕여중의 수업과 평가는 어떻게 변했을까? 다른 학교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 쉽게 정리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4년차를 맞이한 지금 한 번쯤은 정리가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1. 2015~2017 미래학교 수업과 평가

■ 미래학교 수업

미래학교 수업 모델



창덕여중의 시작에는 미래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깊은 고민이 함께 했다. 2015년에는 전년도 수업 형태 분석을 통해 미래학교에 맞는 새로운 수업 패러다임 및 수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개로 정했다. 또한 각 수업모델마다 구체적인 활동들을 구상하였다.

2016년에는 이 다섯 가지의 수업모델이 좀 더 많은 영역에서 계획되었다. 배움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짝토론의 이해와 실천을 교양과목으로 신설하였으며, 언제나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위해 항상 배움에 접근할 수 있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과목별로 구축하고 있다.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위해 독도체험관, 역사박물관등을 방문하였고 학교 곳곳에 증강현실 학습 자료를 제작하였다.

미래학교 수업모델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화상통화를 하였고 다양한 전문가와 코칭 수업을 진행했다. 또래 학습 프로그램에서는 교사 없이 학생끼리 학습프로그램을 진행 했다. 삶을 중심에 둔 융합수업을 위해 주제중심 통합학습과 다양한 교과 융합 수업을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융합교육을 위한 업무담당자가 생겼다. 교과 간 융합을 위한 수업도 시도되었다. 융합수학은 정규수업시간에 수학개념을 통해 다른 교과의 현상들을 해석하려는 수업으로 1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학습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선생님이 많아졌으며 덕수궁, 서울도서관, 서울시 의회 등 학교이외의 공간에서도 많은 수업이 이루어졌다.

■ 미래학교 평가

2015년 교육과정위원회와 부장회의, 교과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업 중 학생의 학습활동과 결과를 수시로 평가하는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필평가만으로는 학생의 핵심역량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과정 중심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 새로운 철학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 수업과는 달리 평가는 기존 형식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었다. 매 학기를 마치고 나서는 지필평가와 과정중심평가의 등급을 비교하며 평가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 변별도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교과 협의록을 작성하였다.

2. 2학년 1학기말 성적관련 성찰 (담당교사 :)

1) 각 평가영역별 A~E분포의 타당성 분석

- 가. 2학년 영어 1학기말 평가 결과는 A>E 의 비율을 지키며, 학급간 큰 편차 없이 진행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나. 언어의 유창성(fluency)을 강조하는 말하기, 쓰기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의 평가는 A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함. 위 평가들은 학생이 개별 혹은 그룹 내에서 단원별 성취 기준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어떻게 해당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지를 꾸준히 관찰과 기록을 통해 평가함. 학생 스스로의 개별 평가 및 동료 평가를 상시로 진행하고 기록하였음. 각 평가 전/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얼마나 해당 영역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본인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다. 언어의 정확성(accuracy)을 강조하는 형성평가1, 형성평가2, 듣기평가는 A의 비율이 약 50%를 차지함. 형성평가는 어법적 지식을 측정하고 수업 내용을 점검하는 역할로서, 어법에 맞는 문장을 서술하거나, 일부 문장이 왜 비문법적인지를 설명하는 형태로 출제함. 형성평가의 경우,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취지에 맞추어, 학생의 지식 구성 과정을 일관성 있게 평가하되, 학생이 어법적 지식을 구성해가는 과정을 중시하기 위하여, 핵심 내용이 정확하게 기술된 경우, 부분점수를 인정함. 또한, 형성평가 결과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의 자기성찰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1학기 평가에 대한 교과협의록

기고사를 논술로 대체했다. 또한 과정중심평가에 대해 연구하는 학습공동체가 생겼다. 막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과정중심평가에 대해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디지털 바인더가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두랑, Teams, Onenote Class 등을 활용하는 수업이 늘어났으며 이런 흐름은 2018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16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산출이 가능해졌다. 체육, 음악 등 예체능교과는 모두 100% 수행평가로 평가가 실시하게 되었다. 과학과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가 생겼으며 이어서 수학과와 사회과에서도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7년에는 지필평가가 없는 과목이 더 늘어났다. 기술·가정과에서도 수행평가 100%로 성적을 산출하였고 사회과는 정

2. 2018년 미래학교 수업과 평가

■ 과정중심평가, 수업과 평가의 일체화

2018년, 수업의 가장 큰 흐름은 과정중심평가이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를 평가하는 비중은 점점 줄고 있다. 본교에서 수업과 평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¹⁾

과정중심평가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모호한 개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2016년 평가계획에서는 중간평가를 과정중심평가로 표현하여 혼란을 겪기도 했다.

교과	중간평가(과정중심평가)	수행평가	정기고사	
			서는 술형	선다 형
도덕	포트폴리오A(성찰일기 및 배움참여관찰)15% 개인평가(통일 미니북)15%	포트폴리오B(성찰일기 및 배움참여관찰)15% 모둠 평가(인권 보고서)15%	10%	30%

2016년도 평가 반영비율 (2016년 연구보고서)

1) 그래서 금년 보고서부터는 수업과 평가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서술하기로 하였다.

평가비율	중간평가					기말평가							
	과정중심(수행)평가(27%)					과정중심(수행)평가(48%)						정기고사(25%)	
	기초 평가1	말하기 평가1	포트 폴리오1	연산개 념평가1	융합역 량평가1	기초 평가2	말하기 평가2	포트 폴리오2	연산개 념평가2	융합역 량평가2	협력 평가	서논술형	단답형
만점	6	5	8	4	4	12	10	16	4	4	2	20	5

2018년 평가반영비율 (2018년 교육계획서 수학 3학년 1학기)

2018년부터는 중간평가를 과정중심평가로 사용하는 대신 정기고사 이외의 모든 평가를 과정중심(수행)평가로 바로잡았다.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을 의미한다.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이해는 수업과 평가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단순히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목이 늘어난 것을 떠나서 학생들의 학습상황과 사고를 깊이 알아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평가는 수업과 함께 이루어지며 평가만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 수업 문화가 된 미래교육

안영석 교사는 협업을 요하는 과제를 자주 내는 편이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기대보다 협업능력이 뛰어남을 느낀다. 그 요인을 학교의 수업문화에서 찾는다. 대부분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협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과제가 학생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이다.

많은 수업에서 학생들은 함께 학습한다. 동료에게 그리고 학습의 대상에게 공감해보면서 배운다. 의견을 나누고 서로 소통한다.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도전한다. 배운 지식을 세상에 적용해보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디바이스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낮은 교과외 벽을 넘어 여러 과목들을 융합한다. 이 모든 일들은 특별하지 않다. 지난 3년이 만들어온 수업 문화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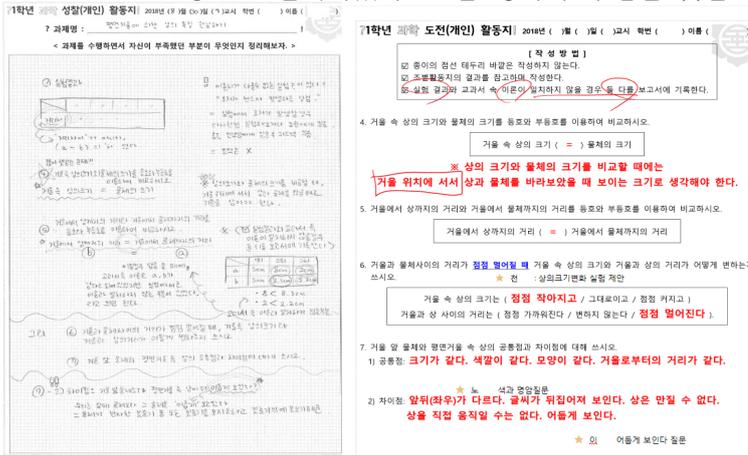
3. 미래학교 수업의 실제

■ 깊은 사고와 성찰을 위한 과학 수업

수업설계 과학 김동건 교사는 현상을 관찰하고 깊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들기 위한 수업과 평가를 목표로 한다. 먼저 이론을 학습하고 실험을 해본 후 실험과정과 학습내용에 대해 성찰한다. 실험과정에서는 협력과제와 도전과제가 주어지는데 협력과제는 실험을 통해 자료를 얻고 정리하는 과정과 깊게 토의해야 하는 문제로 구성되어있고 도전과제는 학습된 개념을 이용하여 개인별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되어있다. 성찰학습지에서는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자신이 오답을 작성하게 된 이유와 이해한 내용을 적어본다. 스스로의 개념을 반성하면서 실험과정에서 생긴 오류와 잘못 이해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수업과 평가 이전까지 수업에서 수행과제에 대해 피드백을 해왔지만, 학생들이 피드백을 잘 이해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은 없다는 점을 고민했다. 교사의 피드백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학생들은 피드백을 결과로 받아들이지 학습을 위한 조언과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2018년 1학기부터는 성찰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이해 단계를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수행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확인한다. 성찰활동지는 수업과정임과 동시에 평가이기도 하다. 정기고사의 지필평가 문항은 성찰활동지를 통해 학습된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모든 평가와 수업은 맞물려있으며 이전 단계는 다음단계를 학습하는 토

대가 되고 다음 단계는 이전단계의 목적이 된다.



성찰학습지를 통해 자신의 수행을 피드백 받는다.

향후 과제 태도에 대한 평가를 향후 과제로 생각했다. 과거에는 시간이 종료되면 시험지를 걷어갔지만 탐구중심의 학습지를 작성할 때는 쉬는 시간까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학생들이 생겼다. 과제에 몰입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기존의 평가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똑같은 시간을 부여했지만, 탐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몰입하는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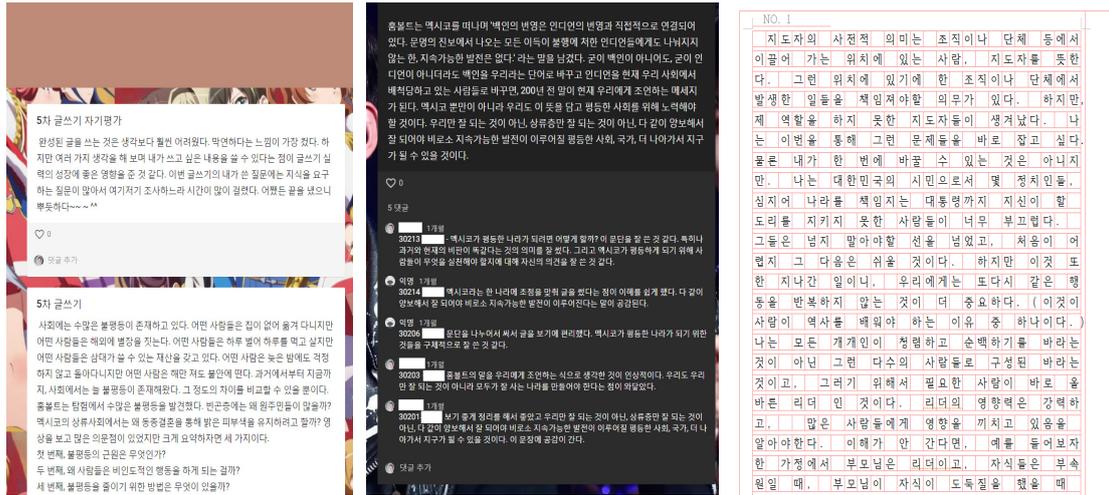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다. 비록 정답이 아니라도 그 과정에서 보인 열정과 도전정신을 높게 평가해줄 수단이 무엇인지는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과제이다.

■ 보편적 가치를 배우는 역사 수업

수업설계 역사 황진수 교사는 역사수업을 통해 통찰력 있는 학생을 길러내고자 한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와 연결 지어 생각해보는 능력을 길러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이를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로움과 평등함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접해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해보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수업과 평가 평가는 시대극과 글쓰기, 말하기로 구성되어있다. 시대극은 학생들이 당시 상황을 상상해서 영상 제작이나 대본 또는 소설 쓰기 등 자유롭게 방식을 정해 결과물을 제작하는 활동이다.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상상하고 창조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만들어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석기시대를 상상하여 수렵과 채집을 하는 모습, 움막을 짓는 모습 등을 학생들이 직접 연기하여 촬영하는 것이다. 신분제도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다루기도 하며 소작농의 비애를 그린 소설도 있다. 글쓰기는 인류가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과제이다. 영상을 시청한 후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며, 동료의 의견을 읽고 댓글로 피드백을 한다. 말하기 평가는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이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평가이다. 학생의 반응에 대해 교사가 즉각 반응할 수 있고 깊은 생각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과제 정기고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 역사를 중요한 과목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도 아쉬워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과 평가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통해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학생 스스로에게 동기가 되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도전적인 수업방식이 모두에게 공감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하고 다른 교사, 학생들과 수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나누어 점점 정교화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역사 글쓰기와 학생피드백, 역사 논술

■ 소통하고 협력하는 수학 수업

수업설계 수학을 가르치는 한혜정 교사는 수학적 사고력과 함께 인간적인 학생들을 성장시키고자 하신다. 짝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 하면서 팀워크를 기를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를 설계한다. 짝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짝과 함께 검사를 받도록 하여 협력을 강요(?)하기도 한다. 중단원별로 짝을 교체하여 학습의 많은 학생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수업과 평가 일회성의 부담스러운 평가보다는 매시간 작은 개념들을 잘 이해했는지 체크하는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평가를 구성한다. 성실함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학적 개념을 언어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기대한다. 수학 개념들은 대부분 추상화된 개념이라 습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말하기 평가를 통해 자신이 생각한 것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 있게 발표하는 능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수업을 통해 수학적 개념과 동시에 삶에서 필요한 자신감과 협업능력이 성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향후과제 모든 학생들이 알기 위해 노력하고 동료들 도우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체계에 적응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 지금의 수학수업을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다. 남은 과제는 그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가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빈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수학 클리닉같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 대화를 위한 영어 수업

수업 설계 ‘다른 나라의 인사말’이라는 주제를 확장한 프로젝트를 10월 동안 진행했다. 10월 초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의 인사말과 감사 표현을 직접 외국인들을 만나서 배우고, 우리나라의 인사말과 감사 표현 등을 외국인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수업을 했다.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예시를 확장하여 실제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 말하기를 총 3시간에 걸쳐서 인터뷰했고, 본인의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뷰 영상을 성공적으로 제작했다. 평소 영어에 자신감 없는 학생들도 성실히 참여하도록 정교하게 그룹 내 역할 분담을 했고, 직접 교과서를 활용하여 대본을 작성하고, 반복 리허설과 피드백을 통해 연습하도록 한 성과였다. 학생들은 인터뷰 후 자신들의 영상을 공유하고, 직접 받아온 다양한 외국인들의 자필 글씨로 교실 내부 벽을 꾸몄다.

수업과 평가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요소 또한 필수적이라 생각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감만 키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필요한 지식 및 표현을 찾고, 끊임없는 리허설을 통해 기초적인 내용들은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매 시간이 끝날 때에는 Padlet에 Learning logs를 기록하도록 하여 프로젝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고, 리허설 피드백 역시 개인별 padlet에 교사가 직접 글을 실시간으로 남겨주었다. 또한, 프로젝트 사후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면에서 성장했다고 느끼는지 기록하도록 했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리허설과 인터뷰 회차가 거듭될수록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어 학습 동기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향후 과제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수업들을 직접 해내고 있는 지금은 스스로의 수업에서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설계와 기록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늘었지만 그만큼 수업에서는 학생들을 관찰하는 시간이 생겼다. 학생들이 과제에 빠져 무아지경이 된 모습과 예상보다 뛰어난 것들을 해내는 학생들의 역량에 매번 감탄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금과 같은 수업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스스로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들을 교사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수업을 더 잘하기 위한 자기개발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젠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지 모르는 순간들을 위해서 계속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어 과목은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미래기술에 따라 달라질 영어교육의 위상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다음 학기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여유 있게 학기를 운영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다.

2018년 10월 10일	2018년 10월 11일	2018년 10월 12일	2018년 10월 13일
오늘은 영어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과 인사말을 배우고 가르쳐 주는 과정이 정말 좋았다.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예시를 확장하여 실제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 말하기를 총 3시간에 걸쳐서 인터뷰했고, 본인의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뷰 영상을 성공적으로 제작했다.	오늘은 영어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과 인사말을 배우고 가르쳐 주는 과정이 정말 좋았다.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예시를 확장하여 실제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 말하기를 총 3시간에 걸쳐서 인터뷰했고, 본인의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뷰 영상을 성공적으로 제작했다.	오늘은 영어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과 인사말을 배우고 가르쳐 주는 과정이 정말 좋았다.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예시를 확장하여 실제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 말하기를 총 3시간에 걸쳐서 인터뷰했고, 본인의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뷰 영상을 성공적으로 제작했다.	오늘은 영어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과 인사말을 배우고 가르쳐 주는 과정이 정말 좋았다.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예시를 확장하여 실제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 말하기를 총 3시간에 걸쳐서 인터뷰했고, 본인의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뷰 영상을 성공적으로 제작했다.

Learning Logs 및 리허설
피드백(Padlet)



외국인 인터뷰



프로젝트 그룹별
대본작성(Teams)

■ 성숙한 시민을 기르는 사회 수업

수업설계 사회를 가르치는 이은상교사는 사회교과를 통해 성숙한 시민을 성장시키려고 한다.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성, 정보 활용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고 이를 갖추어 가는 과정이 바로 사회수업이다. 성숙한 시민이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키워가는 것이다.

수업과 평가 수업과 평가는 이해활동, 토론활동, 적용활동, 주제탐구활동, 프로젝트, 종합논술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활동들은 연계성을 가지고 점차 발전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해활동에서는 앞으로 학습할 지식들에 대해 교과서, 유튜브, 읽기자료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서술하는 활동이다. 토론활동은 주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토론해보는 활동이다. 적용활동은 학습한 내용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며 주제탐구활동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좀 더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활동이다. 프로젝트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직접 참여해보는 활동이고 종합논술은 배운 개념을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정리하는 활동이다. 이 모든 활동이 수업임과 동시에 평가의 대상이기도 하다. 정기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향후과제 현재 학생들은 각각의 활동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다만,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삶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이해와 적용, 토론, 프로젝트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밀도있게 연결되도록 수업과 평가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 즐겁게 도전하는 체육 수업

수업설계 양선화 교사는 여학생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여학생들은 체육시간에 도전하기를 꺼려하고 도전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남학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성적보다는 즐겁게 할 수 있는 도전으로 수업을 구성하기로 했다. 실패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이 학생들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체육시간에 성공 경험을 통해 흥미와 자신감을 주려고 한다. 관리되지 않은 실패를 줄여서 모든 학생들이 성공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수업과 평가 평가는 종목별로 2~3개로 이루어진다. 1학기는 4종목을 했고 2학기는 학년마다 5~6개의 종목을 학습한다. 종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활동은 팀 활동이다. 운동에는 항상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활동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 혼자서 운동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경기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팀 활동도 평가에 포함된다. 학급에서 팀을 짜서 리그전을 하고 경기를 평가에 반영한다. 개인의 기능 이외에 경기능력을 파악함과 동시에 경기를 개인평가와 관련 없이 노는 시간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향후과제 여러 종목을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 한 종목을 깊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경기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또한 좀 더 높은 수준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즐거운 도전은 성공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지문을 경험하는 영어 수업

수업설계 김준구 교사는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지문이 나오면 ‘읽기 후 단계’에서 텍스트 내용을 학생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Three Days on Ulleungdo’ 단원의 ‘읽기 후 단계’에서 텍스트로 부터 파악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가상의 2박 3일 수학여행을 실제와 같이 기획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교과서 지문은 학생들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는 영어교육의 모든 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 측면이기도 하다. 교과서의 지문이 개인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계되면, 학생들은 해당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다.

수업과 평가 영어시간에 학생들은 다양한 영어교육적 경험을 하게 된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과정 중심 쓰기(번역기, 문법교정 프로그램, 가독성 지수 파악 도구), 이미지를 활용한 어휘 학습, 협력에 기반한 다양한 패턴의 읽기 과업, 영어 몰입, 귀납적 문법 학습, 영어 UCC제작, 프리젠테이션 등이 그 예시이다.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많은 과업들은 동료평가와 교사평가를 통해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환류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학생들의 역량과 특성은 질적 평가의 객관적 근거가 된다.

향후과제 올해는 한 단원 정도를 영어로만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 몰입형 영어 수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학생들의 영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문법과 읽기 지문에 대한 명시적 지도를 원하는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수업에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읽기 후 단계’에서 학생들이 울릉도 수학여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학 수업

수업설계 김유정 교사는 수학시간을 통해 주도적인 탐구와 질문을 요구한다. 교사로부터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각해보고 의문을 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한 학생에게 칭찬을 하기 보다는 모두에게 질문을 갖도록 요구한다. 질문을 갖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을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 대신 학습해야 할 것들은 명확하게 제시하는 편이다. 한 학기 동안 학습해야 할 내용을 수준별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며 시험문제도 공개한다. 변별보다는 학습과 성취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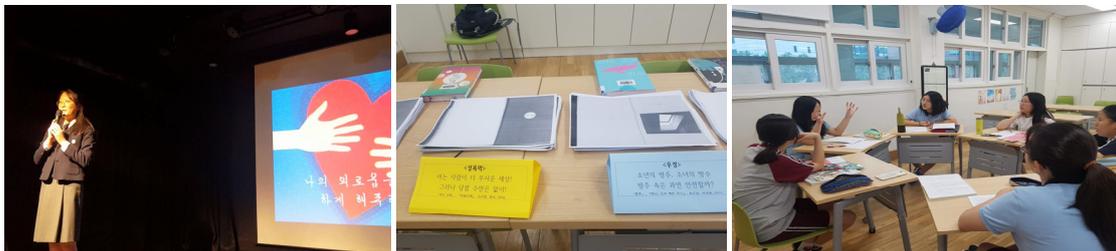
수업과 평가 수학수업의 시작과 끝은 나공(나만의 수학공책)이다. 나공은 그날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포트폴리오 과제이다. 매시간 나공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교사는 확인하고 피드백을 한다. 나공에 적힌 질문들은 동료들에게 과제가 되기도 하며 수

을 채우는 방법과 과정'을 탐색하게끔 지도한다. 국어는 그 자체로 중요한 학문이지만 가장 긴요한 학습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수업과 평가 윤수란 교사는 새내기 교사 시절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 수업을 진행했지만 평가에 있어서 지필의 한계를 넘지 못한 기억이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사고의 확장을 단답형 문항을 통해 암기식으로 평가할 수 없었기에 교과서 밖 지문을 적극 활용하여 배운 것을 새로운 국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려 노력해 왔다.

본교에서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100% 진행하면서 동일한 과제(독서, 시 감상, 쓰기 포트폴리오 등)를 한 학기에 2번, 연간 총 4회에 걸쳐 평가하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체크한다. 가령 시 감상의 경우 교육과정 상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좋아하는 시 선정하여 감상문 쓰기→시에 어울리는 시화책 만들기→시의 분위기 살려 시낭송하기→좋아하는 시 소개하는 나만의 책 만들기' 등을 평가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그들에게 시에 대한 안목을 키워줄 수 있었다. 일상 생활 중에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국어를 교육하는 궁극적 의미이자 교사로서의 큰 기쁨이라고 고백했다.

향후과제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평가도구로 측정하여 학생들의 발달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학기동안 학생들의 변화를 통해 현재 수업 방식에 대한 확신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열심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업이 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소극장에서 시낭송하기

단편소설 선택, 분석하기

소설에 대한 평가와 조언하기

■ 디지털 디바이스로 경험하는 과학 수업

수업설계 과학을 가르치는 김경화 교사는 과학적 사고에 기초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을 추구한다. 감정적인 판단보다 관찰하고 관찰에 기반한 추론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을 수업에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와 자연에 대해서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활동들로 수업을 구성한다. 스마트폰으로 구름사진을 찍어보고 분류해보거나 우리학교 생태지도를 만들고 식물을 분류해보는 활동들이 과학수업이다.²⁾

수업과 평가 수업에서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간접 체험도구로 많이 사용한다. 교육용 게임을 이용하여 식물을 키워보기도 하고 구글 어스로 별자리를 관찰하기도 한다. 미래형 백업상을 설계해보고 스케치 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모델을 제작해보기도 한다. 기상데이터를

2) 융합의 날 출품작중 '우리학교 생태지도'에서 착안하여 다른 계절의 생태지도를 그려보게 되었다.

보고 내일 날씨를 예측하고 다른 나라의 기상장비와 비교해보기도 한다.

한편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고 후행학습에 영향을 주는 지식들은 강조하는 편이다. 핵심지식을 익히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그림을 그려 퀴즈를 만들면 다른 반이 풀어보는 활동도 한다. 정기고사에도 수업에서 관찰한 내용을 포함하여 시험을 출제한다.

향후과제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학교는 태양광패널, 에코쿨루프, 빗물저금통 등 탐구하기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탐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과학 캠프처럼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 지식을 세상에 적용하는 사회 수업

수업설계 사회를 가르치는 박의현 교사는 수업을 통해 탐구하고 상상하는 학생을 만들고 싶어 한다. 탐구는 교과외의 지식과 메시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고 상상은 갖춰진 지식을 이용하여 세상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탐구에 수업활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상상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보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수업에서 배운 지식들을 탐구하고 새로운 의미의 생성에 도전해보도록 한다.

수업과 평가 수업은 기본지식-역량과제-세상읽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본지식은 교과와 관련된 지식을 탐구·습득하는 과정이고 역량과제는 탐구한 지식을 이용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산출하는 과제이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오지탐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세상읽기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포스팅 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블로그, SNS, 유튜브 등 개인 온라인 공간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글, 관련 경험 후기 등을 업로드 한다.



기본지식 개념 강의(Youtube)

개별 피드백 제공(Teams)

블로그 포스팅으로 세상읽기

향후과제 개별화 수업을 위해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여러 요소들을 정교화 시키고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는 다소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스스로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구조를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Q2L³⁾의 사례처럼 모든 학습과정을 게임화하여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IB와 같은 해외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탐구하고 도전하는 교육을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학생들이 느끼는 미래학교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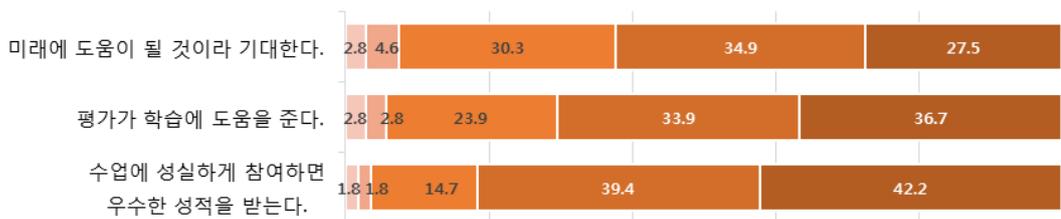
스스로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들이 몰입했는지, 그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났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에게 좋은 수업이 학생에게도 좋은 수업인지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는다.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본교 학생들의 설문 결과이다.

■ 수업과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창덕여중 수업에 대한 학생 응답



창덕여중 평가에 대한 학생 응답



(재학생 109명 대상, 단위: %)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창덕여중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09명 중 78.0%의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69.7%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또한 77.1%의 학생들이 미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72.2%의 학생들은 본교의 수업을 다른 학교에도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3) Quest to learn : 교사, 게임디자이너 및 커리큘럼 디자이너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문제해결학습을 통해 21세기 역량 및 시스템적 사고, 협업 및 디지털 능력등을 함양하는 학교

한편,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81.6%의 학생들이 수업과 평가가 연관되어 운영된다고 생각했고, 70.6%는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고 대답했다. 단, 평가가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학생은 62.4%로, 다른 문항에 비해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고, 수업에 대한 문항과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여전히 학생들에게 평가는 수업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수업과 평가의 좋은 점과 보완할 점

학생들은 우리학교 수업과 평가의 장점으로 토론식 수업과 이해위주의 수업, 활동중심의 수업 등을 꼽았고 디바이스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최대 장점인 것 같다. 또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개인 견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여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다.

- 학생 설문 '우리학교 수업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에 대한 응답

그러나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을 보완할 점으로 꼽았다. 고학년이 될수록 고등학교에 대한 적응을 걱정하는 학생이 많아졌다. 평가 횟수가 많은 점도 보완할 점으로 꼽았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수행평가가 너무 많다는 불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화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과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시험을 너무 안 봐서 고등학교 때 엄청난 시험을 할 때 적응을 못할까봐 걱정됨

- 학생 설문 '우리학교 수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에 대한 응답

수업과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다양했다. 체험과 프로젝트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도 있었고 소설쓰기나 시낭송을 선호하는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기존의 수업방법보다는 우리학교의 특색 있는 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문조사를 마치고 희망자에 한해 실시한 면담에서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나니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수준별 수업이 없는 대신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수업이 좋다.', '서술형 평가방법은 내가 아는 만큼 쓰고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5. 우리가 꿈꾸는 수업과 평가를 위한 제언

■ 평가제도 개선

윤수란 교사는 '중간평가의 의미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평가들을 대부분 즉시 피드백 하는데 이를 다시 점수화하여 집계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중간 평가 기간을 맞추다보니 수업 운영의 여유가 없어지고 평가기간이 집중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학생의 성취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학기에 두 번 성적표를 발송했지만 이제는 과제에 대해 즉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므로 중간평가가 없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편 수치화된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많은 교사들은 포트폴

리오 형태로 수업 중 평가를 실시하다보니 점수를 변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평가 이후에 학습된 내용에 대해 평가하지 않으므로 후속 학습의 동기를 얻기 힘들다는 평도 있었다. 대신 수업 중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서술하는 방식의 성적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동건 교사는 “학습을 위한 긍정적 태도들을 점수화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태도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성적표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고등학교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모색

학생들은 기존 수업방식과 다른 방식의 수업은 고등학교와 입시제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본교의 수업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진학을 위해서는 문제풀이를 위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본교의 수업방식과 기존의 수업방식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서 학생들이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방식의 수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학생들은 현재의 수업방법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금의 학습방법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현재 본교가 가지고 있는 수업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고등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현재교육과 미래교육의 경계

본교는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수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수업과 평가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동안 의미 있는 배움과 즐거운 수업,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노력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고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본교는 지금의 수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며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수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변화를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교에서는 기존의 교육과 미래교육의 경계에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김경화 교사는 “변화의 방향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을 가진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교의 시도들은 우리만의 만족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함이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먼저 도전해보고 걸어온 길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을 찾아서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미래학교 수업의 목표이며 앞으로의 책임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견뎌야 한다.

- 창덕여중 누군가..

1. 융합수업 되돌아보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재상은 '창의융합형 인재상'이다. 이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다. 교육계에서는 친숙해진 프로젝트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다학제간 학습(Multidisciplinary Learning), 과목 간 통합수업(Subject-Combined Class) 등의 개념들도 미래교육 관점에서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용어들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융합교육은 미래교육과정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교도 융합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 2015년의 융합수업

2015년에는 본교의 미래학교 수업모델 중 하나로 '삶을 중심에 둔 융합 수업'을 선정하였다. 삶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통합 수업이 시도되었다. '메르스를 통해 안전에 대해 알아보기'를 주제로 사회, 과학, 국어, 영어과가 함께 수업하였다. 또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기' 수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해결해 보는 수업이 시도되었다. 질 높은 융합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 2016년의 융합수업

2016년에는 융합수업에 관한 논의가 깊어지고 사례가 증가하였다. 과학, 사회, 영어 교과가 융합하여 호수 학생들과의 화상수업을 진행하였고, 역사와 창의미술 교과가 융합하여 역사를 생각하며 만드는 도자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가정, 과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융합하여 텃밭 가꾸기와 김장하기를 연계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보건, 사회, 수학 교과가 융합하여 임신 육아 체험활동 및 관련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수학, 과학, 사회 교과가 융합한 그래프 팀티칭, 지역사회와 연계한 융합형 체험수업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 2017년의 융합수업

2017년에는 2월에 융합수업 워크숍을 개최하며 수업이야기로 1년을 시작하였다. 워크숍의 결과는 '우리 동네 알쓸신잡 융합수업' 등의 실제 수업으로 완성되었다. 또 융합수업이 업무분장에 들어오며 미래학교 수업철학 및 전략으로 부각되었다. 7월에는 융합수업 사례발표를 통해 융합수업에 관한 막연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융합수업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주당 한 시간씩의 수학시간에는 그래프, 함수 등을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수업한 '융합수학'이 진행되었다. 융합수업의 관점에서 여러 교과교사가 참여하는 뮤지컬 수업을 강조하였다. 과학의 날이 교과융합의 날로 변경되며 다양한 주제를 담으려 하였다.

2. 융합수업 발판 마련하기

■ 융합수업 워크숍



융합수업 워크숍

2018년에도 2월에 융합수업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업무 인수인계, 자리 이동 등으로 바쁜 날이었지만, 15명 이상의 선생님이 참석하였다. 특히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참석하여 미래학교 수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융합수업 워크숍을 진행했던 과학 김동건 교사는 “교사들 간의 수업을 통한 소통과 친밀감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융합수업은 교사가 발견하는 좋은 길 중 하나다. 융합수업을 억지로 강요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 수업 개선의 관점에서 융합수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 융합수업 위한 공유엑셀파일

올해에는 융합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융합수업을 위한 공유엑셀파일'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파일에는 '융합수업대장'과 '교과별 학생 학습활동' 시트가 포함되어 있다. '융합수업대장'은 융합수업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융합교과, 수업교사, 학생활동 등을 기입할 수 있는 파일이다. 작년까지는 융합수업을 진행할 경우 내부결재를 받았는데, 교사들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간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융합수업대장에는 많은 수업들이 기입되지 않았다. 일상적인 교과수업은 별도 수집하지 않으면서 융합수업만 따로 수집하는 관점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었다. 융합수업 역시 교과수업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수업활동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위계를 달리 하여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4월4주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대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문법요소 익히기)	다양한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토론하기)	확실한 주제에 대한 자기주도적 탐구활동(주제탐구활동)	4-1 추상국 통일과 태조의 정적 / 4-2 통치 체제 정비와 대외 관계 탐구(영상탐구, 소규모토론, 비평)	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탐구활동 및 포트폴리오 작성)	정리활동	여러 가지 순물질의 용해도를 측정하고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탐구활동)	올바른 식품 선택과 보관에 대한 탐구(보고서 작성)
5월1주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대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문법요소 익히기)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주장하는 글쓰기/말하기)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를 측정할 수 있는가?(이해활동&적용활동)	5-1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 5-3 사림세력의 성장 탐구(영상탐구, 소규모토론, 비평)	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탐구활동 및 포트폴리오 작성)	자시공백 1주 (올화수숙금 자시결산)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혼합물 분리의 예를 설명할 수 있다. (탐구활동)	건강한 식생활 이해하기(이해학습)
5월2주	시에 나타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시에 나타난 사회문화적상황 파악하기)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주장하는 글쓰기/말하기)	물가와 실업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안정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이해활동&적용활동)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를 비교하고, 성리학적 질서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함. (영상탐구, 소규모토론, 비평)	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탐구활동 및 포트폴리오 작성)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기(훈련)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혼합물 분리의 예를 설명할 수 있다. (탐구활동)	조리 계획 세우기(보고서작성 협력학습)
5월3주	시에 나타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시에 나타난 사회문화적상황 파악하기)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주장하는 글쓰기/말하기)	국제사회의 특징은 무엇이고, 행위주체는 누구인가?(이해활동&적용활동)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를 비교하고, 성리학적 질서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함. (영상탐구, 소규모토론, 비평)	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탐구활동 및 구술평가)	꼭짓점, 축, x값에 따른 증가감소(강의)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의 다양한 예를 들고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탐구활동)	조리 실습하기(실습 협력학습)

융합수업을 위한 공유엑셀파일(교과별 학생 학습활동 시트)

'교과별 학생 학습활동'시트는 진도표와 평가계획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주제 각 과목에서 어떤 수업활동이 진행되는지 서로 알 수 있도록 만든 공유엑셀파일이다. 예를 들어, 6월 2주에 1학년들은 국어시간에 '갈등이 드러나는 글쓰기'를 하고, 가정시간에 '개인의 식

습관 평가하기'를 하고, 사회시간에 '자연재해 뉴스 더빙하기'를 하고, 진로시간에 '나의 진로 발표하기'를 한다는 것을 교사들이 파일로 공유하는 것이다. 융합수업의 첫 걸음은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수업하고 있는지 서로 아는 것'이라는 융합수업 워크숍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온라인 공유문서이기 때문에 수업계획 변화를 유연하게 담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지난주에 어떤 학습활동을 하였는지, 이번 주에 어떤 학습활동을 하는지, 다음 주에 어떤 학습활동을 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수업진행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또 담임교사들의 개별학생 학습지도 및 상담활동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 융합수업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카드



융합수업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카드

학년말에는 '융합수업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 카드'를 활용해 융합수업을 공동 디자인 할 예정이다. 해당 카드는 2016년 미래학교 연구회에서 제작하였고, 사회과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전략을 수립하였다. 카드에는 각 단원의 주요 개념과 성취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카드를 바탕으로 여러 교과의 개념과 성취기준을 살피며 공통된 학습요소를 발견·추출할 수 있다. 학기별 융합 활동을 디자인하여 활동의 중복이나 시간의 단절을 줄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융합수업 사례

■ 교과융합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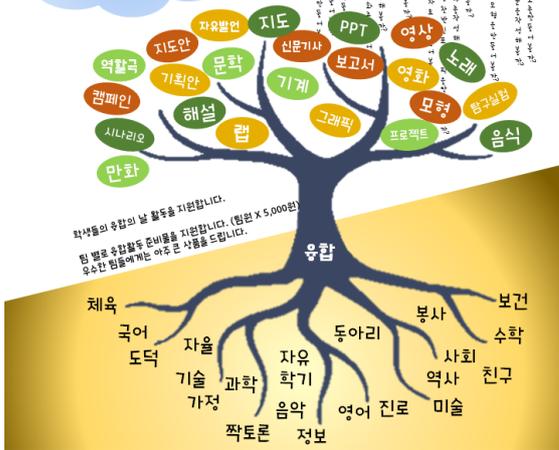
융합 개념 성찰 현재 학교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융합수업은 교과와 교과 간의 통합수업(integrated education)인 경우가 많다. 여러 교과의 아이디어를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반면, 미래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융합수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때의 융합수업(conversion education)은 개별 교과로 분리된 아이디어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녹여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다. 즉,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아이디어를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화된 것을 뜻한다. 그런데 통합수업이든, 융합수업이든 결합이 발생하는 지점은 학생 외부이다. 진짜 융합은 학생 내부에서 발생할 때 보다 의미 있지 않을까?

교과융합의 날 계획 2018년 융합의 날은 '학생 내부에서의 자율적 융합'을 모토로 계획되었다. 한 학기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학습한 아이디어를 되돌아보고 스스로 융합하여 의미 있는 무언가를 산출하는 것이다. 즉, 일반과목,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에서 학습한 모든 영역에서 배운 내용이 뿌리가 되어, 학생 내부에서 융합된 뒤, 다양한 산출물로 꽃을 피우는 것이다. 학생들의 산출물은 글, 광고, 자유발언, 노래, 몸짓, 그래픽, 습관 형성, 실천 후기, 프로젝트, 영상, 그림, 기계, 캠페인, 모형, 음식, 생활용품, 지도안, 역할극, 만화, 해설, 랩, 기획안, 실험 등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였다. 이러한 '융합메이커' 활동은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실제 사회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융합적 관점을 익히고, 기획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것을 융합의 날의 목표로 삼았다.



창덕여중 교과 융합의 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융합하여 무엇이든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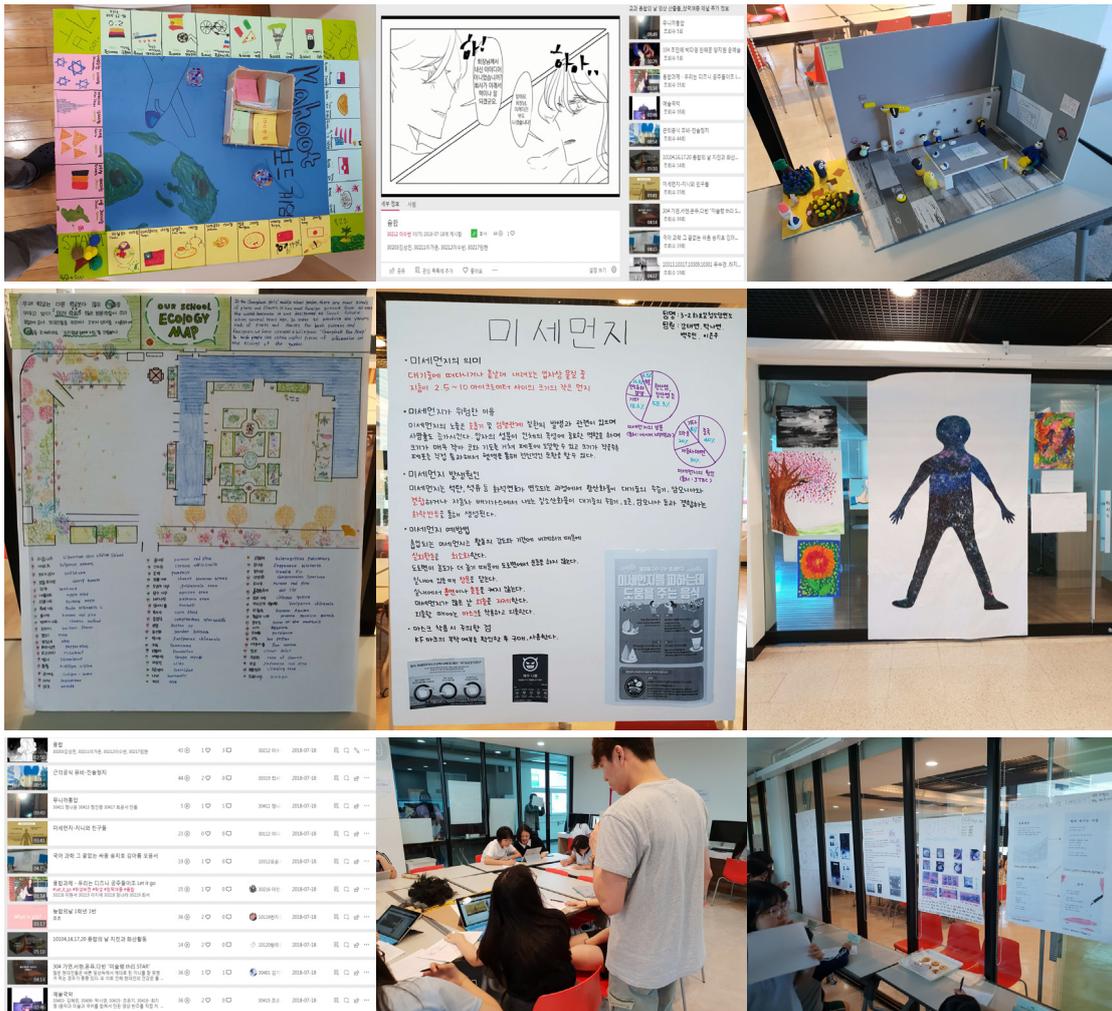
교과융합의 날 포스터

융합의 날은 융합의 날 이전의 '기획 과정'과 융합의 날 (2018.07.18.) 당일의 '산출 과정'으로 구분된다. 융합의 날 이전의 '기획 과정'을 위해 4차시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1학기 정기고사 이후이고 여름방학 이전인 학습취약시기에 교과 선생님들의 협조로 시간이 확보되었다. 기획 시간동안 학생들은 융합의 날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융합의 날 활동계획서에는 해당 교과 또는 배움의 원천을 의미하는 '융합 영역', 학습한 아이디어 (지식, 기능, 가치)를 의미하는 '융합 재료', 학생들이 실제로 진행할 산출활동인 '융합활동'이 포함되었다. 또 융합의 날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제한된 금액(5,000원 X 팀원 수) 내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주문해주었다.

융합의 날 '산출 과정'은 5차시로 진행되었다. 조회시간에 팀별로 준비물을 배부 받은 뒤 산출 과정을 시작하였다. 일부 공간을 제외한 학교 내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여러 교과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산출물을 작성하였다. 제출 방법은 두 가지였다. 네임펜 등을 이용해 이젤패드에 표현하여 제출할 수 있었고, 산출물을 설명하거나 발표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었다. 이젤패드에 제출한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하였고, 영상은 '창덕여중 융합의 날' MS 스트림(<https://goo.gl/EjZ8sw>)에 업로드 하였다. 1~4차시 동안 산출물을 제작하여 제출하였고, 5차시에는 공유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다른 팀의 산출물을 확인하고 공유 활동지에 인상 깊은 점, 궁금한 점 등을 작성하였다.

교과융합의 날 산출물 사례 1학년에서는 '우주대폭팔' 팀이 비유와 상징, 생물의 다양성, 문자와 식 등을 융합하여 시 '사랑의 방정식'의 내용을 토론하는 영상을 제출하였다. '노트북' 팀은 세계지리, 카훗 프로그램 활용, 제품 만들기를 융합하여 보드게임을 제작하였다. '해피니스' 팀은 우주, 철학, 인물상 그리기를 융합하여 소우주를 담은 실물크기의 인간을 그렸다. 3학년에서는 '무니까통합' 팀이 사회문제, 고산병을 융합하여 추리드라마를 제작하여 제출하였다. '시력저조' 팀은 단편소설, 인권침해, 웹툰 그리기를 융합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담은 소설을 쓴 뒤 영상 웹툰으로 제작하였다. '키프클랜' 팀은 식물 생태계, 지도, 번역을 융합하여 본교 정원의 식물들을 설명하는 안내지도를 제작하였다.

융합의 날을 담당하 박의현 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을 믿고 진행하였다. 팀별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웠으나, 하고 싶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피드백한 것이 학생들의 동기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의 공동 지도가 가능하다면 학기말 팀별 프로젝트 활동을 창덕여중의 전통으로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과융합의 날 학생 산출물

■ 짝토론 수업

짝토론 운영 본교에서는 질문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짝토론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과목을 2016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중이다. 짝토론 수업은 금요일 오후 블록 타임에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8년 짝토론 수업은 4명의 교사가 팀을 이뤄 한 학년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모아 교육하며 융합수업의 색채를 보다 더해갔다.



1학년 짝토론 활동

순	1학년 운영 프로그램명	3학년 운영 프로그램명
1	어서와 짝토론은 처음이지	창덕여중 핵심가치 내면화
2	Making a Survey	진짜 친구와 진짜 우정
3	기념관은 살아있다	정동야행 짝토론
4	친구사이 어찌지	청소년 자유발언대
5	평화란 무엇일까	서울시 교육감 모의선거
6	최고의 미덕을 찾아라	나와 명상
7	살기 좋은 도시 공동체	황제의 밀서를 전하라
8	세계시민교육	짝토론을 통한 창덕 골든벨

짝토론 운영 프로그램명

짝토론 실제 1학년 짝토론은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과 질문으로 소통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미덕을 찾아라’ 수업에서는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영어카드로 만들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친구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화 컵쌓기’ 수업에서는 제시된 단어를 평화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가치를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질문 수준을 차츰 높아졌다. 1학년 짝토론을 담당할 전명재 교사는 “소외되는 학생 없이 매시간 다른 학생들을 만나 짝토론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였다.”며 “3년째 짝토론 수업이 진행되어 내실화와 확장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짝토론 수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부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 일반 교과수업과의 연결성을 고민하고, 수업활동을 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3학년에서는 짝토론 활동 자체보다는 짝토론의 ‘활용’에 초점을 두었다.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짝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다. ‘학생 자유발언대’ 수업에서는 짝토론을 통해 자유발언 주제를 선정하고, 자유발언 대본을 작성하였다. 만들어진 대본은 다른 팀에서 보완할 점을 짝토론하며 상호피드백 되었다. 피드백을 반영하여 자유발언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대자보로 작성하였다. ‘교육감 모의선거’ 수업에서는 우선 후보자의 포스터만 보고 투표하는 이미지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후보자의 이름을 가리고, 정책을 보고 토론한 뒤 투표하는 정책 투표를 실시하였다. 정책 투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민주시민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외에도 위안부 소녀상 제작 수업, 정동야행 체험 수업, 명상 수업 등이 융합적 관점에서 실천되었다.



3학년 짝토론 활동

짚토론 성찰 본교에서는 자율활동으로 운영되던 2015년을 포함하면 짚토론 수업이 4년째 운영중이다. 기존 자료들이 축적되고, 새로운 활동들이 추가·보완되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짚토론 운영에도 고민이 있다. '누가 짚토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제3차 교육과정위원회(2018.06.25.)에서 해당 문제가 제기되어 공론화되었다. 짚토론 수업의 의미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과중한 수업준비의 부담감이 표현된 고민이라 해석된다. 형평성과 확장성을 위해 모든 교사들이 짚토론 수업을 하여야 하는지,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해 일부 교사가 담당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으며, 여러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또 짚토론 교육과정은 토론활동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지만, 실제 짚토론 수업은 토론활동보다는 학생들의 산출활동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짚토론 대신 융합수업 또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범위를 넓히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학교 철학과 전체 교육과정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다.

■ 융합수학

본교에서는 2017년에 이어 융합수학 수업이 진행되었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정책 제안하기',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분석하여 정의로운 세금정책 상상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융합수학에서는 수학 교과가 일종의 분석틀로 1차적 결과를 만들어 내면 다른 교과를 불러와 의미를 확장시켰다. 올해 융합수학을 담당한 안영석 교사는 “융합수업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기본지식을 배운 뒤 실세계와 연결하며 의미를 확장하였다.”고 말했다. 이어서 “융합이란 탐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으로, 교과라는 인위적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 창의미술

창의미술은 융합을 통한 '창의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공예, 도자도에, 디자인, 캐리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 최적의 표현방법은 물론, 다양한 도전과제를 수행한다. 통상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경험하고 몸소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술이 다른 분야와 어떻게 융합되어 우리의 사고능력을 풍부하게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창의미술의 과정은 관찰기록되어 과정중심(수행)평가에도 반영된다. 미술을 담당하는 신희곤 교사는 창의미술 운영의 어려운 점으로 인적자원의 확보 문제를 꼽는다. 각 분야별 전문 강사들을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매년 동일한 공고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해서 고용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신희곤 교사는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강사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 아닌 이상 장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 및 효율적인 수업준비물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예 매듭 만들기



도자도에 머그컵 이미지 전사



도자도에 꽃신 제작과정



디자인 스트링아트



캐릭터 종이 액자 속 친구



창의미술 교내 작품전시

■ 뮤지컬

교과융합의 날에 2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뮤지컬 발표회'를 통해 무대에 오른다. 1학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에 뮤지컬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공통 주제를 바탕으로 각 반별로 소주제를 정한다. 대본 작성부터 무대 연출 및 연기, 노래, 안무까지 뮤지컬의 전 과정을 스스로 준비한다. 2018년도의 주제는 '남녀사이에는 친구가 존재할까?'였다. 두 반은 '남녀사이에는 친구가 존재 한다'의 입장으로, 나머지 두 반은 '존재하지 않는다'의 입장으로 각기 다른 스토리를 제작했다. 뮤지컬 수업은 2015년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도부터는 관련 요소가 많은 국어 교과와 음악 교과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1학년 2학기과 2학년 1학기 1학기에 34시간씩 총 68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1학년 2학기과 2학년 1학기에 연속으로 편성한 것은 이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인관계역량 향상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뮤지컬수업은 국어, 음악교과의 성취기준과 연계되어 평가에도 반영하였다.



2학년 뮤지컬 발표회

4. 우리가 꿈꾸는 융합수업을 위한 제언

융합수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사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교사들의 응답을 융합수업의 방향과 융합수업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융합수업의 방향

첫째, 기계적 융합수업에 대한 비판이다. 융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기계적으로 여러 과목의 아이디어를 섞는 것은 의미가 부족하다. 다양한 교과 지식의 연결을 통해 수업하는 것이 분리하였을 때보다 효과가 있을 경우 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교과 융합형 수행평가 개발이 필요하다. 개별 교과마다 밀도 있는 수행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학생들이 지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수행평가이더라도 교과별로 관찰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교과의 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을 다각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이번 융합의 날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융합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 또는 학생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 융합수업 활성화 방안

첫째, 교사들 간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융합수업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회성의 수업대화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융합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융합수업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견고한 교과 벽'이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대학에서 해당 교과교육을 전공하고, 해당 교과로 발령받았으며, 해당 교과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 교과 간의 벽이 견고하다. 교과는 세상과 자연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다. 융합적 관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과 간의 벽을 넘어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교사들 간의 단속문화'이다. 학교의 일상이 너무 바쁘기도 하지만 좀처럼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자기를 철저히 단속하는 문화가 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와 다른 생각, 특히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일상화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과수업 시수 중 일부를 융합수업 시수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수업계획 때부터 융합수업시수가 확보된다면 교사들 간의 원활한 팀티칭이 예상된다.

III. 학교 문화

서로를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학생 문화

2017년까지의 학생 문화는 ‘학생 주도의 자치 문화 확립’에 그 핵심이 있었다. 임원수련회, 전교생 비밀친구, 수선제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학생자치회의 역량이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해마다 증액되는 학생참여예산을 통해 학생회 회장단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었고, 학생 자치회 주도의 사업도 더욱 탄력 있게 운영되었다. 학생회 주도의 다양한 행사는 다소 경직되었던 이전의 선후배 관계를 완화시키고 친밀도를 높이는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본교 학생 자치회는 ‘학생 중심의 학생회’를 기본을 중심으로, 학급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의원회의에서 심화 논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과의 간담회에서 검토하여 전체 학생회 모임에서 공유하는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다함께 생각하여 학생 문화를 움직여 나가는 민주적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학생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 및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규정의 개정이라 교복 등의 의견 수렴을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씨클, 학급자치회 등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배양하고 있다.

1. 현재를 위해 되짚어 보는 역사

■ 우리들은 모두 흔들리며 피는 꽃

2016년에 처음 학생회란 걸 해 보았다. 학생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상 바쁘다고만 느껴졌다. 그때는 학생회에 3학년이 없었고 2학년이 학생회를 진행했다. 학생회가 모이면 주로 2학년끼리만 말하고 1학년들은 회의할 때 말을 잘 못했고 의견이 있어도 발표를 잘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2학년들도 답답해했다. 의견을 내고 싶어도 학생회가 무엇인지, 각 행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라 의견을 잘못 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1학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학년이나 1학년이나 서로 답답했던 것 같다.

2017년에는 3학년이 된 2학년들이 갑자기 손을 놓게 되었다. 2학년이 된 우리들이 갑자기 학생회를 책임지게 되어 어리둥절했다.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였던 마니포를 급하게 준비해야 했었다. 물론 그때 이후로 학생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히 요령이 생기긴 했지만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겁이 났었다. 3학년이 없으니 정확히 학생회를 이끌어 가주는 사람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다. 그때 우리들은 틈만 나면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기억에 남는 것으로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할로윈 행사, 한글날 행사 등을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17년까지의 학생회는 너무 힘들었지만 도움도 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 학생자치회 회장 3학년 김○미

2018년 학생자치회를 주도한 회장단은 2016년부터 학생회에서 활동해 온 그야말로 ‘학생회에서 잔뼈가 굵은’ 학생들이다. 다소 경직되었던 선후배 관계,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 진행해야 했던 행사들 앞에서 불안과 긴장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학생회장단의 입

기가 2학기부터 다음 해 1학기까지였던 상황이라 3학년들의 임기가 종료된 2017년 2학기에는 2학년들 끼리 학생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학교는 학생들과의 논의를 거쳐 학생회장단을 학년 말에 선출하여 1, 2학기를 관통하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2018년은 그 첫 시작을 알린 해이다. 2018년 3월, 3학년이 주축이 되어 1년 동안의 학생회 회의와 행사를 기획하였고 1학기의 회의 및 행사를 주도하였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3학년 회장단은 그 주도권을 2학년들에게 서서히 넘겨주면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새로운 학생회를 꾀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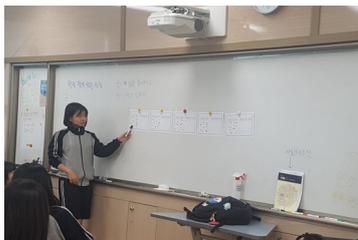
■ ‘학생 중심의 학생회’라는 기본

2018년 학생자치회는 ‘학생 중심의 학생회’라는 기본을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교생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회장단은 1년을 함께 활동할 학생회 임원을 직접 선별하여 자율동아리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1, 2, 3학년이 고루 포함된 학생회 임원단은 각 학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의 역할도 겸하면서 교내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했다.

매월 1회 이상의 학급회의를 진행했던 학급 정부회장은 처음에는 회의 진행법 등을 몰라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학급회의 진행의 경험이 거의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1학기 학급 정부회장의 혼란은 더 컸다. 그러나 대의원회의의 회의 과정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고, 임원수련회에서 ‘월드카페식 토론’, ‘갤러리 워크’ 등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학급회의 진행에 익숙해져 갔다. 한 학기 동안 학급회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2학기 학급 정부회장은 보다 유연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본교 학생자치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대의원 회의에 동아리 대표들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본교의 동아리들은 자율동아리처럼 자발적으로 개설하고 가입하였기에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도가 무척 높다. 이렇듯 자기주도 활동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하는 동아리들은 연간 탐구활동의 결과로서 ‘수선제’를 개최한다. 자율적으로 모여 구성되었기에 동아리 역시 자치적인 조직이기에 대의원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그 자격이 충분하다 하겠다.

대의원회의에서 학급 대표들과 동아리 대표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회와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강당에 모두 모여 각 학급의 의견들과 건의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다함께 공유한다.



학급 자치회의



대의원회의



전교 학생회의

■ 변화, 흔들림 없는 도약

2016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은 학생회가 맡은 행사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학생회 안에서의 참여도, 학급의 참여도가 높아지게 된 것 같다. 원래 주기적으로 열리지 않았던 대의원회의도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학급과 학교 그리고 학생회의 소통을 중심으로 잡으면서 학급 회장들을 통해 학급의 참여도를 높였고, 전보다는 전체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아졌다. 학생회 안에서도 회의를 빨리 진행하고, 1, 2학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설문도 진행했다. 예전에는 '학생회가 왜 저렇게 기획했을까'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보다는 투명해진 느낌이 들었다. 학생회에서부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

- 학생자치회 부회장 3학년 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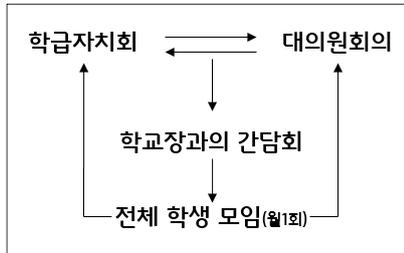
1학기 학사일정

월		
3월	5	자치활동(상견례/학생회장 임명장 수여/스포츠클럽 종목선택)_강당
	12	자치활동(학급)_씨클(1) 상담주간(3,12~30, 3주간)
	19	자치활동(학급)_1학기 학급대표 선출
4월	26	자치활동(학생회1)_강당_임명장수여 등
	2	자치활동(안전)
	9	자치활동(학급)_씨클(2)
5월	16	자치활동(학급)
	23	자치활동(학생회2)_강당
	30	자치활동(안전)
6월	7	대체공휴일
	14	자치활동(학급/성적표 배부)
	21	자치활동(학급)_씨클(3)
7월	28	자치활동(학생회3)_강당
	4	자치활동(안전)
	11	자치활동(학급)_씨클(4)
8월	18	자치활동(학급)
	25	자치활동(학생회4)_강당
	2	정기고사*
9월	9	자치활동(학급) 청주죽만중경사[1] 소변경사[2,3]
	16	자치활동(학급)_2학기 학급대표 선출

2018년 학생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학급자치와 학생자치의 유기적 연결'이다. 학급 자치를 통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연결성이 내실 있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본교는 월요일 6교시를 자치활동으로 고정하여 운영하였다. 교내와 학급 내의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 학급 담임과 함께 학급이 민주적 소통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씨클' 시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학급', 그 논의의 결과를 전교생이 다함께 공유하고 풀어내는 '학생회'시간이 마련되었다.

학급 자치를 통해 논의·건의된 사항은 월 1회 진행되는 대의원회의를 거치게 된다. 대의원회의에서 필요성이 인식된 경우 학급회의에서 논의할 주제를 제안하기도 한다. 학생회 대표들을 포함해서 원하는 학생들은 월 1회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사안들을 학교장과 논의한다. 학교장은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원 가능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왔다. 이런 과정의 결과가 한 달에 1회 강당에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다시 한 번 공유되는 것이 본교의 학생 자치 활동의 구조인 것이



다. 전교생이 200명 이하라는 작은 학교의 특성상 '직접 민주주의'가 매달, 매주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처음에 학급자치 시간에 회의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반 친구들이 의견을 잘 안내면 더 힘들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회의를 하는데 조금씩 익숙해져 갔고 친구들도 의견을 더 많이 내면서 많이 자리 잡힌 거 같아요.

3학년 2반 임○희

1, 2학년 때는 학급회의를 거의 안 했었는데 이번에 학급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대의원회의에서 발표하고 더 의논하니까 뭔가 제대로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반 친구들도 모두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 의견들이 학교에 반영되고 하니까 되게 좋아해요.

3학년 4반 신○유

2. 선택과 집중의 힘, 동아리

■ 내가 선택하고 직접 탐구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춤추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초등학교에는 댄스 동아리가 없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댄스반에 들었고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댄스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선후배 사이에 거리가 멀고 엄격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문화를 좀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댄스반 3학년 최○연

1학년 때 연극이 하고 싶어서 연극부가 되었는데, 그 연극부가 뮤지컬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소극장이라는 우리들의 공연장도 생겼고요. 뮤지컬반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습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과 연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와 체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도요.

뮤지컬반 3학년 김○아

학년 초 학생들은 강당에 모여 동아리를 선택의 시간을 가졌다. 본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된 동아리 대표 학생들은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동아리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다. 교사가 운영 가능한 동아리를 개설하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는 형식이 아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 동아리는 3년 이상 꾸준히 개설되고 역사가 깊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영역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이 등장하면 신생 동아리가 탄생하기도 한다.



농구반 홍보



난타반 홍보



밴드반 홍보

동아리 개설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뜻이 맞는 친구들과 명칭과 활동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전교생 앞에서 홍보하고 회원이 모집이 되면 담당 교사를 물색하여 동아리 구성을 완료하게 된다. 2018년에는 20개의 동아리가 활동하게 되었다. 전교생이 200명 가량이니 한 개 동아리 당 평균 10명 이하의 구성원을 보유하는 셈이므로 구성원 간 소통과 역동이 일어나기 좋은 구조다. 동아리 구성은 1년 마다 새로이 하므로 매년 다른 동아리를 선택할 수 있다.

■ 동아리에서 함께 하는 봉사와 캠페인

본교는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동아리 단위별로 진행’한다. 동아리의 성격과 특색에 맞는 봉사 방법이 있다고 해도 학교의 교육과정 상 시간이 학교 교육계획 상의 시간과 다르거나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하지만 동아리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늘고 있는 추세다.

동아리들의 봉사 활동은 주로 각 동아리의 특색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캠페인 활동으로 나타났다. 자신들이 가진 문제의식의 공유를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의식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알기 위해 시작한 동아리 활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적 기여를 하는 것이다.

동아리	봉사 활동 내용	동아리	봉사 활동 내용
패션반	헌 옷에 새 생명을 캠페인 (학생과 교사에게 안 입는 옷 기증 받아 패션쇼)	요리반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자료 제작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 (헌 양말로 컵받침 만드는 리사이클링)	C.H.O.반	영화 속 흡연 장면을 활용한 금연 캠페인
		R.C.Y.반	에너지 절약 캠페인

동아리 특색과 연계한 봉사활동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봉사를 수행하고 그것을 통해 학교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선순환 구조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덕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동아리들을 해봤지만 내 적성에 맞는지 의문점이 들기도 했고 내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의 동아리를 해야 시간을 더 흥미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중 2때 패션반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거니까 뭐부터 해야할지 익숙하지도 않았고 동아리 인원 수가 적어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많은 인원이 함께 하면서 '다양한 봉사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허투르게 보내지 않는 것 같고 동아리를 진짜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패션쇼나 옷 기부, 헌 옷 업사이클링, 헌옷에 새 생명 캠페인 같은 패션반의 고유한 활동같은 것이 계속 되면 좋겠습니다.

- 패션반 3학년 김○빈

3. 존중과 소통의 문화 촉진자

학생 자치 및 학생회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의 밑바탕에는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있다. 생활 규정의 개정이나 학급의 활동 시 대부분의 경우 학생 활동이 중심이 되고,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도와주고 방향을 안내하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한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주고 받는 가운데 심신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다. 비록 더디지만 모든 교육공동체의 생각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온 바탕에는 상호 존중과 소통의 문화가 있었고, 이러한 생활 속 교육의 장면들은 학생 문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 싹트고 성장한다.

■ 변화를 위한 의견 수렴

최근 몇 년간 생활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학생생활규정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인권 친화적이고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재탄생하였고, 그 바탕 위에 2017년 하반기부터는 복장, 화장, 두발 등의 생활 규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여러 차례 설문과 공유회, 자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교화하였다. 18년에는 특히 하복과 상벌점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생활 규정 및 생활 교육의 논의를 진행했다.

생활규정 관련 의견 수렴 및 재개정 과정	
4월 초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를 통해 발의	
4.25. 교사 공유회	
5.14. 학생 자치회를 활용한 학생 의견 수렴	
5.18.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5.4주 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 조사	
6.7. 학교생활규정 관련 컨설팅	
7.6.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위원회 회의	
7.17.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공고 및 안내	

그동안의 생활지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논의의 바탕에는 학생을 하나의 인격을 지닌 존재, 인권의 주체로서의 학생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다. 자기 결정권 및 책임감을 지닌 존재로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의 예로 징벌적 개념이 강한 상벌점에 대하여 일련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즉각적인 벌점의 부여보다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상벌점제를 개선하였으며 그 개선의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모든 교육 공동체의 공감과 의견 수렴을 이끌었다.

상점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점)교사와 학생자치회 협의를 통해 인정되는 선행 (1점)대회 미담으로 인정되는 선행
벌점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점)규정에 근거한 교사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1점)공공선에 근거한 교사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p>규정 및 공공선에 근거하여 교사의 2회 이상의 지도 이후에도 학생의 태도 및 행동에 변화가 없을 경우 벌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규정 및 공공선에 반하는 행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 등을 포함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수업시작 이후 입실(무단), 수업태도 불량 및 저해행위(수면, 준비물 미지참, 음식물 취식 등), 수업 중 수업과 무관한 것을 보는 행위(전자기기 및 만화, 잡지 등), 용의복장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학교 기물을 고의적으로 분실 및 훼손하는 행위(교구, 시설, 도서 등), 급식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p> </div>

상벌점 관련 개정된 생활 규정

우선 제가 생각하는, 창덕에서 1년 간 해온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식은 전반적으로는 상벌점제 운영 대신 상담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것이었고, 부분적으로는 희망교실과 서클을 운영하면서 활동과 놀이 중심으로 교우관계, 학급분위기를 경영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 양선화 교사

교복의 개정 과정은 더욱 복잡하고 긴 시간이었다. 본교의 동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하복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특히 생활복에 대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허리에 라인이 잡혀있고, 소매통이 좁아 활동에 불편함이 크고 재질이 두껍고 땀이 잘 마르지 않았다. 교복의 특성상 한 번 변경이 되면 쉽게 바꿀 수 없어서 더욱 정교하게 접근하게 되었다.

교복관련 의견 수렴 및 재개정 과정
2017.11. 교복 및 복장에 대한 1차 설문 조사(학생, 학부모, 교사)
2017.12. 교복의 디자인, 색상, 소재 등 세부 항목에 대한 2차 설문(학생, 학부모, 교사)
2018.3. 하복 개선안에 대한 검토
2018.4. 하복 색상에 대한 학생 설문 조사
2018.6. 하복 구매 방식에 대한 교사 의견 수렴
2018.7.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및 학부모회 안내
2019학년도부터 적용

학생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다보니 시간은 더 걸리지만,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건설적인 의견의 제시가 늘었다. 또한 일련의 과정을 학생들은 참여자이며 동시에 관찰자로서의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절차와 적극적인 참여를 내면화 할 수 있었다.



생활 규정에 대하여 토론 중인 교사들



생활 규정에 대한 토의 중(자치시간)

공식적이고 즉각적인 별점 부여를 자제하고 대화로 교사와 학생이 관계를 맺어가며 노력하는 학교 분위기는 학생들의 즉각적인 행동변화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의 모든 행동과 말이 '교육적'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기대한다. 결국 문화는 공감하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씨클활동

2018년 자치시간의 가장 큰 변화는 씨클활동이다. 징벌적 생활교육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의 가장 뚜렷한 변화이기도 하다. 다음은 지난 1년간 학급별로 차이는 있으나 1달에 1회 진행한 활동 내용이다.

서클 활동명	활동 내용	효과
인간 보물 찾기	기존의 인간보물 찾기를 활용하여 자신과 같은 글자가 있는 친구, 같은 혈액형, 같은 달에 태어난 친구 등을 찾으며 학급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 하는 활동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서로 질문을 나누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여러 친구들은 만남.	학년 초,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인사를 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조금 알게 됨.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의 인사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됨.
선후배 사이, 이런 상황에서선 어떻게 하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선후배 사이의 갈등의 상황을 함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말하고 들었음.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 지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해결책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눔.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봄으로써 적극적으로 생각 나누기 활동에 참여. 공감되는 상황이므로 몰입하여 진지하게 생각함.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이 신장됨.
학급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자!	우리 학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이 문제 인지를 함께 찾아봄. 과한 장난에 대한 불편함, 종이와 쓰레기가 많아 더러움, 수업시간에 쓸모없는 말이 많고 수업에 늦게 오는 점, 교실에서 심하게 뛰는 등의 문제점 등을 찾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누어 교실에서 서로 지켜야할 약속을 정하고 포스터로 작성하여 교실에 게시하였음.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약속을 한 뒤 스스로 지키려는 자정 작용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학교 생활도 정돈되었음.
내가 지난 여름에 한 말은...	지난 여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을 적고 누가 했을지 맞춰보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방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서로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음. 평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지만 재가 가장 많이 한 말을 수수께끼로 내고 우가 한 말일지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으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임.	누가 한 말일지 생각하며 친구를 탐색하는 과정이었고, 그동안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친구를 새로 보는 시간이 되었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3가지와 듣기 싫은 말 3가지를 쓰는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음. 듣기 싫은 말 3가지는 있는 힘껏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듣고 싶은 말은 비행기로 접어서 날리고, 한 사람당 3장 씩 주워서 비행기의 주인에게 가서 비행기 속에 쓰인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음.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배려를 배움.

처음에는 교사도 학생들도 처음하는 활동이라 낯설고 어색하였으나 점점 서로를 알아가고 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부터 선후배간의 갈등까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 갔다. 전문적이고 능숙한 씨클 활동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들어준다는 경험은 배려의 첫 걸음이다.



입학식 씨클 센터피스

새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연수를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의 개념과 그 방법, 씨클에 대하여 실습을 통해 배웠다. 대다수의 생활지도에서 어려움이 있는 10% 아이들에게 90%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회복적 생활교육은 비교적 건강한 90%의 아이들을 보살피서 나머지 10%가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지도의 관점이 바뀌면서 생활교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자치시간을 이용한 씨클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자주 운영되어 예방적 차원의 효과가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래포 형성으로 보다 건강한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다만, 담임교사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시행 방법이나 그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책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은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로 피상적일 수 있다. 직접 교사가 배우고 활동해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학급 씨클활동



야외 씨클활동

4. 우리가 꿈꾸는 학생문화를 위한 제언

■ 행사 지원을 넘어서 올바른 학생 문화를 창조하는 학생회

학생회가 문화부와 홍보부의 두 부서로 나뉘어 있는데 그 역할대로 행사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할 분배'인 것 같다. 만약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넉넉하고 충분하다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고 회의를 천천히 진행하며 꼼꼼한 준비를 해도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기에 역할을 잘 분배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앞으로의 학생회는 학생과 선생님의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한 몫을 하면 좋겠다.

- 학생자치회 부회장 2학년 김○은

앞으로 학생자치회는 행사 위주의 활동을 지양하고 학생 문화 나아가 학교 문화를 건전하게 창조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창덕은 학생들이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와 교과

관련 행사가 많은 학교이다. 학생회가 행사 위주로 움직인다면 학생들의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을 위해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쇼를 진행하는 기획사가 아니다. 미래 시민으로서 키워야 할 바른 사회성과 시민의식을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의 거리를 함께 찾고, 탐구하고 나누는 학생회의 모습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 본다.

이에 교사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을 현재처럼 늘 격려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행보를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즐겁게 탐구하는 기쁨을 함께 만끽하는 교사

학생자치회나 동아리는 그 목적인 전문인 양성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며 관심 있는 분야에 스스로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바탕으로 한 뼘씩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수업에 전문가인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 멈칫할 때가 있다. 이것은 일종의 두려움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이미 학교 안에서의 수업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배우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다. 본교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 수업 시간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바뀐 지 오래다. 오히려 학생들은 잘 모르는 분야라 할지라도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 뛰어 들어 흠뻑 즐기며 성장을 경험한다.

본교의 경우 학생들이 흥미에 따라 모여 동아리를 구성한 후에 담당 교사를 매칭하기 때문에 동아리가 교사의 전공 교과와 분야와 거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아리별로 진행되는 봉사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전문 영역이 아니더라도 함께 배우는 자세로 즐겁게 탐구하며, ‘교수자’가 아닌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더 뛰어들어 보면 좋겠다. 그런 과정 안에서 교과 수업 중에서도 훌륭한 멘토의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생활교육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다려주는 어른으로서의 교사와 언제나 협력하며 소통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학교의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생활교육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좀 더 정교한 계획으로 씨클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담임교사의 역량에 기대기보다는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내용의 측면과 실제 운영의 측면에서 담임 교사가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는 교육과 연수, 행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교사가 자율성을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희망교실’과 같은 지원도 필요하다.

미래교육을 탐구하는 교사문화

본교의 학습공동체는 2015년 ‘학습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올해까지 4년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토크콘서트는 2년째 운영되고 있다. 교사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ART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시작하였다. 교사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잘 정착될 수 있었던 근원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 정답은 ‘미래학교’라는 특수성에 있다. 본교의 교사들은 ‘주어진’ 교육 패러다임에 안주하지 않고 이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여러 가지 관습적 제약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교육적 대안들을 탐색하고 그 가능성을 실험해 오고 있다. 이러한 도전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성과 철학, 신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상실하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좌절과 상실감은 학생의 장래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늘 안고 살아가는 교사들에게 확실성의 결여가 주는 불안감, 그리고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홀로 개척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외로움으로 인해 증폭되곤 한다. 이처럼 본교 교사들은 서로의 고민과 실천, 노하우, 새로운 대안들에 대해 공유하며 정서적 지지와 교감을 함께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진실한 동료들이 절실히 필요했고 학습공동체는 이를 위한 좋은 제도적 기반이 되어주었다. 미래학교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며 교사들의 경험과 지식도 비례하여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교사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동료들과의 소통을 더욱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 현재, 본교의 다양한 교사문화 시스템들은 미래학교 문화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1. 함께 학습하는 교사문화, 학습공동체

■ 2018년, 7개의 학습공동체의 탄생

담당부서의 주도하에 학기 초 전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문을 통해 학습공동체 주제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문화’, ‘교사문화’, ‘미래학교탐색’, ‘지역사회연계’, ‘리더쉽’, ‘Something New’의 6가지 카테고리가 중심 학습주제로 추출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6가지 범주들을 바탕으로 전 교사가 관심 있는 여러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교사들은 각 범주와 관련하여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구체화시켜 논의하기도 하였고 우리학교에서 앞으로 진행되기 바라는 연구주제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탐색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각 교사들은 자신이 올해 활동할 학습공동체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으며 학습공동체의 이름도 함께 만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올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학습공동체는 총 7개이며 미래학교 탐색 분야에서는 ‘Vision 2018’, 학교문화 및 교사문화 영역에서는 ‘학교조직문화와 교사공동체’, 학생문화 및 생활교육 영역에서는 ‘마음의 형태’, 지역사회연계 영역에서는 ‘박물관사람들’, 리더쉽 분야에서는 ‘리더쉽을 묻다 시작하다(리다시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에서 ‘트렌드 2018’과 ‘학습 공작소’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학습공동체에는 총 30명의 교사들이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참여교사 1인당 일반수용비 10만원과 업무추진비 6만원, 총 480만원의 예산을 지급함으로써 연구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공식적인 모임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수요일 교직원회의와 분리하여 격주로 실시하였다. 격주로 실시되는 공식적인 모임 외에도 각 학습공동체는 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모임을 진행하였고 필요시에는 외부 활동을 통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각 학습공동체는 1년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회에서 발표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이 수업이나 학교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시사점들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수학습자료제작 학습공동체인 ‘학습공작소’는 우리학교의 열악한 체육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실내 체육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우리학교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학습공작소의 실내 체육 수업 도구 개발

또한, ‘Vision 2018’은 협력, 공감, 도전이라는 우리학교의 핵심가치를 측정하는 자기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미래학교의 학교 효과성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하였다. ‘마음의 형태’는 여학생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통해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상담기법 등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제시해 주었으며, ‘학교조직문화와 교사공동체’는 미래학교 교사문화의 원동력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박물관사람들’의 경우 답사 중심으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으며 우리 학교 인근 서울역사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등을 직접 탐방하여 미술사 수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답사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영감은 즉각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에 활용되었다.

■ 2018년, 학습공동체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과 인식

2018년 학습공동체에 대해 본교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실제 선생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2018년 학습공동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학습공동체의 미시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학습공작소의 구체적인 산출물로, 같은 학습공동체인 체육과 양선화 선생님은 학생들이 실제로 몸으로 뛰면서 하는 대형 보드게임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수업시간에 활용하였고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학습공동체 시간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시간이 공식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주제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은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학교는 학습공동체 시간을 공식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원하는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 김의진 교사

학습공동체 ‘학습공작소’의 김의진 교사는 학습공동체의 활동 목적을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형 또는 무형의 수업자료 제작에 두고 있었다.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 실제로 수업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학습공동체 시간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었으며 이 시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공동체 시간에 타교과 선생님들과의 자연스런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교과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장점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학습공동체의 목적성과 관련하여 ‘학습공작소’와는 다소 대조적으로 ‘Vision 2018’ 학습공동체의 경우 학술적인 성격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김준구 교사와의 다음 인터뷰에서 상세히 드러난다.

2017년 학습공동체 ‘마중물’에서 우리학교의 핵심 가치 도출연구를 했고, 5가지 핵심가치가 도출되었어요. 올해의 학습공동체인 Vision 2018은 그 핵심가치 중 협력, 공감, 도전에 대한 자기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했어요. 저희 공동체에서는 첫 모임부터 학술지 논문 게재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물로 논문을 완성했어요. 모두가 여름 방학까지 반납하고 연구에 몰두한 결과죠. 논문 제목은 ‘교육공동체의 핵심 가치·역량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입니다. 해당 논문은 10월31일 발간되는 해당 학회지 제18권 20호에 게재되었어요.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도구는 학교 호과성 측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 김준구 교사

‘Vision 2018’ 학습공동체의 경우 연구를 통해 학교에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그 연구 성과를 학계에 보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학교조직문화와 교사공동체’의 박의현 교사는 학습공동체 시간을 ‘학교민주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축적시키는 경험이자 공유와 상호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규정 하면서 학습공동체가 갖는 소통의 기능과 교사 지식의 전수 측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박물관사람들’의 신희곤 교사는 학습공동체 시간을 활용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텍스트 위주 이론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각 학습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는 실제로 매우 다양했다. 표면적으로는 학습공동체라는 명목으로 최소한의 형식적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구성원의 성향과 지향점에 따라 각각의 독특한 정체성과 개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통제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은 ‘지원적 의미의 행정 시스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미래학교 특유의 풍토로 인해 가능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풍토와 학습공동체를 위시한 미래학교 교사문화의 차별성은 올해 처음 우리학교에 근무하게 된 이은주 교사, 양선화 교사와의 인터뷰에 잘 나타난다.

학습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해야 하나?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이렇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느낌이에요. 일단, 미래학교의 학습공동체는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 이은주 교사

의식 변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 학교, 학생, 제도, 학습, 교구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로는 제도 비판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설정되곤 했습니다.

- 양선화 교사

이은주 교사는 이전의 학습공동체 경험을 ‘형식적인 행위’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학습공동체에 대해 특별히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미래학교에서 학습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학습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미래학교 교사들 특유의 문화가 이러한 학습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금의 학습공동체와 같은 공식적인 교사 학습조직이 없었더라도 미래학교에는 비공식적인 학습조직들이 수 없이 만들어 졌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은주 교사와 마찬가지로 양선화 교사도 학습공동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본교에서 학습공동체를 경험한 후 그러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양선화 교사는 학습공동체 시간을 통해서 동료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으며 그 대화를 통해 미래 교육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미래학교의 학습공동체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자 생산적인 교과융합형 연구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해왔다. 각각의 학습공동체는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상상들을 동료들과 모여 나누었다. 때로는 서로의 의견을 지지해 주었고, 때로는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나름의 활동들을 1년에 걸쳐 유의미한 방식으로 펼쳐나갔다. 그 결과 가시적 성과를 보여준 학습공동체도 있었으며,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의 씨앗만을 남겨준 학습공동체도 있었다.

2. 교육현상을 탐구하는 교사문화, ART(Action Research Teacher)프로젝트

■ 2018 미래학교의 새로운 도전

올바른 미래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어쩌면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난제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의 교사들은 이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연구결과를 공식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8년 본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 ART(Action Research Teacher)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ART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한 이은상 교사는 ART 프로젝트 기획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장 연구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명의 선생님이 어떤 한 차시 수업을 하였을 때 그 수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현장 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 모두가 연구자인 셈이죠.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휘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지식으로 축적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외부 연구 활동을 통해서만 인센티브를 얻고 있는데 학교 내부의 연구 활동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었고, 그렇게 기획하게 된 것이 ART 프로젝트입니다.

- 이은상 교사

이은상 교사는 ‘현장 연구’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었고 ‘본교 교사들이 한 차시 수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현장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그의 이러한 인식은 본교 교사들이 미래학교 맥

락에서 실시하는 수업들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도전이며 혁신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소중한 도전의 흔적과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공동체 전체의 지식으로써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이다. 본교 교사들이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와 사례들을 수집하여 이를 공동체 전체의 지식으로 환원하고 축적해 나감으로써 미래학교만의 '교육적 담론과 역사적 기록'을 만들어내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는 것, 그것이 ART 프로젝트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라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그는 연구하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또한 ART 프로젝트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본교는 ART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도전하였다. 어떠한 성과가 나올지, 어떤 문제점들이 대두 될 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기록이 미래교육의 외연확장과 일반화를 위해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본교의 많은 교사들이 이 새로운 시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그 자체로써 우리의 도전은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ART프로젝트 : 10개의 연구과제, 17명의 ART

본격적으로 ART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ART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였고, 그 취지와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교육현상을 탐구하는 교사문화

ART Project

Action Research Teacher

유형	교육과정	학습환경	학교문화
예)	OO과목에서의 과정중심평가 피드백 사례...	학습플랫폼으로서 MS Teams 구축 사례...	OO학급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적용 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대상 : 전체 교직원. 개인 혹은 팀 단위로 연구과제 신청 연구내용 : 교육과정, 학습환경, 학교문화 등에서 자유롭게 지정 연구지원 : 연구활동비 지원(팀원 수에 관계 없이 연구과제에 지원, 협의회비 사용 가능) 필수사항 : 최소화된 계획서 & 보고서 제출, 연구활동 공유회 참석 참고사항 : 학습공동체=ART Project 활동 가능 		
활동일정	<p>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1/2 ~ 1쪽)</p> <p>연구결과 의미는? 보완해야 할 것은? (사진포함, 5쪽 내외)</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계획서 접수</p> <p>~4월 2일</p>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계획공유</p> <p>4월 4일</p>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중간공유 (약식)</p> <p>7월 중</p>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최종공유</p> <p>12월 중</p> </div> </div>		

교사들이 ART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주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과정중심평가에서의 피드백 사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례,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 사례 등 연구 주제가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본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은 연구과제 단위로 지원하였다. 예산의 경우 연구용 도서구입이나 자료제작 등의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로 3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문가와의 협의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회비 8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다. 해당 내용을 안내 한 후 교사들로부터 연구계획서를 받았

고, 총10개의 연구과제가 제출되었으며 17명의 교사가 이에 참여하였다.

윤수란 교사는 ‘교육과정 안에서 소설 쓰기 지도’라는 연구과제를 제출하였고 해당 연구를 통해 성취목표와 소설 창작 교육을 연계하는 수업과정안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창작결과를 평화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김경화 교사 등이 참여한 ‘과학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스마트기기 활용과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는 과학교육전문가 3인과 협업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과학수업에서의 스마트 기기의 활용가능성과 방안은 물론 그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유정 교사는 자신의 교과수업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과정 중심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영석 교사는 국제 성취도 평가 문항과 해외의 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평가에의 시사점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명재 교사는 ‘작토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라는 과제로 본교만의 특화된 작토론에 대하여 그동안의 기록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많은 수업이 진행되는 본교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온라인 학습플랫폼으로써 마이크로 소프트 팀즈(Teams)를 활용하고 있다. 박의현 교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팀즈를 수업용으로 최적화하는 과정과 이를 통한 개별화 수업 사례를 체계화하고 있다. 김준구 교사 등은 영어 듣기 평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듣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ART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과제들은 주제의 측면에서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다. 또한, 각 연구 과제들을 연구 방법론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10개의 연구과제들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연구 주제는 물론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각 연구 과제들이 차별화 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방법론의 관점에서 각 과제들을 분류한 결과를 보면 실천 연구가 6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AR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본인의 수업이나 평가에 있어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 또는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을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많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ART를 기획한 이은상 교사가 제안했던 광의의 연구 개념과 맥이 닿아 있는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10개의 연구과제들이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방법론

연구과제명 (연구참여 교사명)	연구방법론 유형
과학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스마트기기 활용과의 상관관계 분석 (김경화, 김동건, 이재희)	양적 연구 (2편)
영어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 사용이 중학교 제2언어 학습자의 영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준구, 이은주, 김다영)	
학교 내 연구자이자 실천가로서의 교사공동체 사례 연구 (이은상)	질적 연구 (1편)
해외 평가 사례 연구 (안영석)	문헌 연구 (1편)
작토론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전명재)	실천 연구 (6편)
학습플랫폼 설계와 개별화 학습 실천 연구 (박의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학습도구 만들기 (김의진, 양선화)	
교육과정 안에서 소설 쓰기 지도 (윤수란)	
모험상담으로 여는 치유의 교실 (이재정, 황진수, 이하영)	
과정 중심 평가로서 ‘나만의 수학공책’의 가능성 검토 (김유정)	

ART연구과제 연구방법론 유형 분류

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지식 구축이라는 ART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 ART(Action Research Teacher)의 생각과 인식

ART 프로젝트 첫 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미래학교의 ART를 만나보았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먼저, 그들이 생각하는 ART에서의 연구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나름 연구이기 때문에 정리 수준을 넘어서서 결과와 효과성도 검증해 보려고 해요. 이전에는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실천하는 정도로 끝났다면 이번에는 좀 더 앞, 뒤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김유정 교사

교사가 일 년간의 수업 방식이나 주제를 정해서 실천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연구라고 생각해요. 일반 연구와는 조금 차별되는 측면이 있어요. 축적된 실천의 기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 박의현 교사

학교 현장의 질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엄밀하게 검증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학교 현장에 근무 하면서 막연하게 느끼는 '현상'들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에 대한 답을 교사들 스스로 찾아보는거죠.

- 이은주 교사

ART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은 연구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김유정 교사와 박의현 교사는 자신이 직접 실천한 수업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김유정 교사의 경우 수업 사례에 대한 기술은 물론 해당 방식의 효과성 검증까지도 고민하고 있었다. 반면, 박의현 교사는 수업을 실천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연구이며 축적된 수업 기록 자체가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안영석 교사는 연구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른 교사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일상적인 수업이나 장면에 대한 연구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탐색 등이 ART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은주 교사는 '체계적 분석'과 '엄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었고 다양한 현상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ART 프로젝트에서의 연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 교사들은 연구의 정의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ART 프로젝트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김준구 교사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객관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관이나 경험적 논리에 의존한 교육활동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결과들을 학계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연구전문성과 역량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직감이나 경험, 직관에 의존한 교육활동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와 연구 결과에 의존한 과학적 교육활동이 결국 학교 교육 혁신의 주춧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ART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김준구 교사

'모험상담으로 여는 치유의 교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정 교사는 학생들과 소통

하는 방법을 서로 나누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정 교사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적으로 상담 기법 등을 공부하고 있으며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실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카드와 같은 도구를 매개로하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선생님들과 나누고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을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ART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이재정 교사

이재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연구를 통해 좀 더 정교화하길 원했으며 이를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고 있었다.

ART프로젝트는 미래학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박의현 교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학교 교사들의 교육적 고민과 실천과정이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면 매우 귀중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그는 미래교육은 굉장히 어려운 이슈인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지식들에 기반하여 후배교사들은 '거인의 어깨'위에서 미래교육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유정 교사는 외부 프로젝트에 비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을 언급하면서 많은 교사들이 ART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신의 수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안영석 교사는 지식을 능동적으로 생산해 내는 모습이 미래 교사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체로 미래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ART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의 생각은 그 주제만큼이나 매우 다양했다. 그러나, 모든 교사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연구방식이 무엇이든, 그 주제가 무엇이든,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ART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이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내적 동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첫 발을 내딛는 ART프로젝트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3. 교육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

■ 토크콘서트 : 공식적 소통의 장

토크콘서트가 본교에서 실시된 지 2년이 되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라고 보기엔 그 이름이 다소 생경하지만 본교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토크콘서트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본교 또는 외부의 교사를 스피커로 선정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 참가 교사들은 스피커 또는 동료교사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처럼, 토크콘서트는 특정주제 혹은 다양한 현안과 이슈에 대해 교사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공식적 소통의 장이다. 토크콘서트는 '우리는 우리로부터 배우는' 취지로 최초 시작 되었고 실제로 토크콘서트를 통해 본교 교사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토크콘서트의 본래적 의의는 2017년 미래학교 연구보고서에 압축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학교 내 교사들의 실천과 성장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별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라는 집단도 학습을 하게 된다. 미래학교는 학생의 성장과 관련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들은 공유와 협력의 공간에 참여해야 좋은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다.

- 2017년 미래학교 연구보고서 p.87

토크콘서트를 통해 본교 교사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신념과 수업하나 하나에 담긴 교육철학도 이해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개별 교사의 신념이나 철학을 깊이 있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본교는 토크콘서트라는 공식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본교의 교사들이 서로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 하였다. 그 결과 토크콘서트는 배움과 성장이라는 가시적 성과 외에도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근본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생각의 차이와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는 갈등을 감소시키는 암묵적 성과도 거두게 되었다. 토크콘서트를 처음 본교에 도입한 이은상 교사 또한 토크콘서트 기획의도를 설명하면서 갈등감소 기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전문가인 교사들 사이에서는 오해나 갈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토크콘서트와 같은 공론의 장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갈등감소 기능이 토크콘서트의 중요한 측면임을 강조하였다.

■ 2018 토크콘서트 : 6가지 이야기

2018년 토크콘서트에서는 성교육, 교육과정 및 테크놀로지, 미래학교 리더이야기, 서울미래학교 특수분야 직무연수(2018년 10월 기준)를 주제로 다루었고, 본교 교사 및 교장 5명과 타학교 교사 1명이 스피커로 참가하였다.

주제	발표자
우리 성에 대해 말해도 되나요?	이재정, 황진수
교육과정-테크놀로지 일체화 목표-내용-방법-평가-기록 with 테크놀로지	김유정, 박의현
미래학교 4년의 소회, 리더를 리딩하다	이화성
교사로부터 교사에게, 연수를 통한 미래교육 공유화 확산 2015-2018 서울미래학교 특수분야직무연수 중심으로	안희경 수석교사(전농중)

토크콘서트 주제와 발표자

모든 토크콘서트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할 수 없으나 다음의 후기를 통해 본교의 토크콘서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교육과정-테크놀로지 일체화 (2018년 5월 30일 토크콘서트 후기)

2017년 4월에 시작된 창덕토크콘서트가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타 학교, 교육청, 심지어 강원도에서도 찾아와주셔서 기관과 지역의 구분을 넘어선 열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1. 창덕 선생님들의 발표

창덕여중 미래학교의 비전, 핵심가치, 로드맵 공유.

수학, 디바이스, 공책정리를 좋아하는 학생이 교사가 되어 자신의 강점들을 수업에 녹여내며 수업과 평가를 변화시키고 있는 수학교사의 실천자신의 수업에 대한 스스로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의 여러 요소를 촘촘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업과 평가를 변화시키고 있는 사회교사의 실천.

2. 발표를 듣고 이어진 질의 응답

선생님들의 좋은 질문들,

그 질문들을 들으며 느낀 여러 선생님들의 열정과 의지. 고민의 깊이.

오늘 토크콘서트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학습 환경에 관한 고민이 녹아 있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유, 학교문화, 인성"과 같은 인문학적 고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사들의 도전과 실천.

그리고 오늘의 소통과 공유.

창덕여중의 오늘과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학교 4년의 소회, 리더를 리딩하다 (2018년 6월 27일 토크콘서트 후기)

지난 4년간 창덕여중 리더역할을 맡았던 이화성 교장선생님의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다소 이르다고 볼 수 있으나 미래학교 리더로서의 생각과 소회를 들어보고자 토크콘서트 스피커로 초청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그동안 토크콘서트의 단골손님(청중)이기도 했습니다.

토크콘서트 1부에서는 지난 4년의 세월을 나뉘는 관점에서 설명하였고, 2부에서는 선생님들의 사전 질문, 현장 질문을 통해 조금씩 소회(所懷)를 드러내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질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학교'를 강조했던 것을 가장 잘 한 것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즐겁게 했다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도 밝히셨습니다.

제도가 허락하지는 않지만, 4년 더 근무하고 싶었다는 속내를 드러낸 교장선생님. 다음에 부임할 교장선생님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지난 4년의 학교 역사를 공부해주세요."

"소통을 더 많이해주세요."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교장이 되어주세요."

부탁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미래학교 4년의 소회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리딩해 봅니다.

■ 토크콘서트가 남긴 과제 :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토크콘서트가 본교의 월례 행사로 자리매김한지 2년이 되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외연의 확장이다. 올해는 '창덕여중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토크콘서트를 적극 홍보하여 외부 선생님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월 30일 있었던 '교육과정-테크놀로지' 토크콘서트에는 강원도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참가하였다. 토크콘서트가 외연을 확장하여 외부와의 건설적인 접점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토크콘서트 업무 담당자인 이은상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학기 초에 진행한 성교육 관련 토크콘서트에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학기 초라 그럴 수도 있고, 민감한 주제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신경은 많이 쓰였습니다. 작년보다 선생님들의 관심이 줄었나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 계시는 선생님들께 간식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것도 늘 마음에 걸려요. 마지막으로 주제선정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선생님들께 모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 이은상 교사

토크콘서트를 기획하고, 이를 2년간 운영하고 있는 업무담당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토크콘서트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해결과제들을 포착하고 이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토크콘서트가 미래학교의 교사문화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일상적 교과협의회와 수업공유 문화

학교의 다양한 회의기구 중 유일하게 같은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끼리 모일 수 있는 교과협의회는 기능이 공식적인 업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교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교과관련 이슈들을 논의한다. 비공식적인 교과협의회가 활성화 되어있는 것이다. 또한, 본교의 수업 공유 또한 희망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 일상적 교과협의회 사례

본교 수학과 교사들은 목요일 1,2교시에 매주 교과협의회를 실시한다. 교과협의회에서 다루는 주제는 거의 각자의 수업 내용이나 방법이다. 때로는, 서로의 수업이 타당한지 격렬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건설적 제안을 통해 동료의 수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그들에게 두 시간의 협의회 시간은 매우 짧아 보였다.



네 명의 수학교사들이 둘러 앉아 자신의 수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교사들은 이를 경청하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생각이 다른 경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수학 수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쉬지 않고 이어진다.

한혜정 교사 : 사실 의심의 개념도 설명하기 조금 어려워요. 외접원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교과서에서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너무 어렵게 정의하고 있죠.

최한나 교사 : 저는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삼각형 합동조건 수업에서 빨대를 활용하려고 해요. 선생님도 학생들이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혜정 교사 : 좋은 생각이네요. 이등변삼각형 세 개가 만나는 상황을 동적기하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유정 교사 : 동적 기하 소프트웨어 다루는 것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평가에 대해 고민하는데요, 미리 문제를 이렇게 공개했고 실제 시험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영석 교사 : 계산기로 어렵값을 계산하고, 적정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봐요. 삼각비는 과정이 맞고 답이 근사하면 되는 단원이죠.



◀ 과학교사들이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주일간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고민은 무엇인지 쉴 새 없이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건 교사 : 아이들의 질문을 공유하기 위해 패들렛(Padlet)을 사용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걱정이예요.

김경화 교사 :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설문지를 통해 질문을 모으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의 경험상 이런 설문지를 하면서 성취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도 함께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김동건 교사 : 저도 단원을 시작할 때 성취기준을 안내하고 단원 끝에 다시 확인시키기는 하는데 학생들이 이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어요. 설문지를 통해 단원을 정리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어려웠던 활동이나 성취기준도 함께 확인하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업계획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새 1학년 학생들과 휴대폰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있는데 1학기에도 휴대폰 사용 수업이 있었나요?

김경화 교사 : 네, 있었어요. 학교의 다양한 암석과 식물을 관찰한 사진을 찍고 이를 메일로 보내는 수업을 했어요.

김동건 교사 : 그러면 학생들에게 사진으로 촬영해서 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김경화 교사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과학과 현안은 물론 수업방법에 대해서 수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그 시간을 매우 소중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전 학교는 과학교사가 10명이었어요. 구조적으로 교사들이 다 모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교과 교사들이 많아야 4명이기 때문에 교과협의회를 자주하기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일상적으로 자주 모여서 수업이나 기타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짜 교과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화 교사

■ 일상적 수업공유 문화

우리학교 3학년 수업에는 21번이 있다. 3학년 한 반의 정원은 20명인데 21번은 누구인가? 바로 동료교사이다. 수업을 참관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21번 학생을 자처하고 학생의 관점으로 수업을 바라보는 동료 교사가 있다. 21번 학생은 주어지는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 낯선 광경이다. 이러한 낯선 광경에 대한 이야기는 3학년 1학기 수업에서 21번 학생과 함께 했던 이은상 교사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잘 묘사되어 있다.

미래학교 창덕여자중학교 이야기

게시자: 이은상 [?] · 4월 12일 · 🌐

...

#21번학생

3학년 사회수업에 들어오는 21번 학생은 청강생입니다. 청강생이지만 매시간 부여되는 미션/과제를 모두 수행합니다. 평가는 물론이고 선생님께서부터 피드백도 받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할때면 어김없이 질문을 받고, 자신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발표도 합니다.

21번 학생이 수업에 처음 들어왔을때, 한 학생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학생: "선생님, 21번 학생은 왜 들어와요?"
 선생님: "글쎄, 배우고 싶어서 온다고 하네...그런데 왜?"
 학생: "조금 어색해서요..."

학생만큼이나 선생님도 어색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1번 학생에게 더 많은 발표기회를 주었습니다. 21번이 나머지 20명의 학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 21번의 질문과 제안들이 수업에도 좋은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앞에서 어색하다했던 학생이 다시 말합니다.
 학생: "21번 학생이 다른 수업도 청강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만큼이나 학생의 어색함도 사라진 듯합니다.

선생님 역시 동료교사인 21번 학생의 수업에 매주 한 시간씩 참여해봅니다. 듣고 아는 것과 참여를 통해 아는 것이 참 다릅니다. 교과와 차이도 발견하지만 수업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어갑니다. 무엇보다 보여지는 것의 이면에 감추어진 선생님의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동료수업의 21번이 되고, 21번의 선생님이 되는 수업문화. 말이 아닌 몸으로, 머리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학교문화.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미래학교 문화가 아닐까요?

그는 포스팅에서 21번 학생의 수업 참관을 ‘수업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수업을 나누는 일은 미래학교에서 더 이상 의무도 아니고 강제도 아닌 ‘문화’인 것이다.

수업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모든 교사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나의 수업에 들어 온 또 다른 교사에 의해 수업의 단점들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 모종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거부감은 학교에서 서로의 수업을 공유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어 왔고 많은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쉽게 남에게 보여주지 않게 되었다. 행정적으로 강제하지 않

으면 누구도 선뜻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고, 일상적인 수업공유는 요원한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미래학교의 수업 공유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참관하는 교사는 자신이 들어가는 수업을 평가하려 하지 않았고, 한 명의 학생으로 수업에 임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한 학기 동안 수업에 꾸준히 참가한 후에 비로소 수업교사와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 그 대화는 수업에 대한 획일적 가치판단도 아니고, 좋은 교수법의 종용도 아니며 충고도 아니다. 다만, 21번 학생으로서 본인이 느꼈던 점에 대한 환류의 과정이다. 3학년 사회수업의 21번 학생이었던 김유정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학생의 입장에서 참관해야 더 잘 보일 것 같았어요. 나도 모르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 감정과 학습이해도를 같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참관을 하면 선생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좀 더 많아져요.

수업참관을 통해서 나타난 제일 큰 변화는 학생들과 친해진 거예요. 수업시간에 제가 학생으로 참관했던 반 학생들과 매우 친해졌어요. 서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업참관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확산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강요는 못하겠어요. 제가 실천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면 함께하는 동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산 되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 김유정 교사

김유정 교사는 21번 학생으로서 수업에 참여한 동기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감정과 학습이해도를 진정성 있게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참여했을 때 비로소 수업을 공개한 교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아진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교사의 관점에서 교사의 수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눈높이에서 수업을 바라봄으로써 수업하는 교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것, 그것이 김유정 교사가 21번 학생을 자처한 동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업을 처음 공개하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올해 처음 자발적 수업 나눔에 동참한 김동건 교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처음에는 떨리고 나의 부족한 면을 남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 창피하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공개하고 몇 번 지나다보니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 지적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부담감이나 창피함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진짜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 김동건 교사

수업을 공개하기 전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김동건 교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2학기 수업 나눔에 동참한 후 그가 경험한 변화처럼 수업 참관에서의 동료는 조력자이지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이 차츰 확산되다 보면 미래학교의 일상적 수업공유 문화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5. 우리가 꿈꾸는 교사문화를 위한 제언

미래학교의 학습공동체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학습공동체의 형식화를 경계해야 한다. 올해 처음 우리학교에서 학습공동체를 경험한 이은주 교사와 양선화 교사는 공통적으로 형식화된 학습공동체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학습공동체 시간이 교사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유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적극 존중하며 신뢰해야 한다. 관습과 제약을 당연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다. 학습공동체가 미래학교 교사문화의 큰 축임을 인식하고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진정성 있는 활동이 지지받을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ART 프로젝트와 관련한 교사들의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교사는 연구 구비를 좀 더 융통성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교사는 연구의 성격이 다양한데 획일적인 형태의 산출물을 요구하는 것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요구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이 부담스럽다고 언급한 교사도 있었다.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고 타당한 제안들이라 사료된다. 교사문화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교사 문화’를 깊이 있게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견들에 귀 기울이고 명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문화는 형성되지 않는다. 자율과, 신뢰 그리고 책임감에 바탕을 둔 균형감있는 행정을 통해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식화와 경직성을 극복하였을 때 비로소 학습공동체와 ART 프로젝트는 미래학교 교사 문화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교육 견인의 강한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18년 미래학교에서의 교과협의회는 그 협소한 관습적 기능을 초월하여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수업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수시로 이뤄질 수 있는 일상적인 소통의 장이자 교과 전문성에 기반한 열띤 토론의 공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제 미래학교의 교과협의회는 비로소 형식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자연스레 그 외연을 확장하게 되었다. 수업과 관련한 고민이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을 때 미래학교 교사들은 가장 먼저 동교과 교사들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일상적 교과협회의 문화가 퇴색되지 않도록 비본질적인 잡무 등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동교과간의 교과협의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이 모인 융합형 교과협의회를 비슷한 방식으로 시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수업 공유의 문화 또한 지금 보다 더욱 확산 될 필요가 있는데 강제적인 방식은 수업 공유 문화 확산의 모멘텀을 오히려 저지하게 될 것이다. 수업 공유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한 교사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씩 노력하다보면, 그리고 동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쌓이다 보면 수업 공유 문화는 차츰 미래학교 교사 문화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의미있는 한 걸음을 함께 시작한 학부모 문화

본교는 2015년 미래학교를 시작하면서 연 8회의 '교육3주체 아카데미 창덕 어울림'을 개최했다. 늦은 밤까지 전문가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을 들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다가올 시대의 새 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것도 학교만의 역할은 아니기 때문이다. 2016과 2017년을 지나오면서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문화 동아리를 구성하였다. 28명의 학부모가 매달 한 번 만나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문화적 소양을 쌓고 자녀의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본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총회, 수업공개, 학교 설명회 뿐 아니라 합창대회, 협력종합예술 뮤지컬 발표회, 체육의 날, 뮤지컬 동아리 '파노라마' 공연, 학교 축제인 '수선제'에 참여하여 왔다.

학부모회는 한 학기 1회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소통하며 풀어내고 있다. 간담회에서 논의·건의된 사항들은 '열린 회의'나 '수요 회의' 등을 통해 교직원과 공유되며 깊은 논의의 과정을 거쳐 학교 안팎의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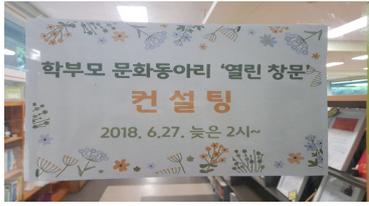
1. 학부모 공동체 발전적인 전기

■ 책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학부모 문화 '열린 창문'

2018년 학부모회의 가장 큰 변화는 '열린 창문'의 출발이다. 2017년 영화 감상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학부모들은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동아리 '열린 창문' 기획·구성하였다. 학부모회가 '열린 창문'이라는 문화 동아리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다. '열린 창문'이라는 명칭도 학부모들 스스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안한 것으로 '문화적 소양을 갖추으로써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창덕의 학부모회'의 이미지를 언어적으로 잘 형상화하였다.

'열린 창문'은 5월 영화 감상 및 감상 공유를 시작으로 홀수 달에는 영화 감상을 짝수달에는 독서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독서토론을 처음으로 시작하기에 '독서토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책을 읽고 싶다'는 욕구는 가졌으나, 함께 읽을 도서의 선택이나 독서 토론의 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 독서 동아리를 5년(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타교 선배 학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열린 창문'만의 독서토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전문 강사의 강의도 좋았겠지만 학부모로서 학교 안에서 독서하고 토론하는 길을 먼저 간 선배 학부모의 컨설팅이라 더 의미 있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교내에서 독서토론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이 학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 컨설팅



독서토론



저자 강연

2017년 영화 감상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2, 3학년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독서를 잊고 지내기가 쉬운데 두 달에 한 권씩 사회와 우리의 모습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큰 만족을 안겨주었다. 독서 후에 이어지는 생각의 공유도 독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요소였다. 학부모들 간의 일상적인 대화도 정서적 순화에 도움이 되지만, 독서 후 감상의 공유는 학부모들이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움과 당당함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올해 학부모회의 독서 모임 활성화로 개인 개발도 하고 자녀 교육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책을 읽은 후 각자의 후기를 이야기하고 공감하며 희비의 순간들을 같이 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셔서 동아리 활동과 학부모들의 정보 공유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아이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학년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보고 '열린 창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독서 활동 경험이 부족한 엄마들이 시작한 모임이지만 자발적으로 횟수를 늘려가며 발전해가는 모습이 뿌듯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웃 언니 같은 편안함 말로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주셔서 자극이 많이 되었어요. 정말 유용한 강연이었습니다.

1학년 학부모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인생 이모작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저자와의 만남도 유익한 시간으로 평가되었다. 인생 후반기에 첫 책을 출간한 이덕주 작가(『지금이 내 인생의 골든타임』의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열린 창문' 회원들은 작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누렸으며 본인들의 인생 후반기를 구체적 희망으로 그려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학부모들이 독서의 묘미를 느끼면서 학생들의 독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열린 창문'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은 교과 관련 최신 양서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는 창덕 책방을 학생들과 함께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 방과후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독서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 학생들이 적어도 1주일에 1권 독서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세요.
-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독서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도서실에 구비된 좋은 책들을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열린 창문' 참여 학부모들

날짜	활동 내용
제1차 (5월 26일)	영화 '독전'(이해영 감독, 조진웅 주연) 관람 후 감상평 및 학교생활 정보 공유
제2차 (6월 27일)	학부모 독서동아리 전문가와의 토크 콘서트(컨설팅) '독서교육활동 예시 및 지속가능한 동아리 활동 방안 공유'
제3차 (7월 17일)	『세 갈래 길』(래티샤 콜롱바니, 밝은세상) 독서 토론
제4차 (8월 25일)	영화 '공작'(윤종빈 감독, 황정민 주연) 관람 후 감상평 및 학교생활 정보 공유
제5차 (8월 29일)	『죽은 경제학자의 이상한 돈과 어린 세 자매』(추정경, 돌베개) 독서토론
제6차 (9월 19일)	『시를 읽은 그대에게』(정재찬, 휴머니스트) 독서토론
제7차 (9월 29일)	영화 '안시성'(김광식 감독, 조인성 주연) 관람 후 감상평 및 학교생활 정보공유
제8차 (10월 24일)	『지금이 내 인생의 골든타임』(초록비책공방) '이덕주 작가와의 대화' 및 독서토론
제9차 (11월 28일)	문화체험 및 수선제 전시 준비 '나만의 도자기 컵 만들기'
제10차 (12월26일)	2018 활동 성찰 및 2019년도 활동 계획

2018년 '열린 창문' 연간 활동

2. 우리가 꿈꾸는 학부모 문화를 위한 제언

■ 학부모회 자립성 확립

'열린 창문'의 존재를 모르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엄마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열린 창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독서에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 1학년 학부모

'열린 창문'은 잘 운영되었지만 각 학년, 각 반별 학부모회는 조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함께 활동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학부모회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 2학년 학부모

2018년의 학부모회 문화 동아리 '열린 창문'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로 이루어졌다. 시작이니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활동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학부모 독서 동아리 선배 학부모이 컨설팅', '저자와의 강연' 등 제공해 왔다. 학교의 지원에 대한 '열린 창문'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학부모회의 자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2019년에는 학부모회가 직접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연간 활동과 사업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학부모 총회, 학교 문자 시스템,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부모회 사업을 홍보하여 더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활동에 관객이 아닌 자발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관객'을 넘어 '참여'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강화

'열린 창문'은 본교의 학부모회가 주축이 된 동아리이다. 그럼에도 아직 '열린 창문'의 존재를 모르는 학부모가 많다. 또한 각 학년별, 학급별 학부모회는 공식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회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학부모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2018년에 학부모를 위해 개설된 '자유학기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학부모 연수'에는 불과 6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참석 학부모들은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황석연 과장의 미래 사회를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혁신 마인드 강의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동시에 이런 양질의 강의에 극소수의 학부모만 참여한 것에 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뒤이어 진행된 '자유학기제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학생 참여 활동형 프로그램'에는 단 한 명의 학부모도 참여하지 않아 강의를 취소되기도 하였다. 중1, 중2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는 '창의 미술' 활동을 경험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소양을 향상할 수 있는 연수였기에 취소의 안타까움이 컸다.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관객'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 학교의 여러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학부모 문화가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IV. 학습 환경

학교문화와 융합된 테크놀로지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미래학교의 학습환경 구성은 ‘열림과 융합’의 연속이었다. 닫혀 있던 공간을 열고 독점했던 공간을 함께 나눔으로써 수업과 학교문화에 변화가 나타났다.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융합되어 기존에 실천하지 못했던 교수학습방법의 실천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경험은, 교사들이 미래학교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에서 안목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주어진 유무형의 테크놀로지 환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고민하고 준비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고민하며 안내하는 테크센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테크놀로지 기반의 학습환경과 학교문화의 변화라는 주제를 다른 학교보다 몇 년 먼저 실천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1. 학교 문화에 녹아 있는 테크놀로지

■ 수업 문화와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본교의 수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학습환경이 수업문화를 이끌어 낸 것인지, 교사들의 다양한 수업에 대한 요구가 학습환경을 만들어낸 것인지 궁금하였다. 먼저, 본교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복수응답). 본교의 교사들은 협동학습(75%), 프로젝트수업(37.5%),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러닝(37.5%), 강의식수업(37.5%)을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나의 수업 형태나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자신의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업과 평가를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본교에서는 수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에 적용되고 있을까. 교사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기반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서비스, 프로그램, 모바일 기기용 앱 등)는 무엇인지 물어보았다(복수응답). 본교의 교사들은 팀즈(Microsoft Teams: 71.4%), 원노트(Microsoft OneNote: 42.9%), Google(설문지, 지도, 유튜브: 42.9%), 모바일기기용 앱(14.9%)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수업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역시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래학교 운영 4년차, 교사들의 수업과 테크놀로지는 어느 정도나 융합되어 있을까. 교사들에게 자신의 수업에서 테크놀로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았다. 본교 교사들의 대부분은(66.6%)은 자신의 수업에서 테크놀로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은 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에 따라서는 테크놀로지와 교수학습 및 평가가 모두 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테크놀로지를 중요한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교의 선생님들은 주로 원노트 클래스룸이나 팀즈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수업과 같은 방식의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노트와 팀즈는 모두 동일한 클라우드 서비스(Microsoft Office365) 기반의 플랫폼으로,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학습기록과 과제 등을 관리하고 기록을 축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전면적으로 활용한 수업에서는 수업과 테크놀로지가 모든 부분에서 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팀즈나 원노트클래스룸 등의 교육용 플랫폼을 활용하면, 학생의 학습활동과 학습자관리시스템(LMS)이 일원화되어 수업과 학습활동이 자연스럽게 빅데이터로 축적되고 이를 활용하여 과정중심평가가 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수학과 김유정 교사

우리 학교에서는 특정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교사가 많은 이유는, 학교 업무 전반에 오피스 365(Microsoft Office365)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기반한 교육용 플랫폼을 사용하기 쉽고 교사들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원노트 클래스룸과 팀즈를 사용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들은 새롭고 효과적인 플랫폼에 관심이 많지만,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플랫폼을 자신의 수업에 전면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중한 수업시간에 학습활동 외의 요소로 인하여 수업이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함께 공유하며 연구할 수 있는 도구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 정보부장 김익진 교사

2015년부터 원노트(Microsoft OneNote)이 선생님들께 확산되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팀스(Microsoft Teams)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8년에는 구글(G-Suite for Education)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다.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수업에 적합한 것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지원은 미래학교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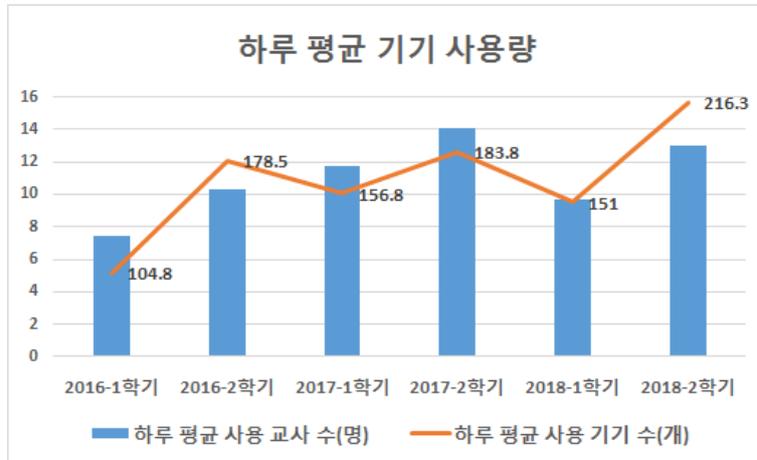
■ 수업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

본교에서는 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구학교 예산으로 테크센터 매니저를 두어 교사들의 학습용 기기를 관리하게 하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지원하고 있다. 특정한 공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아닌 교내의 모든 학습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하였다. 본교 교사들의 테크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 현재, 5점 만점에 4.44점을 기록하고 있다. 테크센터에서 보유하고 학습활동에 지원하고 있는 기기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종류	2015	2016	2017	2018	소계
일체형PC(정보방, 나눔방)	-	36	-	-	36
서피스(MS Windows 태블릿PC)	130	70	-	-	200
아이패드(Apple iOS 태블릿PC)	5	60	20	-	85
태블릿PC 충전함	5	9	2	-	16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	-	-	25	-	25
무선 미라캐스트	10	21	-	-	31
3D프린터	-	5	2	-	7
스마트폰용 VR 헤드셋	-	21	-	-	21
펜 마우스 타블렛	-	13	-	-	13
360도 카메라	-	5	-	-	5
액션캠, 삼각대	-	5	-	-	5
계	150	245	49	-	444

2015년 미래학교 1년차에 도입한 기기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진짜 컴퓨터’라는 측면에서 윈도우 기반의 태블릿PC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2016년에는 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요구로 다양한 교육용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인 아이패드, 메이커 교육을 위한 3D프린터, 학생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공간의 구성을 위한 일체형 PC를 준비하였다. 2017년에는 기존의 기기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2018년에는 유지관리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모든 기기는 매주 월요일 열린회의와 물품 및 용역 통합선정위원회 등의 과정을 통한 논의로 결정하였고, 연구학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행하였다.

현재, 테크센터에서는 사용 전 날까지 온라인으로 학생용 기기 사용신청(사용하는 수업시간, 필요한 기기와 수량 등)을 받아 적절하게 배치하여 교사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테크센터의 기기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매년 늘어왔으며, 평가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테크센터 운영 4년차에 접어들면서 세부적인 사용계획 없이 일단 기기를 신청하고 대여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졌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의 기기를 대여해 사용하는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



■ 업무를 덜어내주는 테크놀로지

교사가 수업과 학생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끝없이 내려오는 공문과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학교 내 현안처리 등은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우리학교에서는 먼저, 정기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부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수업과 업무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365(Microsoft Office365)를 학교 업무 전반에 도입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먼저, 학사일정을 공유하여 주간업무계획의 결재를 대신하였다. 모든 교직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행사와 학생들의 교육활동, 담당업무 등을 한 공간에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매주 열린회의에서 여기에 등록된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간업무계획 수립을 대체하였다. 우리학교에서는 연간 교육계획서에 각종 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하여 삽입하는 것으로 각종 행사의 계획문서 결재를 대체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일정 공유 역시 업무를 간소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모든 교직원이 학교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문화 역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었다.

각종 대장 및 자료 수합을 간소화하였다. 클라우드에 올라와있는 파일을 공유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가정통신문, 직무연수, 공간예약 등의 각종 대장을 대신하였다. 교직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설문지 등을 통하여 직원회의 시간의 지나치게 많은 주제로 인한 부작용을 정리할 수 있었고, 각종 회의에서 필요한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들이 수업에 필요한 기기를 테크센터에 신청하는 절차 역시 마찬가지로의 맥락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 홈페이지 역시 덜어내기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회신서가 필요없는 가정통신문과 공지사항 등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인쇄작업과 종이의 낭비를 대신할 수 있었다. 학부모님들께는 스마트폰 알림 앱 연동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오히려 인편으로 도달하는 가정통신문 종이 출력물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들 역시 홈페이지에 학교규정, 각종 매뉴얼, 담당업무 자료 등을 축적하게 하여 모든 교사가 손쉽게 관련업무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현재, 우리학교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다.

2. 테크센터 운영의 시행착오

■ 테크센터의 역할 찾기

본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센터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테크놀로지 기기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테크센터는 본관 1층의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태블릿PC, 주변기기 등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기들이 있다.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업을 하지 않고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테크센터 매니저'를 연구학교 예산을 활용하여 채용하였다.



테크센터와 테크센터 매니저

기존의 학교에 존재하지 않던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2015년에는 등곳길에 학생들이 테크센터에 들러 직접 자신이 하루종일 사용할 태블릿PC를 대여해가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할 기기에 대한 관리부담이 없어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각 수업의 특성에 맞는 기기의 준비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다. 1년간의 테크센터 운영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부터는 교사들이 학생용 기기사용 신청서(온라인 공유문서, 아래 그림 참조)에 자신이 사용할 기기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테크센터 매니저는 교사들이 신청한 기기의 대여 내용에 따라 기기를 적절하게 배정한 후, 해당 교사가 직접 기기를 반출하여 사용한 후 반납하게 하고 있다. 기기의 충전을 위한 시간과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기기를 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일까지 사용신청, 사용당일 기기반납'의 원칙을 강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정자	교사 수명	사용일자	기 수업교시	기기 종류	사용 교실	교실 위치	수량	uclass 사용	기타 사항
1406	송주진	2018-10-08	2.3	스마트폰	수학3실	4중	15	아니오	
1407	정일순	2018-10-08	1.4	Surface	국어2실	3중	5	네	
1408	황진수	2018-10-08	2.3.5	iPad	사회1실	2중	20	아니오	
1409	안영석	2018-10-08	1.4	Surface	누리방	2중	20	예	중
1410	김동건	2018-10-08	2.3	휴대폰	과학1실	3중	17	아니오	
1411	김승희	2018-10-10	4.5	iPad	스튜디오	2중	20	아니오	
1412	김경화	2018-10-10	2.3	Surface	과학3실	3중	13	예	
1413	박의현	2018-10-10	2.3	Surface	사회2실	2중	20	예	
1414	이은상	2018-10-10	2.3	Surface	정보방	4중	20	예	마우
1415	최경신	2018-10-10	2.3.4	Surface	개별1실	2중	4	아니오	
1416	김유정	2018-10-10	1.5	Surface	수학2실	3중	20	예	
1417	김유정	2018-10-10	5	스마트폰	수선정원 운동장	1중	5	아니오	각도
1418	송주진	2018-10-10	2.3	스마트폰	수학3실	4중	15	아니오	
1419	정일순	2018-10-10	1.4.5	Surface	국어2실	3중	5	네	
1420	황진수	2018-10-10	2.3.4	iPad	사회1실	2중	20	아니오	
1421	안영석	2018-10-10	1.4.5	Surface	누리방	2중	20	예	중
1422	김동건	2018-10-10	2.3	휴대폰	과학1실	3중	17	아니오	
1423	추정민	2018-10-10	5	Surface	국어1실	4중	20	아니오	
1424	정은경	2018-10-10	4	Surface	진로방	4중	20	아니오	
1425	강승희	2018-10-11	3.6.7	iPad	스튜디오	2중	20	아니오	
1426	김경화	2018-10-11	2.3	Surface	과학3실	3중	13	예	
1427	김종일	2018-10-11	1.5.7	Surface	개별2실	2중	2	아니오	
1428	박의현	2018-10-11	1.2.4	Surface	사회2실	2중	20	예	
1429	이은상	2018-10-11	1.2.5	Surface	정보방	4중	20	예	마우
1430	김유정	2018-10-11	4.5.7	Surface	수학2실	3중	20	예	원, 이

오피스365 공유문서 - 학생용 기기 사용 신청

학생들이 수업에 활용되는 기기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학교에서는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입학에 맞추어 1학년 3월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여러 교과 수업에서 기기사용방법, 오피스365사용방법, 모바일 앱 사용법 등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교과 수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인한 교과 수업의 파행을 예방하고 있기에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한 지원이다. 새로운 기기가 도입되면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했을 때의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테크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우리학교에서는 매년 초 인사발령 직후 정보업무 담당교사와 테크센터 매니저가 협력하여 전 입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활용방법을 정리한 영상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미래학교 테크놀로지 활용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의 사례 중 하나로, 본교 전입 교사들에게 오피스365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성격의 영상 연수자료를 QR코드로 첨부한다.



■ 테크센터 매니저

테크센터가 미래학교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까지는 각종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역량을 함양해 온 테크센터 매니저의 역할이 컸다. 단순한 기기의 관리 수준을 넘어 교사의 수업방식을 분석하고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준비하였다. 각각의 교사들이 어떤 수업을 하며 어떤 기기와 어떤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서, 개별 교사에게 적합한 형태의 기기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들을

배우고 안내하고 보급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교사들과의 신뢰관계 역시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사실, 본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테크센터 매니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학교현장의 경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있고 교사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생각하며 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목적사업비인 연구학교 예산의 일부를 할애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직원의 범위 안에서 신분과 채용절차, 인건비 등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학교 테크센터 매니저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람과 계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크센터 매니저의 채용 문제나 역량에 대한 논의는 교사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우리가 꿈꾸는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을 위한 제언

■ 학습용 정보화 기기의 도입 및 관리

연구학교 운영 4년차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사용해왔던 기기관리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기의 하드웨어 성능도 개선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드웨어의 개선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교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교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는 테크놀로지 기반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클라우드에 기반한 서비스로 특정한 기기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어떤 기기에서도 비슷한 사용성을 보여주는 것들이었다.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 역시 클라우드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학습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본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성능 기기를 고집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관리하기 편한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기관리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학교가 직접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기기를 준비하고 학교가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으로 기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업체와 사용계약을 맺고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업체와 사용계약을 맺고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프린터 등의 사례를 생각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선 학교의 예산부족을 고려하면 학생의 개인용 기기를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B.Y.O.D.(Bring Your Own Device)는 학생의 가정환경에서 오는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로 인하여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학생의 개인용 기기와 학교에서 준비한 기기를 혼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기기의 파편화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이나 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들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의 질을 높ی겠다는 측면

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과 교육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의 일반화

미래학교의 준비단계부터 지난 4년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미래학교의 사례는 지속 가능하고 일반화 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공립학교의 인사시스템 속에서 교사의 역량에만 의존할 경우 특정 교사의 전보에 따라 축적된 모든 것들이 흔적없이 사라질 위험성이 크다. 테크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본교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전문성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모두 갖추고 있는 교사를 파견교사로 미래학교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교육 경험을 갖추고 있는 테크놀로지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사가 미래학교에 파견되어 일정한 기간 동안 테크센터 운영을 하며 경험을 쌓고 학교 현장에 복귀한다면 미래학교의 사례를 공유하고 일반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청에서 테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다.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부서를 조직하고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다. 운영 과정에 축적되는 경험들은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일반화하는 정책 수립의 자산이 되어 여러 학교에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테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미래학교 일반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공간과 생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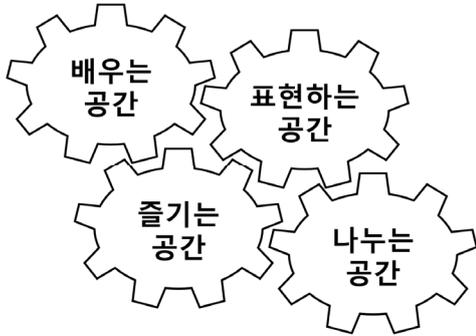
1. 공간의 구성



교실배치도 : 배우며 나누고 표현하며 즐기는 공간들

■ 학습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본교의 공간 구성은 학교 구성원들의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낸 결과물로 미래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배우는 공간, 표현하는 공간, 나누는 공간, 즐기는 공간을 구성하고 이러한 공간들이 융합되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배우는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교실은 매 수업시간 학습활동에 맞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동이 편리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였고, 각 교과별 특성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가구와 도서 등을 자유롭게 배치하였다. 나누며 즐기는 공간인 각 층 마루에서 학생들은 학습과제를 수행하며 배우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의 융합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각각의 공간을 최대한 열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의 구분과 융합

우리학교는 모든 공간에서 배움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향한다. 각 교과의 특성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교실을 넘어 여러 가지 교과활동이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의 교실이 아닌 다양한 교과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융합되고 있는 공간의 특성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공간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
정보방 (4층)	사회 교과 수업, 체육 교과 수업, 각종 직무연수, 교직원 회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자치회, 학생과제활동 등
온돌방 (4층)	체육 교과(무용, 체조) 수업,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동아리활동(댄스 등), 자율활동, 학급활동 등
소극장 (3층)	뮤지컬 수업, 국어 교과 수업, 짝토론 수업, 동아리활동(댄스, 뮤지컬, 밴드 등), 각종 공연
스튜디오 (2층)	음악 교과 수업, 뮤지컬 수업, 동아리활동(밴드 등), 각종 회의, 공개수업 등
누리방 (2층)	수학 교과 수업, 학습공동체, 공개수업 및 컨설팅 등
먹방 (1층)	기술가정 교과 수업, 과학 교과 수업, 교직원 식사, 학급활동, 동아리활동 등
강당 (1층)	체육 교과 수업, 자율체육 활동, 각종 학교 행사, 학생자치회(월1회), 각종 직무연수, 학급활동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들

미래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기초적인 학습환경 개선이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공간 및 시설공사는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 구성을 기초로 미래학교의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추구하여 구성된 공간들은 본교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미래학교는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기반의 학습환경이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학습자 역량을 함양하기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과 학습환경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는 항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활동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창덕여자중학교 공간 및 시설 구성의 역사

■ 공간의 열림과 나눔

본교 구성원들은 가능한 많은 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어떻게 공간을 구성해야 할지 고민하였고 몇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첫째, 각 교실의 잠금장치는 튼튼한 번호 자물쇠로 하고 그 번호를 모든 교직원이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교직원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한 몇 명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통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공간을 사용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만큼은 가능한 많은 공간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였다. 나눔방과 정보방은 항상 열려있는 공간으로 일체형 PC를 여러 대 배치하여 학생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였다. 처음에는 관리상의 문제로 우려가 컸지만, 학생들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사용지침을 준수하며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주었다. 각 층 홈베이스를 개선한 마루와 정보방, 나눔방 등에서는 언제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삶을 나누며 학습활동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언제나 운동할 수 있게 열려있는 강당, 노래하며 연주할 수 있는 각 층 마루와 스튜디오, 거울을 보며 표현할 수 있는 온돌방 등도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

2. 생태 환경

우리 학교 내부에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래 생태환경을 구현하는 공간들이 숨어있다. 지속가능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학교 내부에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은 일상에서 미래의 환경을 이미 접하고 있다.

■ 빗물 저금통



빗물저금통

2015년부터 우리학교의 생태환경을 위해, 빗물저금통을 디자인하는 활동을 했다. 어느 곳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해야 하는지, 어떤 재질로 설치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했다. 학교 본관 뒷부분은 한양도성길 공사로 인해 설치가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서 오히려 수돗가와 먼 독서지원센터 건물 뒤쪽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기로 했다. 재질은 환경을 생각해서 나무 재질로 결정했다. 중구청 지원금을 받아서 뒤쪽 텃밭에도 빗물을 이용해 쉽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했다. 학생들이 빗물저금통의 원리에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생각보다 빗물이 깨끗하게 모여서 학생들은 빗물 이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도 되었다. 덕분에 수돗가와 먼 곳에 위치한 텃밭을 관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겨울에 고여 있는 빗물이 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부분의 조율이 조금 더 필요하다.

■ LED 화분

3층 과학교과실 앞 코너에는 LED 조명을 활용한 화분들이 층을 이루어 루꼴라, 바질 등의 식물을 키우고 있다. 한 쪽은 수경재배로, 한 쪽은 토양을 활용한 방법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복도에서도 식물들을 키운다. 수경재배로 키운 식물은 벌레가 생기지 않는데, 미래시대의 식물 공장의 원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은 이곳을 지나치면서 자연스럽게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래 식물 산업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재배한 작물을 뜯어서 먹어보기도 한다. 이렇게 키워진 작물은 학생들의 수업에서도 활용되고, 교사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체험 교사연수'에도 활용되었다. 일부 식물은 급식의 샐러드 재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LED 화분



재배한 작물을 활용한 교사 연수

■ 태양광 패널 및 에코쿨루프 시스템



에코쿨루프 시스템

2016년 가을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은 본관 2,3,4층 창가에 위치해있다. 각 층마다 디지털 모니터에서 월별 누적 발전량을 체크할 수 있다. 현재는 발전량이 실시간으로 유지 보수 업체에 전달되고 있지 않지만, 계측기를 조금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에코쿨루프 시스템은 방수 및 단열시스템으로, 특수 제조된 섬유시트를 이용해서 쿨루프 시트 방수층을 옥상에 부착하고 흰색의 쿨루프 페인트를 도색하는 것이다. 과도한 태양열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 시스템은,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2016년도에는 서울시 지원으로 본관 옥상의 일부를, 2017년도에는 중구청과 학교 예산으로 나머지 본관 옥상 일부를 시공했다. 2018년도 여름에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독서지원센터 위의 천장에도 설치를 했다.

3. 우리가 꿈꾸는 학습 공간과 생태환경을 위한 제언

■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학습은 해당 교과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다면 학습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본교는 어디서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공간을 구성하였다. 누군가 독점하는 공간이 아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최대한 만들었고 그 속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미래학교 공간구성의 일반화를 위해 교사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교내 생태환경 지도(융합의날)

맑은 하늘의 가을 날, 본교의 운동장 둘레길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학생과 땀 흘리며 운동하는 학생, 사물을 측정하며 높이와 면적을 구하는 학생, 텃밭에 물을 주는 학생의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컴퓨터실의 모니터에 앉아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수선정원의 벤치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료를 검색하며 토론을 하기도 한다. 학교는 공간을 구성할 때 학교의 모든 공간에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의 구성과 테크놀로지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수업에 활용하는 교구 역시 마찬가지다. 본교는 미래학교 연구학교로 지정되면서 지원받은 예산을 수업을 개선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교과별로 다양한 학습의 도구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 전체로 보았을 때는 중복되는 투자가 적지 않았다. 한 교과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한 학습도구가 공유되지 못하면서 다른 교과에서 중복하여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해서, 본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센터와 비슷한 성격의 공간을 학습도구를 공유하기 위한 곳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 생태환경 만들기

그동안 여러 노력으로 다양한 생태환경이 학교 내에 구성되어있다. 빗물 저금통, LED 화분, 태양광 발전, 에코쿨루프시스템, 과일 퇴비 장치, 생태텃밭 등은 과학과 교사들의 노력으로 구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우리학교의 생태환경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온 김경화 선생님은 내년에는 서울시청에서 진행되는 '초록미래학교'의 에너지절감형에 본교의 사례를 지원 하고자 한다. 예산이 생긴다면, 앞으로의 유지, 보수 비용 및 또 다른 생태환경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계획 중인 것은 중구청의 생태탐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서 우리학교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종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활동이다. 또한, 우리학교에 여전히 존재하는 빈 땅들을 활용하여 테마가 있는 정원을 구성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한쪽 공간은 '허브 정원'으로, 다른 공간은 '야생화 정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도 있다.

과학과 김경화 교사는 여전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자 하면서도,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교사의 노력으로 다양한 생태 환경이 구축한 후에, 유지 및 관리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생태계가 이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V. 미래교육의 확산

연수기관으로서의 확산 노력

1. 미래학교가 만드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다시 생각하기

■ 새로운 연수의 개발과 적용 “6. 47. 780. 810. 240”

미래학교의 다양한 수업과 연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 및 다양한 기관과 많은 교사들에게 공유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분야 직무연수이다. 2015년 미래학교 연구와 함께 시작하여 이제 4년 차를 맞이하며 그동안 6교과 총 47개 과정, 총 이수 시간 780시간, 연수인원 총 810명, 강사인원 240명으로 진행되었다. 4년간 연수의 변화의 궤적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본다. 특수분야 직무연수의 목적 및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학교에서 고민하고 실시되는 수업의 공유이다. 학생 참여 중심의 참여형 수업 방법, 다양한 디바이스의 적절한 활용, 과정 중심 평가와 수업-평가의 일체화 등 교육의 장면에서 고민하고 실행했던 진행형의 수업을 함께 공유하며 보완해 왔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더욱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지점이다.

둘째, 현장 교사의 시선에서 접근하는 실재성이다. 교사들이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강의와 더불어 현재 교육현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점들을 찾아 함께 연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또한 연수의 실제에 있어서 실습과 참여 위주의 방식으로 전이 및 자가 혁신,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수이다.

셋째, 미래학교, 미래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며 실천하려는 교육 공동체의 성장이다. 본교 안에서 만의 외침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함이 궁극의 목표이다. 과연 미래학교, 미래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단언하기 어려웠던 처음 시작 시기부터 4년 여의 여정 동안 연수를 통해서 미래학교과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을 함께 탐색하고 구성할 수 있는 원동력 중의 하나였다.

2. 그 동안의 연수 돌아보기

■ 2015 새로운 형태의 연수 개발과 적용

본교는 미래학교 운영 중 발생하는 수업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통해 나누고 더하였다.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미래학교 일반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 방법에 대하여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의 4개 교과에서 총 20개의 강좌를 개설, 진행하였다.

저명한 전문가, 교수, 저술가부터 현장의 교사까지 기존의 연수와는 다른 새로운 연수 강사의 발굴을 통해 참신하지만 진지하고 유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일선의 교사들이 대거

강사진에 포함되면서 실재성 높은 고민과 내용으로 운영되었다.

미래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에서부터 태블릿, PC 등의 도구를 활용한 교육공학적 접근, 미래교육에 대한 통찰까지 광범위한 듯 보이지만 미래교육에 대하여 철학, 내용, 방법론 등을 입체적으로 연수에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교과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연수 과정은 모든 교과, 모든 학교급에 개방되어 교과와 학교급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연수를 수강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진행되었다.

연수를 통해서 교과전문성의 향상과 더불어 교사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동료교사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동료성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됐고, 미래학교 특수분야 직무연수의 첫 시작이었다.

교과	개설 과목 키워드
국어	질문, 스마트, 수업 설계, 체험, 참여, 연극
사회	미래교실, 학습자 중심, 플립러닝, 프로젝트학습, 수업 디자인
수학	학생 활동 중심, 테크놀러지
과학	학생 참여 중심, 체험, 디지털교과서, 센서 기반, 창의적 산출물

2015 특수분야 직무연수 키워드

처음 연수를 개설하고, 과연 선생님들이 오실까? 외면당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는데, 연수 공문을 보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연수를 신청해 주시는 걸 보고 한 편으로는 정말 부지런하시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이런 새로운 연수에 목말라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11월이라는 시기에 이루어진 2학기 연수 모집 과정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1학기와 다르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바쁜 시긴데도 참여해 주셔서 ... 잊지 못할 겁니다.

- 연수 진행 전명재 교사

교과	연수 과정	개설 시기(학기)
국어	질문이 있는 국어교실 만들기	1
	스마트 도구를 활용한 국어과 수업 설계	
	연극을 활용한 신나는 국어 수업	
	스마트 도구를 활용한 국어과 수업 설계(심화)	2
	신나는 국어수업 설계를 위한 체험과 참여	
사회	미래교실의 방향과 이슈	1
	디자인 씽킹을 통한 사회과 프로젝트학습 탐색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습자중심의 사회 수업	
	제대로 학습을 위한 플립러닝	2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학교 역사수업 만들기	
	나만의 프로젝트 수업을 디자인하다	
수학	교과와 동아리 시간에 활용가능한 학생 활동중심의 수학수업	1
	수학교사의 테크놀로지 역량 강화 연수	
	수학 교과서 분석을 통한 발문중심의 수업지도 방안	2
	활동 중심의 수학수업	
과학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질문있는 학생중심수업	1
	센서기반 도구를 활용한 학생참여중심 과학수업	
	창의적 산출물을 적용한 학생중심 참여수업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 활동중심 과학탐구수업	2
	학생 맞춤형 배움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활동중심 과학탐구수업(심화)	

2015 특수분야 직무연수

■ 2016~2017 특수분야 직무연수 확산 및 정착

2016부터 2017년은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며 좀 더 짜임새 있게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2015년이 처음의 열정과 기대로 다소 들뜬 분위기였다면, 좀 더 진중해지고 묵직해지며 깊이를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0개의 강좌, 총 20개가 개설되었다. 기존의 4과목 중심의 연수에서 체육교과 연수 과정이 개설되면서 연수 과정이 더욱 다양화되었다.

이 시기의 연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교육과 수업을 살펴보던 시점에서 점차 교과별 미시적인 관점으로 이동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수업 사례 중심의 실질적이고 유용한 연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사별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업과 평가를 일체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와 성과들이 있었다. 그러기 위해 학교 내외의 교사들의 고민과 논의, 연구가 보다 밀도 있게 이루어졌으며, 교사간의 동료성의 발견과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그와 더불어 보다 깊이 있는 고민들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연수 과정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적용가능성이 높은 것이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시작점을 되돌아보는 지점이다. 개별 나무를 키우는 강좌와 더불어 전체 숲을 보는 과정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테크놀러지 활용 연수



체험 중심의 연수



융복합 연수

교과	연수 과정	개설 시기(학기)
국어	활동적인 국어 수업 설계를 위한 체험과 참여	1
	참여 중심의 국어수업 설계	2
사회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설계	1
	미래교육이슈와 교사공동체 집단전문성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 설계	2
수학	수학 수업에서의 테크놀러지 활용	1
	21세기 학습자역량 함양을 위한 중학교 수학수업의 실제	2
과학	현장답사를 통한 학생활동중심 융합수업자료 개발(기초)	1
	스마트한 수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 활용 실습(기초)	
	현장답사를 통한 학생활동중심 융합수업자료 개발(심화)	2

2016 특수분야 직무연수

교과	연수 과정	개설 시기(학기)
국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연극 수업	1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국어과 수업 혁신	2
사회	프로젝트 수업 상상과 협력적 디자인	1
	프로젝트 수업과 동료성 그리고 성장	2
수학	테크놀러지 활용 수학 수업 설계	1
	미래교육과 수학수업	2
과학	현장답사를 통한 학생활동중심 융복합수업자료 개발(기초)	1
	스마트한 수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 활용 실습(기초)	
	현장답사를 통한 학생활동중심 융복합수업자료 개발(심화)	2
체육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육수업 설계하기(1기)	1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체육수업 설계하기(2기)	2

2017 특수분야 직무연수

■ 2018 새로 쓰는 특수분야 직무연수

2018년은 총 6개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영어)에서 11개 과정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및 실제 적용 사례, 디지털 리터러시 및 테크놀러지의 적용 등을 중심으로 연수가 기획되었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래교육과 수업을 연구하는 동시에 미시적인 관점에서 각 교과의 수업을 담아내고 있다.

교과	연수 과정	개설 시기(학기)
국어	국어수업 전문가 되기	2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한 국어 수업	
사회	미래교육적 수업도전과 테크놀로지	1
	미래교육적 수업도전과 테크놀로지 실습	2
수학	서울미래학교의 수학수업 사례	1
과학	(기초)찾아가는 학생활동중심 융복합수업자료 개발	1
	(심화)찾아가는 학생활동중심 융복합수업자료 개발	2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체험	
체육	학습자 중심 실내 체육수업 설계하기(1기)	1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체육수업 설계하기	2
영어	영어과 학생참여중심의 수업방법 연수	1

2018 특수분야 직무연수

본교의 교사와 프린티어 교사단 및 미래교사연구회 등이 함께 공동 기획, 운영하여 보다 많은 서울교육 공동체와 나누고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교사로부터 교사에게... 연수를 통한 미래교육 공유와 확산(9.27)’을 주제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미래학교 4년의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다.

현재 교과중심의 연수들과 더불어 범교과적이고, 학교급의 구분이 없는 연수가 다시 개설되어 다양한 소통과 이해의 기회를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등 강사의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생각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며, 연수 이수 시간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유연한 연수가 기획되기를 바라며, 미래교육과 미래학교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및 홍보, 연수 장소의 다변화로 열정을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교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제 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수 관련 토크콘서트 포스터



연수 관련 워드 클라우드



연수 관련 토크콘서트

미래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탐색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직무연수의 주제도 함께 진화해 왔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그동안의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학교, 미래교육, 창덕여중만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탐색이 시작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교과 내의 고민과 공유에서부터 미래교육을 관통하는 주제를 담아내는 연수까지 연수의 스펙트럼을 넓히면서도, 다양한 시선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사고체계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수의 기획이 필요하다.

연수에 참여했을 때는 두근거리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샘솟았어요.
 특히 외부 전문가의 강의와 실제 창덕여중의 모습 담아낸 연수에 참여했을 때, 이런 연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는데, 생각보다 미래학교를 아는 교사가 많지 않아 안타까워요.
 - 연수 참여 양선화 교사

더불어 미래교육 및 미래학교의 철학과 교육방법을 공유하고 알리는 방법으로서의 직무연수, 본교에서 진행되는 연수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점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확산 노력

본교는 미래학교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국내외 교육관계자들의 방문을 수용하였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 2017년 아시아-태평양 ICT 장관회의의 공식 방문 학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매년 1,000여명의 국내외 교육관계자들이 본교를 다녀가고 있다. 교육과정, 학교문화, 학습환경의 측면에서 미래교육적 시사점을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단위학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학습환경 정비가 완료된 2017년에는 학교 투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지속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미래교육 실행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도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1. 미래교육 확산을 위한 투 트랙 홍보 체계

■ 학교 투어 시스템 운영 :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신청, 매주 수요일 학교투어 제공

본교는 미래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언론매체는 물론 여러 지역의 다른 학교 교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해 온 독특한 미래지향적 시설 인프라와 교육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미래교육이 본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의 많은 학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학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성이며 본교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시설투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담당 부서는 신청한 인원들에 한하여 공식적인 학교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3일 서울교대 교수진의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26일 서울여자대학교 투어까지 총48회의 학교 투어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본교 시설 투어를 다녀갔다. 특히, 미래교육에 대한 연구 목적이나 미래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본교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본교에 대한 그들의 인상은 다음 방문 후기에 잘 나타나 있다.

용현여자중학교 (2018년 9월 19일 본교 방문 후기)

공방, 누리방, 스튜디오, 소극장 등 다른 학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시설들이 많은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스튜디오나 소극장 같은 시설은 제가 근무하는 곳에 있다면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미래의 학급 당 인원수에 맞춘 리모델링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제물포여자중학교 (2018년 9월 19일 본교 방문 후기)

교실을 터서 학생 공간을 마련한 것, 태블릿 PC 대여방법 및 운영방법이 인상적이었고 여러 여유 공간에서 학습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신선했습니다.

Leipzig University (2018년 10월 2일 본교 방문 후기)

혁신적인 수업방법과 테크놀로지 활용모습, 따뜻한 분위기, 교사와 학생의 소통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원영월교육청 (2018년 10월 24일 본교 방문 후기)

실내 공간이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있고 특히 참관교실이 인상적입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을 함께 보듯 모든 교사와 학생이 수업하는 장면을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참관할 수 있게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본교를 참관한 방문단은 다양한 부분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대체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많다는 점과 각 공간들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활용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수업을 참관한 일부 방문단은 수업 방법은 물론 교사와 학생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을 남겨주었다.

■ 창덕여중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올해는 본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확장하기 위하여 '미래학교 창덕여자 중학교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해당 페이지에는 본교에서 실시한 여러 행사들의 활동 사진과 후기 등이 포스팅 되고 있다. 3월 29일 '생활지도'에 관한 첫 포스팅을 시작으로 7월 26일까지 26개의 다양한 학교 관련 이야기들이 포스팅되었고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해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26개의 포스팅을 분석한 결과 '참여'와 '수업'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짝토론과 같은 미래형 교육과정,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미래형 시설 인프라, 토크콘서트, 수업공유, 중간평가회를 위시한 교사문화 이슈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26개의 포스팅은 평균 도달 수 305, 참여 수 26, 클릭 수 85로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월 18일 김의진 교사가 작성한 미래학교의 공간에 관한 포스팅은 852라는 도달 수를 기록하였다.

포스팅 내용(날짜)	도달	
짝토론(3월 31일)	245	
테크놀로지(4월 7일)	524	
학생문화(4월 9일)	303	
수업공유(4월 12일)	714	
공간(4월 18일)	852	
토크콘서트(5월 9일)	595	
체인지메이커(5월 12일)	516	
합창발표회(5월 18일)	310	
중간평가회(7월 12일)	314	
테크센터(7월 19일)	430	
ESBZ방문(7월 26일)	459	

▲ 열린 공간에 대한 포스팅
 ▲ 창덕여중 페이스북 페이지 주요 포스팅 (일부)

도달 수 852를 기록한 김의진 교사의 포스팅은 본교의 열린 공간에 대한 내용이었다. 교사들의 통제 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본교의 여러 공간에 대해 느낀 점과 체육교육에의 시사점 등을 담고 있다. 방문단들이 본교의 공간구성과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많은 교육관계자들에게는 신선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 우리가 꿈꾸는 미래교육 확산을 위한 제언

본교는 미래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본교가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도전의 결과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아직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지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미래교육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청사진이며 방향타이기 때문이다. 미래교육 확산의 가속화를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가 연구의 주도권을 갖는 범위에서 외부의 전문 연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본교의 교육활동들이 타당한지 엄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타당성 연구는 비단 공간이나 시설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교육과정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적 연구를 통해 본교 교육활동의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일반화 가능한 미래교육의 모델로서 본교의 교육활동들은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둘째, 많은 방문 수요를 수용할 방안과 학교 투어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현재 본교를 방문하려는 기관들은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래교육 확산의 차원에서 더 많은 기관들의 방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방과 후에 이뤄지는 학교 투어만으로는 본교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본교의 교육활동을 완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교 투어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문한 학교나 기관들이 단순히 우리 학교를 시찰하고 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과 본교 교사들이 잠깐이나마 교류하면서 서로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미래학교 창덕여자 중학교 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에 본교의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과 관련 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자주 포스팅 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 미래학교와 관련한 거시적 담론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어왔다. 이제 미래학교의 배움과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확산의 포커스를 차츰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VI. 나오기

미래학교 4년, 성과와 과제

본교에서는 지난 4년간 서울 미래학교로서의 크고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미래학교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단위 학교에서 그 실체를 만들어 가는 움직임은 그야말로 프런티어(frontier)였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수는 없으나 현재의 학교가 갖는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의미있는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공립학교가 마주하는 제도적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 학교문화, 학습환경의 불일치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적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지난 4년의 움직임이 미래교육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의미있는 시사점을 학교공동체와 교육계에 제공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창덕여중이 걸어온 4년의 여정에서 성과를 말하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창덕여중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하게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미래학교 연구학교 재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지난 4년간 본교가 직면한 한계와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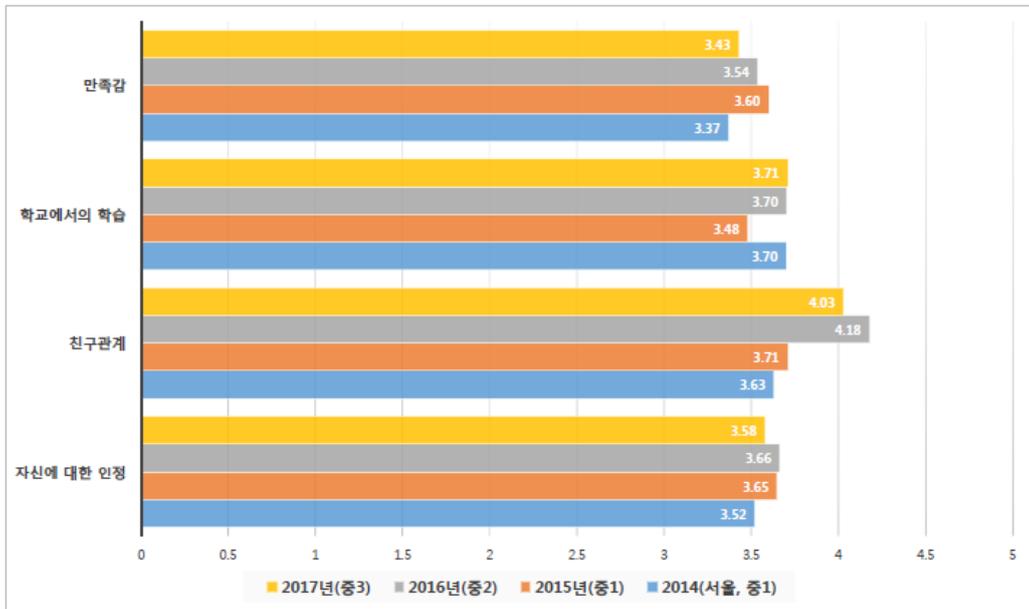
1. 창덕여중의 성과

■ 데이터에 나타난 창덕의 성과

본교의 비전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교’이다. 학교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학생의 행복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2015년부터 학생 행복도와 창의적 환경(가정&학교)⁴⁾을 조사하고 있다. 학생들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매년 파악해보고, 전국 혹은 서울 수준과 학년별 수준 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학교 전체의 성과를 가늠하는 일이 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하나의 ‘학습환경’이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학습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행복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한 행복도 및 창의적 환경 인식 결과는 다음 장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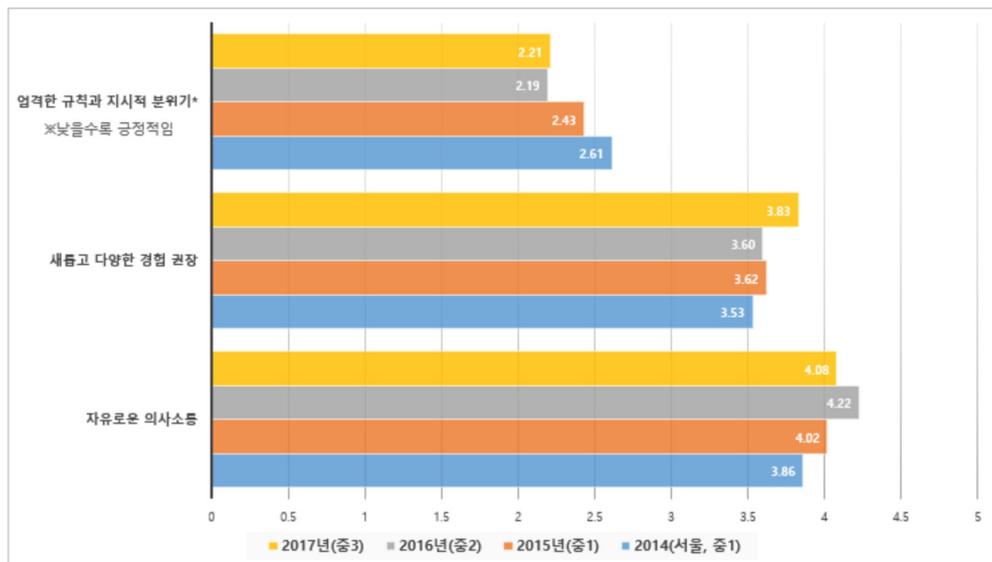
행복도는 만족감, 학교에서의 학습, 친구관계, 자신에 대한 인정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 학생집단에 대한 연도별 비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종단연구(김미숙 외, 2015)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서의 학습’은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서울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징적인 부분은 ‘학교에서의 학습’이 전국적으로는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본교에서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김미숙 외 (2015). OECD ESP 역량 역동성 종단연구(II): OECD 종단 설계의 한국 타당화. 연구보고 RR 2015-1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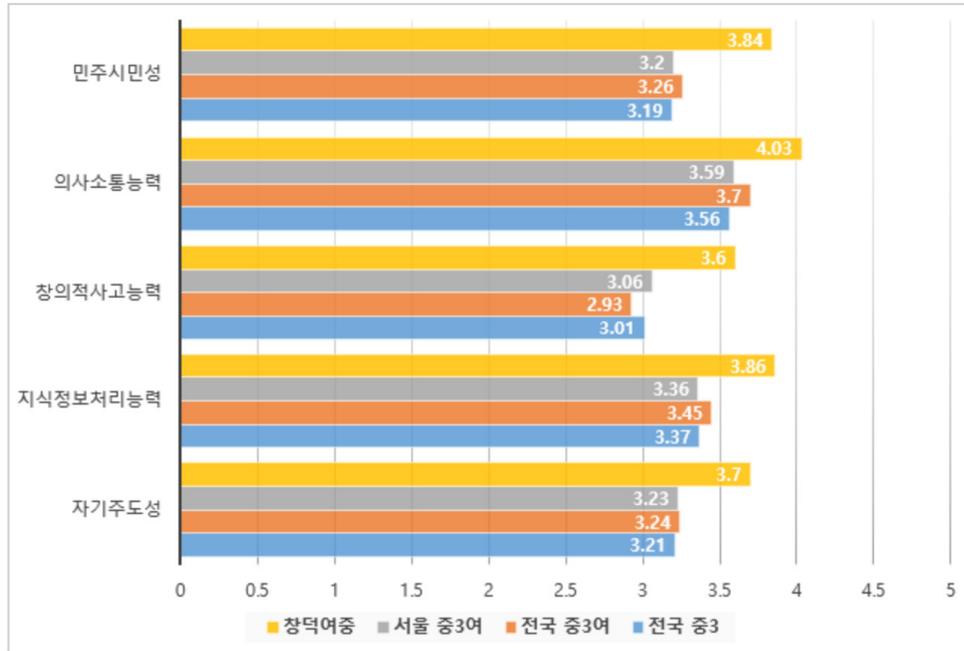
행복도 조사 결과(동일 학생집단, 2015-2017)

또한, 창의적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는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 새롭고 다양한 경험 권장,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학교에 대한 인식은 연도별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는 연도별로 감소하였고,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권장하는 분위기와 구성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대체로 증가하였다.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행복도 조사에 전반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학교에서의 학습 만족도가 연도별 상승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학교를 창의적 환경으로 인식하는 정도(동일집단, 2015-2017)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생역량⁵⁾을 측정하였다. 이 조사는 2017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역량의 하위 요인은 민주시민성,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능력, 지식정보처리능력, 자기주도성이었다. 본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생역량은 서울 중3 여학생, 전국 중3 여학생, 전국 3학년들의 수준에 비해 약 0.5점 높게 나타났다. 본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이 신장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행복도, 창의적 환경, 학생역량 등을 본 보고서에서는 독립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추후 이것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역량평가 비교(2017년)

■ 언론이 주목한 창덕의 성과

본교의 다양한 시도는 언론을 통해서도 수차례 노출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22회 언론보도 되었는데, 이중 2015년 3회, 2016년 6회, 2017년 8회, 2018년 5회(10월 기준)였다. 언론에서는 대체로 본교의 교수학습혁신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환경(공간) 4회, 학생 뮤지컬·연극활동 3회, 과학·융합 수업 3회, 체인지메이커 활동 2회, 국제행사 관련 3회,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7회 보도되었다. 2015년부터 2016년에는 학습환경 개선과 테크놀로지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17년부터는 교수학습, 평가 등의 교육과정 분야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본교가 어느 한 영역에서만 아니라 학교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학습환경 측면에서는 온돌방, 소극장, 스튜디오 등의 학습공간에서의 교수학습장면이 보도되었다. 학습공간의 개선이 수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내용이 많았다. 또한, 테크놀로지 학습환

5) 남궁지영 외 (2015). KEDI 학생 역량 조사 연구: 조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보고 RR 2015-3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경 역시 실제적이고 흥미있는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들의 테크놀로지 활용 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 학교의 공간 및 테크놀로지 인프라 개선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본교를 방문한 해외 교육자들에게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학습환경 개선에 자극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탄자니아 교육 관련 비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코드프리 보니벤투라는 “이 수업뿐 아니라 스튜디오형 교실에서 이뤄진 과학수업이 인상적이었고 레고월드 너무 훌륭했다”며 “교육 환경이나 시설이 학생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갖춰진 것 같다. 학교를 둘러보며 탄자니아 학생들을 어떻게 잘 교육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2015.6.1

교육과정 측면을 다룬 언론보도 내용이 다수였다. 국제 행사(세계교육포럼, 아시아-태평양 교육장관 포럼)의 방문 학교로서 당일 이뤄진 수업 중 융합수업, 지역사회연계수업,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짝토론 수업 등이 주목을 받았다. 각각의 수업이 얼마나 미래교육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이 본교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언론이 주목한 일회성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각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미래교육이 모여서 학교 차원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본교의 미래교육적 시도가 올바른 방법이거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또한, 여전히 이슈가 존재하고 검토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학교와 교실 차원의 미래교육적 시도에 주목한 언론을 통해 현재의 혁신에 힘을 싣고 공감대를 얻어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은 분명하다.

교사나 학생에게 평가는 늘 부담이다. 교사가 수업 혁신, 모둠별 프로젝트 활동을 시도해도 평가는 늘 걸림돌이 된다. 공정성, 객관성은 늘 평가에 따라붙는 꼬리표다. 정해진 시수에 맞춰 진도표를 짜고 학기 초 평가 계획을 급히 제출하느라 구색만 갖추기 일쑤다. 일부에서는 이 교사처럼 기존의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습 자체를 위한 평가를 하려는 시도도 있다.

- 한겨레신문, 2017.12.25

언론보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교육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본교 교육활동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교의 모든 혁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학교가 지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된 실체로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내용을 축소할 우려도 존재하지만 본교의 시도와 고민을 학교 밖과 공유하거나 호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본교가 만들어 가는 다양한 시도들이 언론이라는 말과 글을 통해 미래교육의 이슈를 공론화하고, 도전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을 응원하며 학교 안팎의 수많은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창덕여중의 실험은 우리에게 아직은 여러 모로 낯섭니다. 보기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객관식 문제를 풀고, 그것도 경쟁자보다 빨리 정답을 찾아내야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 '입시 현실'에선 모두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은 실험입니다. (중략) 창덕여중의 시도는 '기-승-전-대입'으로 귀착되는 한국 교육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퍼지기 어렵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의 불일치'를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 학교들이 인성 함양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게 이 교사의 호소입니다. 교육에 대한 이상과 실제 현실의 불일치, '협력형 인재가 미래인재'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친구들과의 협력보다는 경쟁을 중시하게 하는 현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의견 불일치 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 중앙일보, 2018.8.12

■ 연구에서 주목한 창덕의 성과

본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미래교육 연구에도 협력하였다. 본교의 교육과정, 학교 문화, 학습환경이 국내 학교의 혁신사례로서 해당 연구에서 소개되거나 교직원과 학생들이 연구대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국가 연구기관과 각 시도교육청, 대학 연구소 등에서 수행한 다양한 연구 중 일부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미래학교 설립·운영 모델 개발 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

연구는 국내·외 학교 혁신사례, 전국 초중등 교사 및 교육관계자 설문과 인터뷰 등을 통하여 미래학교의 의미와 유형을 정의하고, 운영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변화의 정도에 따라 혁신의 유형을 점진적 변화-점진적 파괴-파괴적 변화로 구분하였다. 본교는 미래학교로 주목받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점진적 변화 모델로 분류되었다. 이는 공립학교라는 제도적 범위 안에서 혁신의 수준과 속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제도적 범위와 한계는 2017년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교가 ‘반 보(步) 앞서 가는 학교’의 정체성을 띠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본교의 전반적인 모습이 점진적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안의 다양한 요소들 간에는 변화의 수준과 속도의 차이가 있다. 본교가 점진적 변화 모델로서 학교 혁신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파괴적 변화에 대한 시도를 통해 공립학교의 제도적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미래학교 설립·운영 모델 연구(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7)에서 구분한 미래학교 유형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비전 연구(Ⅱ)(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연구에서는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교의 사례와 구성원의 의견이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2차년도에 해당하는 이 연구에서 본교는 국내외 교수학습 운영 사례 부분에서 다뤄지고 있다. 국내 학교의 교수학습 혁신의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본교는 ‘학교와 지역 연계 교수학습’, ‘교과융합 교수학습’, ‘학습, 씬, 놀이가 연계된 교수학습 공간 조성’의 세 가지 부분에서 다뤄졌다. 이 연구가 주목한 미래교육적 시사점은 본교에서 일상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교수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해외 학교들에서 나타나는 시사점들이 현재의 창덕여중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특징은 무엇인지, 미래에 반영될 것이 없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공동체 구성원들이 말하는 창덕의 성과

본 연구보고서는 2018년의 창덕을 다룸과 동시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구·실천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교를 졸업한 학생과 학부모,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교육청, 교육기관 및 교육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 밖 교육관계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창덕의 성과를 말하고 있었다. 역량을 신장시키는 학생 중심 수업, 다양한 상호작용,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공동체 등은 창덕의 현재에 대한 공통된 설명이었다.

졸업생들이 말하는 창덕: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 자기주도성, 정보 활용 및 표현

2018년 1월에 졸업한 학생 중 37%가 온라인 설문에 응답하였다. 졸업생들이 평가하는 '창덕여중에서의 생활이 현재의 고교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평균은 3.86점(5점 척도)이었다. 학교 유형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특성화고(4.40점), 일반고(3.82점), 특수목적고(3.33점), 자율형 사립고(2.33점) 순이었다. 특성화고와 일반고, 특수목적고가 '보통'이상의 평가를 한 반면,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한 졸업생들의 평가는 다소 낮았다. 과정 중심 수행평가, 서·논술형 평가,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 프로젝트 수업, 짝토론 등이 고교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창덕여중에서 발표 기회가 많았고, 다양한 과제 수행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두려움 없이 발표하고 개인 혹은 팀별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고등학교 과제 수행 시 학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능력이 신장되었으며 다른 학생들에 비해 유리했음을 느꼈다고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고등학교 와서는 그런 기회가 적어 아쉬웠다. 또 단순한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한다는 점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 2018년 1월 졸업생

학부모들이 말하는 창덕: 다양한 경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학생들에 대한 정성

2018년 졸업생 학부모 11명, 재학생 학부모 24명이 온라인 인터뷰에 응답하였다. 졸업생 학부모의 경우,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점 등이 고등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밑바탕이 되었으며 정서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보를 전달받는 수동적인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현재의 자녀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재학생 학부모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창덕여중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존 수업 방식을 탈피하고자 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생각을 표현하도록 설계한 수업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창덕여중의 수업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 점에 만족감을 표현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교사와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소통과 교감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 아이는 기본 개념을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 입시만을 위한 공부가 아닌 '앓'에 참맛을 느끼는 것 같다. 이와 함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음을 내 아이의 말 속에 항상 녹아있다.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 재학생 학부모

학교 밖 교육관계자들이 말하는 창덕: 학생 중심, 역량 중심 수업, 교사들의 실천공동체

본교의 미래학교 연구학교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활동 과정을 관찰한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울 미래학교 수업 프런티어 교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교육청 관계자, 비영리 단체 대표 등 총 8명이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미래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인재 역량을 길러주는 곳,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 행복을 위해 초연결이 가능한 배움의 시공간, 교사와 학생의 수업을 기술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덕여중은 학생들이 수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수업, 단순히 인지 중심이 아닌 학습자 역량을 성장시키고 있는 수업, 경쟁보다는 협력, 문제해결력을 통해 꿈과 진로를 찾아가게 하는 수업 등이 미래학교적인 모습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사의 집단지성, 활발한 의사소통과 협업, 교육에 대한 열의가 뭉쳐진 배움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창덕여중의 미래학교 여정이 초기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한국형 미래학교의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여전히 사회는 인지력이 뛰어난 인재가 곧 훌륭한 학습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창덕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보한 교육방침(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고수하고,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기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암여자중학교 교사 장성욱

굳건히 본연의 뜻을 지켜내려는 교사... 다른 환경의 학교 소속 구성원의 관점에서 볼 때, 가끔은 눈물나도록 아름답습니다. 선구자는 외롭습니다. 외롭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처음처럼... 바위처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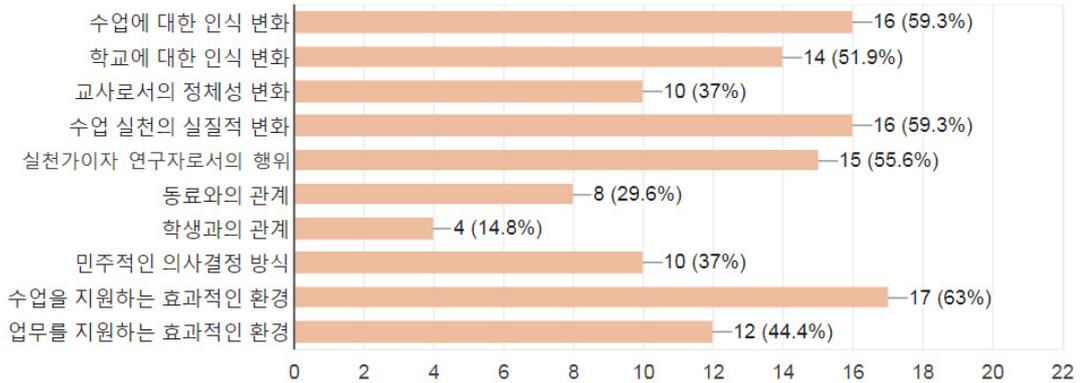
- 한영중학교 교사 김두일

창덕여중을 넘어 다른 학교들에 영감을 주고 국내외를 연결하는 무브먼트를 이끄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 Ashoka 대표 이해영

창덕 교직원들이 말하는 창덕: 수업을 지원하는 환경, 수업 실천 및 인식의 변화

창덕여중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창덕에서 체감한 변화에 대해 물었다. 개별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총 28명의 교직원이 응답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수업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환경(63%), 수업에 대한 인식 변화(59.3%), 수업 실천의 실질적 변화(59.3%), 실천가이자 연구자로서의 교사 행위(55.6%), 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51.9%)는 50% 이상의 응답자가 체감한 변화로 선택되었다.



위에 열거된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주로 수업 행위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수업의 변화가 가능하게 한 조건으로서 수업시수, 테크놀로지 환경, 재정적 지원, 연구하는 학교문화 등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율성과 진정성, 동료성과 민주성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창덕여중이 미래학교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핵심동력이 되었다.

그동안 희망만 가지고 있던 수업을 실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천은 동료 교사들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의 실천이 나의 실천을 촉진하며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단순한 지식 전수자가 아니라 촉진자이자 공동학습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고 탐구하며 성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진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학교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 부장회의를 열린회의로, 형식적 전환을 하여서 내용상에서도 민주화의 토대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교직원과의 소통의 장이 열리고 있다.

- 설문에 응답한 창덕여중 교사들

2. 창덕여중의 과제

2015년부터 시작된 본교의 미래학교 여정. 짧은 기간 동안 교실 수업부터 학교 차원의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의 시사점을 공유하였고, 이슈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나름의 성과로 제시한 것들이 창덕여중의 현재를 보여줄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와 과제를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졸업생, 학부모, 교직원 및 학교 밖 교육관계자들이 말하는 창덕여중의 과제는 무엇일까?

■ 공동체 구성원들이 말하는 창덕의 과제

졸업생들이 말하는 창덕의 과제: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학생들이 만나는 현실적인 벽

창덕여중에서의 경험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학교문화 등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인식하는지 질문하였다. 창덕여중 학생들이 다른 중학교 출신학생들에 비해 유리하다고 느끼는 상대적인 인식 정도를 포괄하는 질문이었다. 그 결과, 창덕여중에서의 생활이 현재의 고교생활에 유리한 정도를 평균 3.23점(5점 척도)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고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3.86점)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평가이다. 학교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특성화고(3.80점), 일반고(3.10점), 특수목적고(3.00점), 자율형 사립고(2.67점) 순이었다.

고교생활에 불리한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정기고사를 학기 당 1회만 보는 것(수행평가 위주의 학생평가), 자유로운 소통과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강조 등이었다. 대체로 내신 성적이나 입시에 대한 부담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학교일수록 창덕여중에서의 경험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이 불리하다고 인식한 부분은 앞에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현재의 교육정책이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일부의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내신 성적에 대한 중압감과 입시위주의 학교문화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교가 점진적 변화모델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혁신 수준과 속도를 조절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위 학교 차원의 미래학교 연구와 실천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혁신 정책과 대학입시정책의 연계, 초-중-고등학교 정책 간의 연계, 학교 혁신 부분별 정책간의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본교가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지는 외적 조건의 변화 못지 않게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7년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한 학교 비전(미래를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교)과 핵심가치(공감, 도전, 협력, 건강, 즐거움)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제일 큰 거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것 같다 창덕은 수행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험은 부담이 적어 중학교 생활은 편하지만 고등학교는 방식이 많이 달라서 힘들었다. (고등학교가) 수행평가를 목숨 걸고 해도 배점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중간고사 본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시험 준비를 해야 하니깐 다른 친구들보다 마음이 조금 무겁고 다급하다.

- 2018년 1월 졸업생

학부모들이 말하는 창덕의 과제: 입시제도와 문화에 대한 적응, 학업성취 향상 기대

졸업생 학부모를 포함하여 총 35명의 학부모들도 졸업생들과 유사하게 창덕의 과제를 언급하였다. 졸업생 학부모들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주변 학교의 교육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입시교육과 고등학교 교육방식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창덕여중의 역량 중심 교육은 자녀들이 고등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 시 주변의 중학교 출신 졸업생 보다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일 수 있는 교육을 요구하였다. 한 학부모는 창덕여중에서의 교육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교육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줄서기 교육으로 대입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다소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창덕만의 미래학교 교육환경이 아니라 고등학교-대학교가 연계되는 교육생태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학부모들도 본교의 학교 체제가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입시라는 조건과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현재의 학교체제가 보다 안정되고 교육계에 확산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표현하였다. 학부모는 학생교육에 대한 주체로서 자신의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공립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학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창덕여중 재학 기간에는 학부모의 기대가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기대가 고등학교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교육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업성취와 역량 향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정기고사와 학업성취도 평가가 강조되는 한국의 입시 문화에서 창덕여중이 지금보다 강점을 갖기를 바라고 있다. 아마도 창덕여중의 내부적인 논의와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 입시제도와 함께 가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지금 가는 길로 가되, 방향의 각도와 속도가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 재학생 학부모

창덕만의 노력이 계속되기보다 고등학교, 대학교도 이런 방향의 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졸업생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이 말하는 창덕의 과제: 변화되는 구성원들의 비전 공유, 혁신의 확산

본교의 지난 4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교육 관계자들도 학생, 학부모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부의 교육관계자는 인지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에서 창덕여중의 역량 중심 교육이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했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덕여중 사례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연구학교에 주어지는 경제적, 인적 지원들이 배제된다면 주변학교에서 창덕여중의 사례를 어느 정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사례 확산을 하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일반학교의 조건에서도 혁신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학교의 비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충원하고 학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래학교 사업 과정에 참여했던 초기의 교직원들이 교체되더라도 미래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 학교의 혁신내용이 동일하게 전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초기단계에서 창덕여중의 변화가 의미 있었던 것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다양성을 지닌 다수가 협력하고 참여한 결과이다. 즉, 학교생태계의 전체적인 변화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연수, 학교방문, 온오프라인 공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일반학교에서 인식하는 혁신의 공유 정도는 높지 않다. 교과 수업 혁신의 밑바탕에는 학교 차원의 혁신이 자리잡고 있고, 학교 차원의 혁신 안에는 교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4년이란 시간을 보낸 상황에서 명확하게 성과와 확산할 내용을 정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수준에서 창덕여중이 생각하는 확산은 혁신의 내용(콘텐츠)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 혁신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혁신의 네트워크 안에서 미래학교로의 변화를 응원하는 것일 것이다. 미래학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닌 구성원들이 충원되고 이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 시스템이 아직 여물지 않았지만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그리고 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는 미래학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케 한다. 내부적으로 소통과 공유를 강화하면서 외부적으로는 혁신을 확산하고 미래학교로서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창덕여중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좀 더 혁신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이를 넘어서 학교가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창덕여중의 모든 노하우가 개개인의 교사들의 노하우로 축적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매뉴얼화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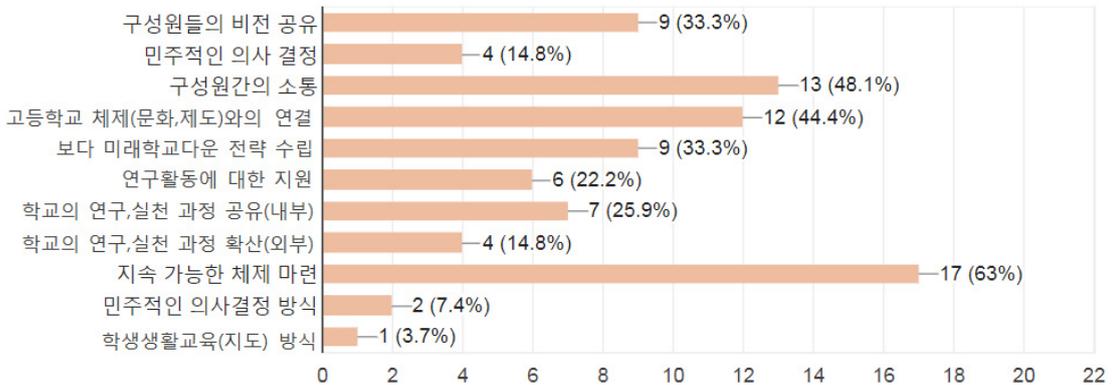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미래교육기획실 실장 김진숙

실제 세상, 현장, 삶과 연결된 배움(Real-world Learning)이 일어나도록 하는 학교의 제도적 변화를 보여주는 곳이 되면 좋겠다. 수업시간이나 학생 중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학교 밖의 자원(회사, 비영리단체, 서울시, 등)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파트너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 유쓰망고 대표 김하늬

창덕 교직원이 선택한 창덕의 과제: 지속 가능성 확보, 구성원간의 소통

교직원들은 지속 가능한 체제 마련(63%)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택하였다. 구성원들이 바뀌는 공립학교 체제에서 미래학교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다 미래학교다운 전략과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창덕여중의 과제일 것이다. 제도적, 문화적 체제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다. 구성원과의 소통(48.1%), 고등학교 체제와의 연계(44.4%)도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 과제들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부분이다. 구성원들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소통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체제와의 연계 역시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구성원과의 소통과 더불어 상급학교 상황이 고려되어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성의 전제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교'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다. 비전을 향해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크고 작은 변화들이 기존의 학교체제와 연계되고, 구성원들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축적하고 확산해야 할 것이다.

구성원이 모두 바뀐 이후에 창덕여자중학교가 미래학교로서 가지고 있는 무형의 유산을 어떻게 축적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 설문에 응답한 창덕여중 교사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 미래교육은 누가 주도하는가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학교”로 성장한 지난 4년간은 공교육에서 실천 가능한 미래교육의 틀을 보여주었다. 여러 실험적인 시도 속에서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학습 만족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으며, 학교의 ‘창의적 학습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해마다 향상되었다. ‘학생역량’⁶⁾이 전국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분명 미래학교 연구학교로서의 노력이 거둔 성과일 것이다.

올해 본교의 교수학습과 평가에 대한 외부 연수와 강의 요청은 쇄도라는 표현이 그다지 과장이 아닐 만큼 많았다.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과정중심평가로의 전환을 본교의 교육활동이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초기 미래학교를 구축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학습 공간 변화와 테크놀로지 연계 수업방법 개선이 점진적으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평가의 혁신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미래를 위한 교육은 단지 공간과 시설, 경과적 수업 방법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평가 혁신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것에 그 방점이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미래교육의 의지할 바가 아니라 교수학습 전반의 근본적 변혁이 미래교육의 지향점이고, 이는 시설과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의 뒷받침이 필수 불가결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교수자의 문제인 것이다.

■ 우리의 도전에 대한 고민

현재 창덕의 학생들은 서울의 그 어느 학교보다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학교의 시스템 보다는 본교 교사들의 열정이다.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참여 수업, 정식교과목으로 승인 받아 운영하는 짝토론, 체계적인 융합교육, 민주적 효능감을 키우는 학생 문화를 창출해낸 지난 4년간의 창덕의 성과의 밑바탕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희망교실을 운영하고, 저녁 늦게까지 토크콘서트로 서로의 문제를 꺼내 놓고 토론하며, 해마다 10과정 이상의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직접 운영하고, ART 프로젝트를 통해 자발적 연구에 참여하는 본교 교사들의 열정어린 도전과 헌신이 있다.

문제는 그러한 도전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도전의 결과적 손익은 우리 학생들의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의 시대를 앞서가는 순수한 열정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또 다른 의미의 온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기-승-전-대입으로 귀결되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창덕 이후 또 다른 장애물 앞에서 당황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6) 2017년 3학년 학생대상 실시, 민주시민성, 의사소통능력, 창의적사고 능력, 지식정보처리능력, 자기주도성

■ 교문에서 그치지 않는 미래교육으로

창덕이 미래학교로 변모하면서 3개 학년을 모두 미래학교 시스템에서 공부한 첫 번째 졸업생이 지금 고1이다. 졸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졸업 후 고등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창덕교육의 효과성을 설문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우려보다는 안심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몇 항목은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졸업생들은 다소 과도기적 교수학습과 평가가 적용되었던 학년이었다. 본격적인 미래학교로서 공부했던 금년도 3학년이 좀 더 정직한 평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종단연구 내지는 일반 학교와의 비교분석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고민은 미래학교로서의 지속 가능한 체제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며, 우리의 성과가 교문 안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공교육 체제하의 보편교육으로 일반화할 것인가에 있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으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제도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관념적인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보하는 교육이 아니라, 도전하고 협력·공감하며 현재도 즐거운 건강한 교육을 통해 미래를 알차게 만들어 가는 공교육의 장(場)이 창덕의 교문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교육 전반에 널리 퍼져 나가기를 소망한다.

VII. 부록

2018 외부 방문단 지원 현황

1. 외국 방문단

순	날짜	방문 주체	방문 목적	방문자 수
1	2.7	핀란드 국영방송 YLE 한국핀란드 교육연구센터	한국교육 취재	4명
2	3.9	UAE 교육관계자, 교육부	한국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공유	5명
3	3.21	일본 국제기독교 대학	학교 시설 투어	7명
4	4.2	러시아 하바포프스크 교육청	학교 시설 투어	12명
5	5.23	니가타시 의회의원연맹	신형 ICT 도입 모색	11명
6	6.7 ~6.8	대만 자매결연학교	수업 참관 및 시설 투어	11명
7	7.26	독일 ESBZ 졸업생	학생들과의 대화	4명
8	9.13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연수단 가봉학교 교사	수업 참관 및 시설 투어	23명
9	10.2	독일 라이프치히 교수단	학교 시설 투어 및 간담회	9명
총 인원				86명



대만 자매결연학교 방문



대만 자매결연학교 학생 수업 참여



독일 ESBZ 졸업생 방문



독일 라이프치히 교수단 방문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연수단 방문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연수단 시설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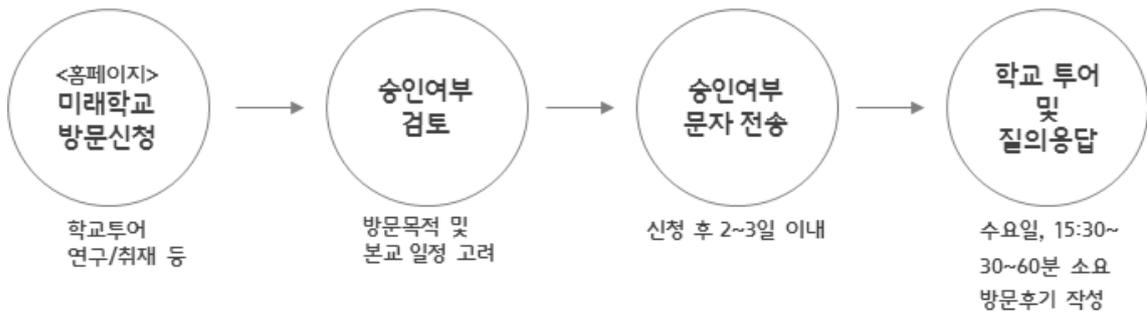
2. 국내 방문단

순	날짜	방문 주체	방문 목적	방문자 수
1	1.3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단	미래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 참고	4명
2	2.21	현암초등학교	미래교육시스템 관찰	12명
3	3.7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미래학교 시설 및 운영 자문	3명
4	4.3	대구시교육청	학교 시설 투어	20명
5	4.4	종암중학교	학교 시설 투어	3명
6	4.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양고등학교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및 평가 사례 수집 학교 시설 투어	7명
7	4.12, 13	전북대학교 연구원	수학과 교사 면담	1명
8	4.18	인천교육정책연구소	미래지향적 학교교육을 위한 지표개발 자문	2명
9	4.25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간 구성에 대한 철학과 구축 환경 참고	14명
10	5.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서울미래학교 시설 투어	5명
11	5.9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 초등학교	학교 시설 투어	2명
12	5.16	한국교육개발원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시설 재구조화 추진 과정 면담	2명
13	5.30	신화중학교	협력종합예술 활동 연습장 구축을 위한 견학	3명
14	5.31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수학과 수업 참관	4명
15	6.8	연합뉴스	모의선거 수업 촬영	1명
16	6.20	용유중학교	미래학교 교육과정 및 시설 참고	10명
17	6.27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부 연구진	교과과정 및 학교 문화에 대해 자문 학교 시설 투어	6명
18	7.11	아쇼카한국	포럼 사전면담	2명
19	7.18	미즈내일	서울미래학교의 특화된 시설 및 수업 취재	2명
20	7.24	애월중학교	학교 시설 투어	7명
21	8.13	방산중학교	학교 시설 투어	2명
22	8.14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 시설 투어 미래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 참고	47명
23	9.4	EBS	미래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수업참관	3명

순	날짜	방문 주제	방문 목적	방문자 수
24	9.5	나눔ICT(주)	학교정보화 현장지원체계 참고	2명
25	9.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학과 수업 참관	3명
26	9.19	인천광역시 남부 관내 교직원 서울금융고등학교	미래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 참고 교실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한 선진학교 탐방	34명
27	10.15	선인고등학교	교과교실제 운영 참고	5명
28	10.24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의 기회 제공	25명
총 방문 인원				231명

3. 창덕여중 방문 신청 절차

본교는 미래학교 확산과 관련하여 공익 목적의 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그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창덕여중 방문 신청 절차 및 진행

미래학교

미래학교방문신청

홈 > 미래학교 > 미래학교방문신청

미래학교스타일	+	
연구하는 미래학교	+	
업무매뉴얼	+	
미래학교추진현황	+	
연론속의창덕	+	
미래학교방문신청	-	<p>서울미래학교 창덕여자중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p> <p>본교는 방문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p> <p>◎ 방문가능일자</p> <p>- 시설투어 : 매주 수요일, 15:30~16:30</p> <p>- 연구/취재: 학교 측과 협의 후 조정함</p> <p>◎ 방문신청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래의 신청 링크를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 2. 시설투어 : 방문 희망 2주 전 수요일까지 신청(단, 특정 교과 및 교사와 사전에 연락이 된 경우 요일-시간 조정 가능) 연구/취재: 최소 3주 전에 신청 3. 방문승인여부는 문자메시지로 확인 드림

학교 홈페이지 상의 미래학교 방문 신청

보고서 작성, 숨은 이야기

연구학교 TF는 한 해 동안의 교육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확산하기 위해 조직된 팀이다. TF에서는 그동안의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2018년 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을 결정하였고,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2018년에는 전체 회의와 팀별회의를 구분하여 '따로 또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하였다. TF 모임(회의)일지와 집필자들의 후기를 공유해본다.

1. 모임 일지

■ 2018.09.11.(화)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다

2018 연구학교 TF팀의 본격적인 첫 회의는 강산애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 처럼'과 함께 시작했다. 음악으로 TF팀 구성원 모두가 세대차를 넘어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열었다. 2018년 연구학교 보고서의 목적을 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다. 작년과 같이 2018 한 해 동안 일어난 교육활동의 기록을 할지, 아니면 기존의 미래학교와 앞으로의 새로운 미래학교의 전환점이 되는 보고서를 작성할지에 대한 것이 고민이었다.

2015~2017까지 3년 동안의 성과를 녹여내는 종합적인 성격으로 기존의 보고서 내용을 개조식으로 서술하고, 올해 2018년의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그래야만 기존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창덕여중이 어떤 발전 과정을 겪었는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를 위한 제언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과거-현재 미래의 흐름 및 다음 미래학교의 모습을 위한 제언을 하기로 했다.

다음은 목차 구성에 대한 논의였다. 여러 제안들 중 교육과정, 학교문화, 학습환경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시기별 연구 기록과 올해의 특색 사업을 조화롭게 연결 지어 작성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각 카테고리에 들어갈 내용은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브레인스토밍 했다.

■ 2018.09.18.(화) 함께 고민하다

1차 회의 과제로 주어졌던 '목차 및 집필 계획'을 함께 훑어보며 논의를 시작했다. 작년 보고서와 개요 구성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이전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파트가 생기기도 했다. 많은 양의 사례를 실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AR,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PDF파일을 다운받거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SNS 활용을 통한 학교 홍보에 대해서도 채널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양한 꼭지를 사례중심, 인터뷰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계획을 세우니, 집필하는 우리 스스로도 올해 더욱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었다. 서술방식을 개조식으로 할지, 편안한 문체로 작성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나, 일관되게 통일하여 나레이션 형식으로 우리 학교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 2018.10.16.(화) 팀별 1차 검토

팀별 1차 검토는 초안의 방향을 잡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 보다는 현재 우리학교의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실제 수업과 업무를 하는 선생님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그동안의 보고서에서 보여주지 못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기로 했다.

■ 2018.10.23.(화) 전체 원고 피드백

팀별 1차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된 원고를 수합하여, 전체 피드백을 진행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그동안 미래학교가 이루어온 내용들이 축적되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포함되어야만 했다.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시각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의 모습들을 담으려다보니, 여태까지의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교사 인터뷰가 수록되어있었다.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살리면서도, 인터뷰로 인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터뷰 수록 방식을 다듬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 2018.10.30.(화) 팀별 2차 검토

마지막 팀별 검토는 서로의 원고를 바꿔서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각자 작성해온 원고의 어조를 맞추고, 준비해온 내용 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합쳤다. 다른 사람의 원고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본 원고들이 창덕여중을 대표하는 글이기 때문에 미심쩍은 내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통집필이기 때문에 각자가 해석하는 내용과 서술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의견들을 팀 단위에서 조정하여 약 두 달여 만에 잠정적으로 원고를 마무리했다.

■ 2018.11.06.(화) 공개보고회 준비

보고서 목차를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목차마다 다른 서술 방식이나 분위기를 통일했고, 목차의 위계를 다시 조정했다. 2018년 공개보고회에서 각 팀별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8년 공개보고회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교육과정, 학교문화, 학습환경&확산으로 영역을 구분하였고, 각 영역별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것이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참여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 될 것이다. 최대한 본교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고,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하였다.

2. 함께 만든 사람들

창덕의 가을은 아름답다. 번잡한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단정한 아름다움을 누리니 행복하다.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10여명이 모였다. 다양한 생각들을 척척 조화롭게 맞추어 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부지런한 손길 위로 비추는 서로를 격려하는 미소와 눈빛이 가을 빛 보다 더 아름답다. 참 감사한 일이다.

유인숙

먼저 지난 4년간 서울미래학교 운영을 통하여 공교육에서 실현 가능한 미래교육 모델을 구축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 보 앞선 걸음으로 미래학교를 운영한 교육활동을 솔직하게 담아낸 보고서입니다. 미래는 늘 우리 앞에 있기에 지금도 진행형으로 함께 연구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선생님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채영이

무엇보다도 먼저, 함께해주는 동료들에게 있는 힘껏 존경과 신의를 보낸다.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마다 우리 학교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동시에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 그런 작업을 4년 동안 하고 나니, 학교에 대한 뿌듯함과 자긍심이 더할 나위 없이 높아져버린 듯 하다. 이제, 다시, 차갑고 차분하게 다시 돌아볼 기회였기를 바란다.

김유정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 여기에 왔고, 2년의 시간을 보냈다. 연구학교보고서에는 우리학교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만나기 힘든 훌륭한 동료 교사들로부터의 배움과 깨달음을 담기에 는 지면이 부족한 듯 하다. 미래학교는 유형의 시스템이라기보다 교사들의 노력 그 자체가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우는 시간이었다.

김의진

내부자의 시각으로 현상을 자세히 기술하되 최대한 객관적인 논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인터뷰와 각종 근거자료들을 분석하였고, 그 프레임의 범위내에서 의미 탐색과 추출을 시도하였다. 우리학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

김준구

학교와 수업은 교사에게 삶이다. 연구보고서를 쓰는 일은 삶을 소개하는 일이라 부끄럽고 조심스러웠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담으려 했다. 치장보다는 정체성을 담고 싶었다. 우리 학교가 '진짜' 미래학교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 그래도 나에게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이다. 다양한 교육이 꿈틀대는 보다 포용적인 미래학교를 꿈꿔본다.

박의현

훌륭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곱씹으며 학교의 변화에 대한 꿈을 가지는 나에게 이 보고서는 수업이다. 또한, 그들과 소통하며 성장하고 있는 나에게 이 보고서는 수업료이기도 하다. 그들은 아무도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을 실패로 만들면서 미래의 성공을 도모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도전들을 최대한 담고 싶었다.

안영석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미래학교 교사로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해 동안 치열하게 해 왔다. 아직 명확한 답은 찾지 못했지만 연구학교 보고서를 쓰면서 희미하게나마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이 치열함 속에서 자기 확신을 조금씩 얻어 가는 것, 그것이 보고서를 쓰며 얻은 나의 정체성인 것 같다.

윤수란

글을 쓰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는 사실과 감정 그리고 상상을 짚은 문장에 담아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부담감 못지 않게 즐거움도 있다. 많은 분들과 깊이 대화하고, 나와 우리를 되돌아보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즐거운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정성껏 담아내고자 하는 동료들의 마음과 함께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은상

인터뷰 중 '창덕여중은 좋은 학생을 키우는 곳이지만, 좋은 교사를 만들어내는 교사양성기관이기도 하다'는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지금의 창덕여중을 만들어 온 동료교사들을 인터뷰하고 함께 집필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존경스러운 동료들과 함께 라는 사실이 행복했다. 겁도 없이 집필팀에 뛰어든 나를 한결 같이 응원해주고 도와주던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이은주

끝을 알 수 없는 마라톤이란 어둠 속을 걷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완급을 조절하며 달려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건 이미 밝은 빛이 하나 둘 켜졌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 둘 불을 밝히며 앞으로 나아간다.

전명재

창덕여중 연구학교 TF팀

교장 유인숙
교감 채영이
교사 김유정
(가나다순) 김의진
김준구
박의현
안영석
윤수란
이은상
이은주
전명재

미래를 만들어 가는 행복한 학교

발행인 창덕여자중학교장 유인숙
발행일 2018년 11월 29일
발행처 창덕여자중학교 | 070-5125-4409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22
집필 창덕여자중학교 연구학교 TF팀
인쇄 성민기획 | 02.2268.6047